한국 무역신문
Korea Trade News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마케팅 전문기관
EC21
Global Marketing & Consulting
kr.ec21.com 02)6000-4435

해외마케팅의 No.1 성공파트너
ecplaza Global
kr.ecplaza.net / 02) 476-1144

www.weeklytrade.co.kr 2022년 12월 5일 〈제748호〉 Tel.02-6000-3119

내년 무역 환경 올해보다 어둡다

무역협회, 세계 경제 하강 국면… 수출 4%·수입 8% 감소 예상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11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내년 한국의 무역 환경이 올해보다 더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구 회장은 11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여진이 계속되고 통화 긴축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외 무역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 수출과 수입은 올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내년 주요국의 경기 부진으로 수출은 4% 감소한 6624억 달러, 국내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으로 수입은 8% 줄어든 676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무역 적자가 예상되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는 138억 달러(약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협회는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주력인 반도체 수출이 단가 하락과 전방 산업인 IT기기 수요 감소로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석유화학 부문 수출도 최대 시장인 중국의 수요 감소와 설비 증축으로 9.4% 줄어들 전망이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D램 단가가 올해도 20% 넘게 하락했고, 내년에도 글로벌 IT 수요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반도체가 부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 에너지를 정제 · 가공해 수출하는 석유화학 제품의 단가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고성능 IT 단말기 OLED 채택 확대,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와 전기차 수출 확대로 각각 2.3%, 1.9%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협회는 올해 수출과 수입을 지난해보다 각각 7.1%, 19.5% 증가한 6900억 달러, 75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한국 수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적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계 순위가 작년 7위에서 올해 6위로 올랐다. 수출 세계 5위 일본과의 격차도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고, 중계무역국인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5대 수출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협회는 평가했다.

다만 올해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 수입이 급증하며 14년 만에 무역 적자로 전환, 연간 적자 규모가 4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상대적인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에너지 가격 급등의 여파로 무역수지 적자 추세는 여전히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자열 회장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같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경우 우리 무역이 기대 이상으로 크게 회복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무역협회는 수출이 활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시장개척, 무역금융, 물류비 안정 등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채 기자

최신 무역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로 가득찬
글로벌 비즈니스 포털
KITA.NET

한-캄보디아 FTA 발효… 한-인도네시아 CEPA도 새해부터

12월 1일부터 캄보디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또 한 달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다.

이 두 협정은 아세안과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양자 FTA에 해당한다.

CEPA는 투자와 경제협력 등 경제 관련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의 협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설명회를 열어 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확대 방안을 소개했다.

한-캄보디아 FTA 발효로 전체 품목 중 우리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한국 95.7%, 캄보디아 72.2%)했다.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1%p, 수입액 기준 43.2%p 만큼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이 추가 개방돼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좋아지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캄보디아 FTA는 1일 발효 즉시 1년차 관세가 철폐됐고, 내년 1월부터는 2년차 관세 철폐가 적용된다.

아울러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CEPA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0%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한국 97.3%, 인도네시아 97.0%)하게 된다. 한-아세안 FTA 대비 인도네시아 측 시장 개방 수준을 약 13%p 높였으며 그간 한-아세안 FTA에서 미개방된 우리 측 관심 품목에 대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기준 니켈(세계 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자, 2억7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김보근 기자

수출기업 어려움 해소… 범부처 수출 · 수주 지원단 출범

수출기업의 애로 해결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한 '원스톱 수출 · 수주 지원단'이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30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장영진 산업부 1차관과 관계부처 및 수출 지원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원스톱 수출 · 수주 지원단 개소식을 개최했다. 지원단은 기업의 수출 · 수주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산,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마케팅, 물류 등 전 주기에 걸쳐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원전, 방산, 해외건설 · 플랜트 수출 사업에는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해 성공적인 수주를 지원한다.

지원단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1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의 수출 · 수주 담당 직원들로 구성된다.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도 참여한다. 강효선 기자

'붐업코리아'에서 4500만 달러 수출 MOU · 계약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온라인으로 열렸던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가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면 활기를 띠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12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내 기업 2300개사와 약 1000개사의 해외 바이어가 온 ·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2022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재 · 부품 · 장비(소부장), 원전, ICT, 소비재 등 주력산업 수출기업과 사전 섭외와 상담 등을 통해 초청된 해외 바이어가 한 자리에 모여 수출계약 25건과 업무협약(MOU) 20건 등 4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오프라인 상담회에서 수소연료전지 · 자율주행 분야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일 자동차 부품기업 보쉬, 국내 기업과 원전 분야 협력을 희망하는 폴란드 플랜트 전문건설회사 자르멘(ZARMEN) 등 261개 바이어가 1500건의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김영채 기자

12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서 바이어들이 부스에서 한국 수출기업 관계자와 상담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함께 지킬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는
인권, 고용, 환경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이의신청사건의 주선을 제공하여 기업의 문제해결을 지원합니다.

함께 지키면 모두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라인, 한국NCP가 함께합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의 모범적인 행동규범,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입니다.

정보공개 / 인권 / 고용 / 환경 / 뇌물 /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 공정경쟁 / 조세 등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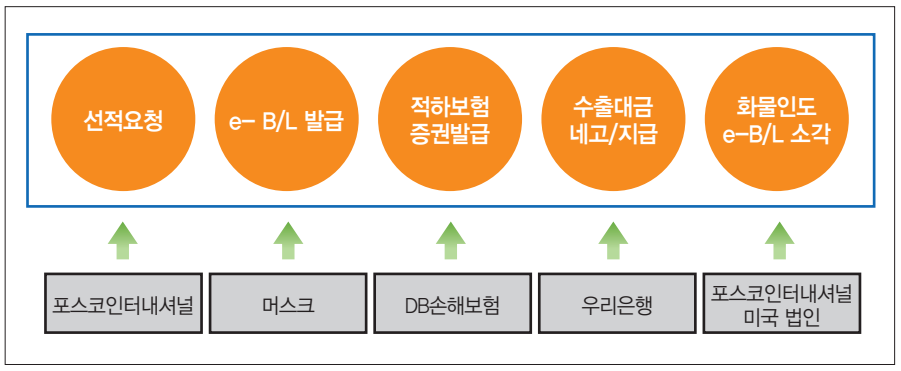
KNCP Korean National Contact Point

한국NCP사무국 전화 (02)551-2046 I 팩스 (02)551-2020 I 홈페이지 www.ncp.or.kr

블록체인 기반 e-B/L 상용화 테스트 성공

KTNET, 플랫폼 구축… 포스코인터내셔널 자동차부품 미국 수출에 적용

■ KTNET 플랫폼을 통한 e-B/L(전자선하증권) 유통절차



한국무역정보통신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선하증권(e-B/L; Electronic Bill of Lading)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부품의 미국 수출 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출 건은 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 법인이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으로, 11월 3일 부산항 선적과 동시에 운송 선사인 머스크가 e-B/L을 발급했으며 이후 같은 달 18일 캐나다 벤쿠버항에 하역되었고 27일 철도 운송을 통해 미국 디트로이트에 도착해 e-B/L을 소각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과제로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전자선하증권 플랫폼 개발 사업의 결과다. KTNET은 그동안 포스코인터내셔널,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DB손해보험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왔다.

KTNET은 이번 사업에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에 블록체인과 NFT(Non Fungible Token ; 대체불가능토큰)를 활용하여 디지털 유가증권의 유일성을 보증하면서 소유권을 생성, 양도, 증명, 폐기하는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수출 관련 종이 선하증권을 디지털로 대체함으로써 그간 선하증권 등 종이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국제특송으로 보내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B/L은 과거에도 선보인 적이 있었으나 선사 · 은행 등 유관 당사자들의 준비 미흡과 완벽하지 못한 보안 문제, 무엇보다 국제규범의 부재 및 교역상대국의 준비 부족 등으로 유야무야됐다. 차영환 KTNET 대표는 "KTNET은 이번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선하증권을 시작으로 블록체인이나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무역업무에 접목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무역 · 물류업계의 디지털 전환과 무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KTNET은 이번 전자선하증권을 시작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자계약, e-B/L 유통, e-네고 등의 무역업무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며, 포스코인터내셔널 역시 전자선하증권 거래를 유럽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대상 업무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채 기자

선하증권 양도가 국경을 넘어 전자적으로 이뤄지다

정부 차원에서 법제화 서둘고 무역업체 · 선사 · 은행 등도 도입 준비해야

블록체인 기반 e-B/L 상용화 성공의 의미

선하증권(B/L)은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양도가 가능한 대표적인 무역서류다. 국제상공회의소(ICC)는 대부분의 무역서류들이 이미 전자화되었지만 선하증권은 여전히 종이서류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가 전자선하증권(e-B/L)의 국가 간 법적 효력이 모호하기(Unclear)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어 향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MLETR(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전자양도성모델법)'이 대안이 될 거라고 전망했다.

MLETR은 선하증권과 같은 양도가능한 문서가 전자적으로 유통되더라도 그 법률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모델법으로서 현재 싱가포르 등 7개 국가가 자국 내 법제화를 완성했으며 G7국가들도 2021년 영국 콘월회의에서 공통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지원으로 개발한 전자선하증권 블록체인 플랫폼은 이번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실거래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검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수출물품이 선적된 후, 다국적 선사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선하증권(e-B/L)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에게 발행했고 이 때 발행된 e-B/L은 MLETR의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ETR(양도가능문서, 블록체인 기술로는 'NFT') 형태이다.

그 후 e-B/L의 소유권은 무역거래 절차에 따라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양도 및 양수되었다. 미국 수입업체는 화물을 인도받은 직후 ETR을 선사에게 최종적으로 양도하였고 e-B/L의 생명주기가 끝남에 따라 소각처리(burning)되었다. 국경을 넘는 실제 무역거래에서 전자선하증권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전 과정 사용(One-Cycle service)된 것이다.

그동안 최종적으로 화물인도가 완결되어도 선하증권은 회수되지도 않고 폐기되지도 않은 가운데 창고에 쌓이면서 복제, 사기 등의 위험이 있었다. 이젠 이런 위험은 근본적으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의 양도가 전자적으로 국경을 넘어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됨에 따라 종이 형태의 부대서류의 DHL 비용 감소는 물론 수작업에 의한 실수는 사라지고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술검증이 완료된 PILOT 서비스는 상용화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해외에는 금융, 물류 등 복잡한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다국적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세계 초일류 수준에 있는 대한민국의 전자무역 서비스가 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져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이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야 한다. 정부도 MLETR의 법제화 작업에 서둘러 착수하여 수출현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민철홍
KTNET 블록체인기술실
수석부장(박사)

상어·거북·도마뱀 등 무역거래 제한

CITES 총회서 상어 등 멸종위기 500여 종 보호종 등재

상어와 거북, 도마뱀, 명금류 등 수백 종의 동물이 새로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돼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11월 25일 파나마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9차 당사국 총회 폐막식에서 500여 종이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CITES는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Ⅰ, Ⅱ, Ⅲ로 분류하는데, 부속서 Ⅰ에 올라간 종은 CITES에 등록된 농장에서 증식된 개체가 아니면 상업적 거래가 불가능하다. 부속서 Ⅱ에 속한 종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거래할 수 있고, 부속서 Ⅲ에는 상업 · 학술 · 연구목적 국제거래를 할 수 있지만 특정 국가에선 이런 행위가 규제되는 종이 등재된다.

이번 CITE 총회에서는 먼저 흉상어과, 귀상어과, 가래상어과 등에 속하는 상어 90여 종이 부속서 Ⅱ에 등재됐다. 아시아 지역에서 지느러미 요리 '샥스핀' 때문에 수요가 많은 상어는 연간 약 1억 마리가 남획되면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 유리개구리를 비롯한 개구리, 거북이, 도마뱀 등 수십 종과 일부 명금류도 멸종위기종으로 이름을 올리며 애완용 목적의 상업적 거래가 제한을 받게 됐다. 지난 15년간 개체 수가 80% 줄어들며 멸종 위기에 처한 노란머리직박구리는 거래가 완전히 금지됐다.

다만 하마를 비롯한 일부 동물을 부속서 Ⅱ에서 Ⅰ로 옮겨 보호 수준을 상향하자는 내용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상아 및 코뿔소뿔 거래 제한 규정을 해제하자는 제안 역시 기각됐다. 이번 총회 결정 사항은 내년 2월 23일부터 발효된다. 김보근 기자

수출도 지원하는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은 지난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K-EXPO에 중소협력사 14곳과 함께 참여해 총 550만 달러(약 75억 원) 상당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에는 국내 홈쇼핑업체 중 현대홈쇼핑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현대홈쇼핑은 중소협력사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지원하고 수출 상담 부스와 체험관을 설치해 대표 상품을 소개했다. 또 베트남 현지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제품 시연회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진은 베트남 한류박람회의 현대홈쇼핑 상담 부스. 【사진=현대홈쇼핑 제공】

2023 무역아카데미 교육과정 안내

World Trade Academy Course Guide 2023

Be a Competent
International Trader

Be a Strategic
Global Marketer

Be a Professional
Trade Expert

카카오톡에서 무역아카데미를 만나보세요!

유튜브에서 무역아카데미를 구독해 보세요!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원사 여부 확인하기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513 코엑스 전시장 4층
TEL. 02-6000-5378~9
Homepage. https://newtradecampus.com

◎ 무역실무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일(시수)	교육시간	수강료(회원사)	수강료(비회원사)
[환급] 정규무역 실무 과정	6월, 11월	12일(36h)	18:40~21:40	38만원	48만원
[환급] 신입사원 무역실무	1~12월(짝수월)	4일(24h)	10:00~17:00	38만원	49만원
[환급] 무역실무 생초보를 위한 핵심기초 무역실무	1~11월(홀수월)	3일(18h)	10:00~17:00	34만원	42만원
[환급] 초스피드 무역스타트업	3월, 6월, 10월	1일(8h)	09:00~18:00	19만원	23만원
[환급] 수입실무와 해외소싱 기법	2월, 5월, 8월	2일(14h)	10:00~18:00	24만원	30만원
수출입 물류비절감 핵심 실무	2월, 10월	1일(6h)	10:00~17:00	23만원	28만원
무역실무 원데이클래스	4월, 8월	1일(6h)	10:00~17:00	23만원	28만원
기초 영문 Biz 메일 및 무역서식 작성	2월, 6월, 9월, 11월	2일(12h)	10:00~17:00	38만원	47만원
글로벌 소싱전략 및 공급사 관리 실무	2월, 4월, 6월, 8월, 10월	2일(12h)	10:00~18:00	38만원	47만원
글로벌 무역계약 및 대금결제 마스터	2월, 5월, 11월	2일(12h)	10:00~17:00	38만원	47만원
사례로 배우는 국제계약리스크 분석 및 클레임 관리 실무	3월, 5월, 9월	2일(12h)	10:00~17:00	38만원	47만원

◎ 무역실무(부문별 심화과정)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일(시수)	교육시간	수강료(회원사)	수강료(비회원사)
[환급] 수출입시의 각종 리스크 관리 과정	3월, 6월, 9월	3일(19h)	10:00~17:00	34만원	42만원
관세 실무 및 환급 심화과정	3월, 7월, 9월	2일(12h)	10:00~17:00	38만원	47만원
클린 NEGO를 위한 신용장 해석과 NEGO 서류 작성 실무	4월, 7월, 10월	2일(12h)	10:00~17:00	38만원	47만원

◎ 무역마케팅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일(시수)	교육시간	수강료(회원사)	수강료(비회원사)
[환급]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4월, 7월, 10월	3일(21h)	10:00~18:00	37만원	45만원
[환급] 바이어를 사로잡는 해외·전시마케팅	2월, 6월, 10월	2일(12h)	10:00~17:00	26만원	30만원
구글 온라인마케팅 과정	4월, 10월	2일(12h)	10:00~17:00	38만원	47만원
아마존 글로벌셀러 양성 과정	3월, 11월	3일(18h)	10:00~17:00	45만원	56만원
쇼피 글로벌 플랫폼 활용 과정	5월, 10월	2일(12h)	10:00~17:00	38만원	47만원
쇼피파이 글로벌 브랜딩 전략 과정	4월, 10월	2일(12h)	10:00~17:00	38만원	47만원
식품 수출입 길라잡이	4월, 9월, 11월	3일(18h)	10:00~17:00	45만원	56만원
화장품 수출입 길라잡이	3월, 9월	3일(18h)	10:00~17:00	45만원	56만원
의류섬유 수출입 길라잡이	5월, 7월	2일(12h)	10:00~17:00	38만원	47만원
라자다 마케팅 과정	5월, 9월	2일(12h)	10:00~17:00	38만원	47만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는 해외 · 전시마케팅 전략	4월, 8월, 11월	2일(12h)	10:00~17:00	38만원	47만원
건강기능식품 수출입 길라잡이	3월, 10월	1일(6h)	10:00~17:00	23만원	28만원
식품 수출 TOP3 국가	4월, 9월	1일(6h)	10:00~17:00	23만원	28만원
전자상거래 수출실무 첫걸음	3월, 9월	1일(6h)	10:00~17:00	23만원	28만원

◎ 외환금융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일(시수)	교육시간	수강료(회원사)	수강료(비회원사)
손에 잡히는 환리스크 기초	2월, 5월, 9월, 11월	1일(7h)	09:00~17:00	25만원	31만원
손에 잡히는 환리스크 중급	3월, 10월	2일(12h)	09:00~17:00	38만원	47만원

◎ 취업연계과정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일(시수)	교육시간	수강료
무역마스터 과정(43기)	2023년 3월~6월	4개월(500h)	월~금 9:30~17:00	200만원
무역마스터 과정(44기)	2023년 7월~10월	4개월(500h)	월~금 9:30~17:00	200만원
Global e-Commerce 인재양성 과정(2기)	2023년 9~12월	2.5개월(144h)	월수금 9:00~13:00	강남구 주민 10만원 /타지역 주민 15만원 (10만원은 수료시 100% 환급)
디지털 트레이드 엑스퍼트 과정(2기)	2023년 11월~2024년 2월	3.5개월(312h)	월수금 10:00~17:00	10만원 (수료시 100% 환급)
KITA 디지털 마스터 과정(3기)	2023년 8월~2024년 2월	7개월(1,000h)	월~금 10:00~18:00	무료
SMART Cloud IT마스터(44기)	2023년 3월~12월	9개월(1,200h)	월~금 9:00~17:00	160만원
국내취업스킬UP! 프로그램	미정	1일	10:00~17:00	무료

◎ CEO 과정

과정명	연간일정	모집인원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강료
글로벌물류 최고 경영자 과정(GLMP)	36기 : 2023년 3월~6월	40명	3.5개월	(월) 19:20~20:50 (수) 07:20~08:50	800만원
	37기 : 2023년 9월~12월	40명	3.5개월	(월) 19:20~20:50 (수) 07:20~08:50	800만원

수출 효자에서 불효자로… 반도체는 억울하다

"글로벌 재고 누적에 수요 줄고 가격도 하락한 탓인데…"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을 두고 반도체에 '죄'를 묻는 시선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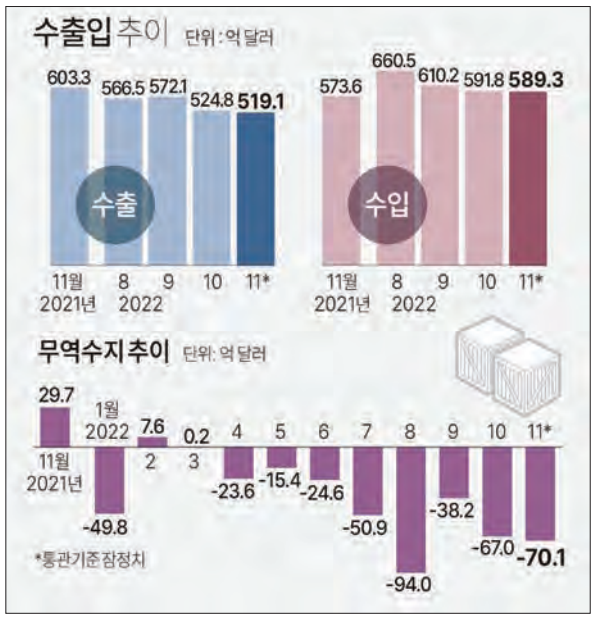
하지만 반도체는 억울하다. 지금 성적이 안 좋은 것은 과거 지나치게 잘 나갔던 것에 대한 반작용(글로벌 재고 확대)과 반도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시장 상황(글로벌 수요 감소) 탓인데,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다. 수십 년 동안 '수출 한국'에 큰 효도를 해왔는데 이제 갑자기 '불효자'라는 낙인을 찍는 시선에 대한 불편함과 서운함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월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자료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519억1400만 달러로 작년 동월(603억3000만 달러) 대비 14.0%나 감소했다. 지난 10월에도 수출이 줄었으니(-5.7%), 내리막길에서 가속도가 붙은 셈이다. 많은 언론들이 이런 사태의 원인으로 반도체를 지목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반도체 수출은 11월에 84억5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8%나 급감했다. 지난 10월에도 전년 대비 17.4% 감소했으니 두 달 연달아 '성적'이 떨어진 데다, 수출 감소 폭마저 연속으로 전체 수출 감소보다 큰 폭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기는 하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24~25% 가량이었으니, 반도체의 성적이 부진하면 한국 수출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도체 중에서도 그동안 대장 노릇을 하던 메모리 반도체가 특히 부진했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보다 49.7%나 감소하면서 시스템 반도체(42억5000만 달러)보다도 적은 38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세트(완제품) 수요가 부진하면서 부품 수요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늘고 가격도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수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램, 낸드플래시 등의 글로벌 수요 약세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 것도 금액기준 수출 부진의 원인 중 하나다. D램 고정가는 올해 초 3.41달러에서 10~11월 2.21달러까지 하락한 상태다. D램 고정가는 올해 초 3.41달러에서 10~11월 2.21달러까지 하락한 상태다.



【그래픽=연합뉴스】

산업부도 반도체 잘못이 아니라고 변호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IT 전방수요 약세와 재고 누적에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이고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 축소 계획과 공급량 조절 등에 따라 내년 하반기 이후 차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올해 무역의 날에 삼성전자는 '1200억불탑'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금자탑의 대부분은 반도체로 구성돼 있다. 2등인 '300억불탑'도 반도체 기업인 에스케이하이닉스다. 오늘 무역의 날, 반도체의 억울한 죄를 사면해야 하는 이유다. 김영채 기자

효자가 된 자동차 · 석유제품

수출이 10월, 11월 두 달 연속 감소한 가운데, 수출이 그나마 더 큰 폭의 감소를 보이지 않은 것은 자동차와 석유제품 덕분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0% 감소한 519억1000만 달러, 수입은 2.7% 늘어난 589억3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0억1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31.0% 증가)와 석유제품(26.0% 증가)이 수출을 이끌었다. 특히 54억 달러어치를 수출한 자동차 부문은 월간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부품(0.9%)과 이차전지(0.5%) 역시 선방했다.

반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주력인 반도체(-29.8%)를 비롯해 바이오헬스(-27.3%), 석유화학(-26.5%), 가전(-25.0%), 섬유(-20.0%), 무선통신(-18.7%), 디스플레이(-15.6%), 철강(-10.6%)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선박(-68.2%), 컴퓨터(-50.1%) 수출도 대폭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8.0%), 중동(4.5%)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25.5%), 중남미(-19.1%), 일본(-17.8%), 동남아시아국가연합(-13.9%)은 감소했다. 무엇보다 최대 시장인 대중국 수출이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여섯 달 연속 감소세다. 김영채 기자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 역대 최대규모로 열리다

36개국 211개사 바이어와 국내 750개 기업 1대1 수출 상담

#. 휴대용 공기청정 살균기를 수출하는 K사는 2021년 10월 회사를 설립한 신생기업이지만 창업하자마자 수출에 성공했다. 작년 12월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서 필리핀 바이어와 화상상담을 하고 2022년 3월까지 제품 스펙과 디자인에 합의한 후 내장형 배터리 모델, 패킹 디자인, 영문 매뉴얼 등 바이어의 요청사항을 수용한 맞춤형 제품을 3만2000달러 수출했다. 이후 2차례 추가 오더를 받아 현재까지 총 16만 달러를 수출했다.

최근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풀리며 대면 비즈니스가 활발히 재개된 가운데, 이처럼 바이어를 만나 수출을 진행할 기회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2022 KITA 해외마케팅종합대전(2022 Korea Grand Sourcing Fair)'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글로벌 바이어 36개국 211개사와 국내 수출기업 750개사가 참가하는 행사로 열렸다.

주력 수출시장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시장에서 온 바이어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중동, 남미, 유럽 등 향후 우리 수출의 중요한 전략시장 유통 바이어 약 50여 개사도 직접 방한해 소비재, 기계, 선박, 에너지 솔루션 및 친환경 프리미엄 소비재 등의 제품 소싱에 나섰다.

세계 최대 건강 및 화장품 뷰티 체인인 홍콩의 왓슨스, 아세안 시장 전역에 체인을 운영 중인 태국 대형마트 빅씨(Big C), 베트남 3대 도소매 유통기업 사이공 쿱(Saigon Co-op) 등 동남아 지역 바이어들은 K-뷰티, K-푸드 등 한국의 프리미엄 소비재의 소싱을 위해 방한했다.

우리 기업 전략시장으로 꼽히는 중동에서는 중동 전역에 걸쳐 홈퍼니싱 체인을 운영하는 홈센터(Homecentre), 중동에 본사를 두고 인도네시아에서 215개 수퍼마켓 체인을 운영하는 루루그룹 리테일 등이 행사장을 찾았다.

루루그룹 리테일의 푸트리 이사는 "대형마트 하이퍼마켓에 공급할 한국산 식품 · 화장품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일정을 비우고 행사에 참가한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재 기업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 엠파이어원그룹(Empire One Group), 기계 · 선박 전문 기업 아리스 마린(Aries Marine)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 제품을 찾는 기업이 다양하게 참가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참가기업들에게 해외진출 및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주한외교사절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한외교관에게 직접 듣는 무역투자 세미나 및 컨설팅'을 비롯해 2023년 주요 전략시장 · 품목에 대한 해외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해외마케팅 전략 인사이트 세미나', '공급망 다변화 온라인 상담회', 수출기업 금융 지원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사업 컨설팅 등이 이뤄졌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전면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수출상담회 지역과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업종과 품목, 경쟁력 있는 주요 전략시장을 중점 공략해 당면한 수출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채 기자

11월 2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2 KITA 해외마케팅종합대전(2022 Korea Grand Sourcing Fair)'이 열린 가운데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오른쪽)이 상담회에 참가한 한 바이어(왼쪽)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2022 디지털통상 국제 컨퍼런스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Digital Trade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세계 대격변의 시대, 기회와 도전은?

2022 디지털통상 국제 컨퍼런스 참가 신청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WTO, OECD, 국내 · 외 유수 대학, 연구소, 법무법인, 디지털 기업의 전문가를 온 · 오프라인으로 초청하여 국내 유일의 디지털통상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기업인, 전문가, 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는 이번 컨퍼런스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행사개요

- 일 시 : **2022년 12월 12일(월) 14:00–18:00**
- 장 소 :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 202~203호
- 주 제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Digital Trade
- 참석대상 : 참석대상 기업, 전문가, 학생, 일반인 누구나(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참 가 비 : 무료(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동시통역 제공

14:00~14:40	Opening Session	
14:00~14:10('10)	개회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14:10~14:15('5)	환영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14:15~14:20('5)	축사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4:20~14:40('20)	기조연설	Anabel Gonzales WTO 사무차장(화상)
14:40~15:40	Session Ⅰ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국제규범의 형성	
14:40~14:55('15)	발제	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 대표
14:55~15:40('45)	패널토론 · Q&A	좌장 :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 대표 Karsten Steinfatt WTO 사무국 선임고문 Shin-yi Peng 대만 국립칭화대 교수(화상) 이주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15:40~16:00('20)	Coffee Break	
16:00~17:00	Session Ⅱ 글로벌 디지털협정 동향 및 전망	
16:00~16:15('15)	발제	Karsten Steinfatt WTO 사무국 선임고문
16:15~17:00('45)	패널토론 · Q&A	좌장 :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 Karsten Steinfatt WTO 사무국 선임고문 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 대표 Javier Lopez Gonzales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화상)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김두식 법무법인세종 변호사
17:00~18:00	Session Ⅲ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와 디지털통상 협정	
17:00~17:15('15)	발제	곽주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7:15~18:00('45)	패널토론 · Q&A	좌장 : 박현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이재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협력본부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종일 쿠팡 전무 오지원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디렉터

※세부 일정과 연사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사전등록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Tel 02-6478-1031~2 E-mail choidk46@chacompany.co.kr

방산 수출 대국, 꿈은 이루어진다… "세계 4강 목표"

외신들 "북한에 시달리다 보니 자연스레 방위산업 강국…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

"북한에 시달리다보니 한국은 자연스레 방위산업 강국이 됐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했다." "방위산업 수출 세계 4강을 꿈꾼다."

한국의 방산 역량을 분석하는 이런 내용의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매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 한국이 최근 세계 무기시장에서 잇따라 계약 성과를 올리며 '세계 4강'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하기까지 산업을 성장시킨 배경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한국 방산 수출액은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규모였다가 올해 170억 달러(약 22조5800억 원)로 급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7~2021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8%로 8위를 기록했다.

미국 〈CNN〉 방송은 최근 "탱크가 속도를 내고, 곡사포가 터지고, 뼛속까지 흔들고 : 이게 한국이 무기를 파는 법"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온라인판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방송은 먼저 지난 9월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한 경기도 포천의 한 훈련장에서 국내외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기동화력시범 행사 분위기를 소개했다. K9 자주포가 목표물을 타격하자 섬광과 진동이 덮쳐왔으며, 곧바로 K2 전차가 격과 함께 굉음을 내며 돌진하기 시작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20여 개국 군 관계자를 포함한 2000명의 군중에게 선보인 이 전시회는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4위 수출국에 올라서도록 무기를 더 많이 팔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쉽지 않은 목표라면서도, 2012~2016년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 1%에 불과했던 한국이 2017~2021년에는 2.8%까지 올라섰다며 "세계 무기수출 상위 25개국 중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미국이 한국 업체로부터 포탄 10만 발을 구입할 계획이며, 최근 한화디펜스와 현대로템이 각각 K239 다연장로켓 천무와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하는 등 한국의 무기 판매가 실제로 급증 추세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CNN〉은 한국의 방산 역량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시달린 결과라면서,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용이한 항구도시 창원에 방산단지가 발전한 이유라고도 분석했다. 또 거대 로봇부터 나노 공정까지 자동화가 이뤄진 한화디펜스 공장 내부를 묘사하는가 하면, 혹한의 겨울과 고온다습한 여름까지 다양한 계절을 지닌 한국이 무기개발과 시험에 적합하다는 전문가 코멘트도 소개했다.

〈로이터 통신〉도 윤 대통령이 창원 방문에 앞서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을 놓고 "방위산업의 주력을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기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이터〉는 한국이 성사시킨 폴란드 무기수출 규모가 15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 방위산업을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로 육성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목표"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 · 사이버, 우주, 무인 · 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 체인저'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무기를 구매한 국가가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포스트 세일즈', 즉 판매 후 관리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등의 지원책도 포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 산업화' 전략과 5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계 · 항공 ·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에 연 500억 원을 투입해 인력 3300명을 양성함으로써 방산 생태계를 가꾸겠다는 계획이다. 또 탄소복합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민군 기술협력에도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 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보근 기자

【그래픽=연합뉴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가 지난 8월 26일 폴란드 군비청과 K2 흑표 전차 및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 6000만 달러(약 7조6780억 원)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사진은 폴란드 모롱크에 위치한 기계화부대에서 열린 계약체결 행사의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K-방산'에 3년간 1조 원 이상 금융 지원

방사청, 자금공급 대폭 늘리고 중소기업 · 협력사까지 확대

정부가 'K-방산' 수출 증가 기세를 이어가고자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 원 이상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에는 방산 수출대금을 인프라 투자 수익권과 연계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12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1200억 원 규모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방사청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통합 예치 · 관리하는 전담은행(하나은행)이 모(母)펀드 600억 원을 출자하고 모펀드가 같은 액수의 민간 투자자금을 끌어들여 총 1200억 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1차년도 400억 원은 이미 조성을 완료했다.

국방 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수합병 · 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함께 검토한다.

정책금융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사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방산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협약보증(200억 원)을 포함해 우대(보증료, 보증비율) 대출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 무역보험공사에 방산수출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점지원 사업' 대상에 방산 분야가 포함되도록 협의에 나선다.

방사청은 이러한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 협력사에 3년간 약 2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행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수출품에 대해 품목당 연 2회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금융회사가 방산기업에 매긴 금리의 최대 87.5%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금융지원제도로, 현재는 1품목에 연 1회만 지원된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6000억~7000억 원이 공급된다.

이에 향후 3년간 자금공급 규모는 최소 1조 원으로, 이차보전 융자사업 위주의 현재 대비 50% 이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대출 지원 외에도 수입국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수출입은행과 방산 수입국 사이에 기본여신약정(FA) 제도를 도입하고, 무기수입국의 SOC · 자원 개발권과 수출대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FA 제도는 수출 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사전에 금융지원 한도 · 절차 등을 확정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방산 분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자금력이 취약한 개도국의 SOC · 자원 개발권리와 연계해 수출대금을 SOC · 자원 수익으로부터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방산 수출과 SOC · 자원 개발 연계는 구상 단계로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했다.

이밖에 방산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방산 육성 관련 범정부 · 기관 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키로 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기업에 보증 · 공제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됐다.

방산 분야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반하는 사업으로 평가해 투자에 소극적인 금융기관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서울=연합뉴스

제59회 **무역의 날**을 축하합니다

ecplaza

글로벌 B2BC 마켓 플레이스

해외마케팅 No.1 성공파트너

이씨플라자가 함께합니다

- 중기부, 산업부 수출바우처
  2022 우수 수행기관 선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aT, 지자체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 **데이터 바우처 공급기관 선정**

GLOBAL TRADE PLATFORM

ecplaza.net
Global Digital Trade Platform 이씨플라자(주)

02-6952-4577 export10@ecplaza.net 서울 강동구 성내로6길 50, 1F

www.ecplaza.net | www.ecplaza.co.kr | design.ecplaza.net

Global Market
한국무역신문 제748호
www.weeklytrade.co.kr

태국, 온라인 비자 연장 서비스 출시

한국무역협회 호치민 지부는 "최근 태국 이민국이 온라인 비자 연장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웹사이트(Thaiextension.vfsevisa.com)를 통한 요금 지불이 가능하며 그간 1시간 소요되던 작업을 3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태국 당국에 따르면 매년 20만 명 이상의 주재원이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가운데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서비스를 출시했다. 서비스는 방콕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주재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하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신청자는 이전처럼 태국 방콕의 차엥와타나 거리에 위치한 이민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용석 기자

kotra
세계로 가는 창
무역 · 투자 종합 상담
☎1600-7119
news.kotra.or.kr

2022년 12월 5일

다양한 종교와 축제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통신기술 및 운송망이 발전하면서 축제 관련 산업의 규모와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인도에서 축제는 국민 경제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축제 기간에 소비재 연간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한다. 인도의 대표적 축제인 디왈리, 람잔, 크리스마스 기간 중 각자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옷, 장식품, 선물, 음식 등을 대량으로 구매한다. 특히 10월 18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열리는 디왈리, '빛의 축제' 기간에는 쇼핑몰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다. 축제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활동이 인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축제의 다양한 역할 =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이 크다 보니 인도는 축제, 사원, 신도 혹은 신성한 항해의 땅으로 불리기도 한다. 인도 국회에 따르면 인도는 연중 51개의 축제를 개최하며 이 중 17개는 국가적 차원에서, 나머지 34개는 지역적 차원에서 행해진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열리는 추수 감사 축제가 있다.

2011년 시행된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인도 전역에는 약 210만 개의 사원이 있으며 사원들은 신도들의 헌금과 기부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 부를 축적한 사원은 여러 축제 시기에 균형적으로 지출을 이어가며 이를 통해 인도 경제의 활기를 지속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지역 사회는 재능, 예술, 공예, 음식, 춤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 양식을 향유하며 축제를 즐긴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는 하나로 통합되며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체가 파생돼 가구의 생계가 유지된다. 또한 축제마다 특정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한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통신기술 및 운송망이 발전하면서 축제 관련 산업의 규모와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축제가 갖는 경제적 영향력 = 인도의 모든 축제는 조직화되지 않은 소규모 경제단위를 성장시키고 가계의 저숙련 노동인력과 중소기업에게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한다. 인도상공회의소연합의 추정에 따르면 힌두교 신 가네샤를 경축하기 위해 뭄바이에서 열리는 '가네샤 짜뚜르티' 축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26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특히 하이데라바드주만 해도 9일간의 이 축제를 통해 약 6억 달러의 매출이 생성되며 연중 2만 개 이상의 가구에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상 제조, 운송, 이벤트 관리, 깃발 및 의류 제조 등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다.

'두르가 푸자' 축제 또한 인도에서 53억 달러 규모의 부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부 벵골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배출하며 축제가 창출하는 일자리의 가치는 서부 벵골지역 연간 예산의 3분의 1과 맞먹는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수천 개 이상의 가정에서 두르가 푸자 축제에 사용될 동상을 만든다.

한편, 힌두교에서 부와 풍요의 여신인 락슈미를 기념해 매년 10~11월에 닷새간 열리는 '디왈리' 때는 전자제품, 자동차, 의류 등 소비재 매출이 급상승한다. 인도에서 의류제품 판매의 52%가 디왈리 축제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소비자들 또한 이때는 거리낌 없이 돈을 쓴다. 타밀나두 폭죽제조협회에 따르면 타밀나두 지역의 폭죽 산업은 이 축제를 통해 13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수천 개 가구에 일자리를 제공한다.

'우타라야난'에는 연 날리기 축제가 개최되며 구자라트주, 우타르프라데시주와 델리에서 약 6700만 달러 규모의 연관 사업이 창출된다. 전통적으로 구자라트주에서는 6000개 이상의 가구가 연 제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축제에 대한 기업 전망 = 인도 언론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소비가 절정에 달하는 하반기 축제 시즌은 '락샤 반단'부터 시작해 '크리슈나 잠아쉬타미'와 '가네샤 짜뚜르티'가 뒤를 잇고 '두세라', '두르가 푸자', '디왈리'를 거쳐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진다.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8~12월 축제기간 전자제품 및 각종 선물 수요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9년보다 15~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바디샵의 남아시아 지역 부사장은 "고객들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점차 늘어나면서 하반기 매출이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5~2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DLF리테일 관계자는 "대규모 가족 모임,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없는 결혼식 등이 상당수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타타그룹 산하 가전제품 메이커인 볼타스는 "코로나19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2019년 축제 시즌 대비 가전제품 판매가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화장품 및 패션 소매업체 나이카는 다가오는 축제시즌 동안 화장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DTDC익스프레스 관계자는 "물류 유통기업들이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했으며 본격적인 하반기 축제 기간을 앞두고 대량의 재고가 움직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기업들의 세일 경쟁 = 2021년 축제 시즌 동안 인도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총상품가치(GMV) 기준 9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백지 시위 11월 29일 홍콩 홍콩대에서 중국 본토 유학생들이 중국 우루무치 화재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백지를 들고 있다. 11월 24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의 한 고층 아파트에 난 화재로 10명이 숨졌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 탓에 화재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국 주요 도시를 비롯해 대만, 홍콩 등지에서도 '제로 코로나' 반대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홍콩=EPA/연합뉴스】

인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아마존과 플립카트인데, 매년 디왈리 축제 동안 두 회사는 가장 큰 세일 행사를 연다. 아마존은 '그레이트 인디언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플립카트는 '빅빌리언 데이즈'라는 세일 행사를 각각 진행한다. 인도의 인터넷 컨설팅 기업 레드시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축제 동안 플립카트는 시장 점유율 62%로 GMV의 선두 주자로 부상했다.

●우리 기업 시사점 = 인도 중부지역협의회의 아르빈드 마야람 회장은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축제 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 판매는 인도 중소기업들에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축제 붐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예를 들어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대기업은 하반기 축제 기간에 대비해 이미 11만 명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도의 축제 기간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 물건을 구매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자 기업들에게는 신제품을 통해 판매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다양한 세일 전략을 통해 기존의 재고를 효과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시기다. 인도 소비자들 역시 오랫동안 구매를 미루던 제품을 축제 기간에 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차량과 같이 큰 금액의 물품들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기도 하며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많이 판매된다.

KOTRA 무역관은 "인도는 선물 문화가 발달해 축제 기간에 개인과 기업들은 펜, 양초 세트, 스낵, 소형 전자기기 등을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한다"면서 "인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 같은 인도의 문화적 소비 특성을 파악해 마케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뭄바이 무역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서명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서명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은 디지털 혁신이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동 인식 하에 양자간 디지털 분야의 협력 촉진을 약속하는 정치적 양해각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양측의 공동 선언문에 따르면 주요 협력 분야로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양자 및 고성능 컴퓨터,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플랫폼, 데이터 및 기술 교류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한국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각각 서명했다. 이용석 기자

‘주당’ 줄어드는 일본에 등장한 ‘술 안 마시는 술집’

건강 챙기는 등 음주문화 변화
논알콜 음료 시장 6년 연속 성장

일본의 술자리에서는 “일단 맥주 한 잔!”을 외치는 것이 보통일 정도로 일본은 맥주의 대량 소비국이다. 하지만 현지 맥주업계에게 현실은 어렵기만 한데, 술을 마시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관련 업계는 다양한 마케팅과 맥주 제품을 통해 주류 트렌드를 정립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주당(?)들이 사랑하는 논알코올 맥주 =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건강 지향과 기성세대와 다른 소비성향을 가진 젊은 세대가 등장하면서 일본에서도 단연 논알코올 맥주가 사랑받고 있다. 일본의 산토리홀딩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논알콜 음료 시장의 판매량은 2015년부터 6년 연속 증가했다. 또한 논알코올 음료를 마셔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56.4%가 ‘있다’고 응답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75.1%는 ‘집에서 논알콜 음료를 마셔본 경험이 있다’고 해 달라진 주류문화가 논알코올 음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논알코올 맥주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논알코올 와인, 츄하이 등 논알코올 즉석음료(RTD · Ready To Drink) 시장이다. RTD는 보통 ‘마개를 열어 바로 마실 수 있는 상품’을 가리키지만 통상 일본에서는 캔츄하이, 캔칵테일, 캔하이볼, 캔하이볼, 캔맥주, 와인, 증류수 등을 뜻한다.

논알코올 맥주를 제외한 나머지 RTD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논알코올 레몬사와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코카콜라의 레몬사와 브랜드 ‘레몬도’도 논알코올 레몬사와인 ‘요와나이레몬도’(취하지 않는 레몬도)를 올해 2월 출시해 인기를 이어 나가고 있다. 레몬도는 알코올 함량을 3%부터 9%까지 2% 단위로 차별화해 소비자의 세심한 취향을 공략하고 있다. 알콜 함량뿐만 아니라 과즙인 레몬의 함량이 각기 다른 것도 인기 비결이다.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술집’의 등장 = 스마도리라는 회사는 일본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시부야에 ‘스미도리-바 시부야’를 지난 6월 말 개점했다.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마실 수 없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바’가 모토다. 젊은 세대와 여성 고객을 고려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얼굴이 붉어져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조도를 설정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못하는) 사람에게 바를 방문하는 비일상적인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추구한다. 음료 메뉴 또한 다양한 색상과 재료를 혼합해 100여 종 이상을 고객의 체질과 취향에 맞게 제공한다. 음료 메뉴 대부분은 고객 주문 시 알코올 함량을 0%, 0.5%, 3% 중 선택할 수 있다.

스마도리는 아사히맥주와 광고회사 덴츠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스마도리는 ‘스마트 드링킹(Smart Drinking)’의 일본식 약어다. 기성세대의 알코올 문화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마시는 문화를 추구한다.

이 회사는 시부야구 외곽단체인 사단법인 시부야미래디자인과 공동으로 ‘시부야 스마트 드링킹 프로젝트’를 6월 말 발족했다.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 드링킹이라는 마시는 방법의 다양성을 통해 시부야에 모이는 다양한 개성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시부야 지역은 코로나19 이후 노상 음주가 증가하면서 주취자의 반사회적 행동 등 음주로 인한 트러블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 드링킹을 통한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한다면 안전, 안심 그리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부야구에 등장한 ‘스마도리 바’는 이런 새로운 음주문화 발신의 기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무알콜 음료의 인기와 스마도리의 배경 = 첫 번째는 음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와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건강 지향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 논알콜 맥주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2년 6월과 2007년 9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면서다.

적절한 음주는 일본 사회의 요청이기도 하다. 올해 1월 기린맥주, 아사히맥주, 산토리맥주, 삿포로맥주 등 4곳이 사업방침 설명회를 개최해 ‘맥주 재성장’을 내걸었다. 재미있는 점은 주류회사들이 입을 모아 적절한 음주에 대해 역설했다는 점이다. 또한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관점에서 음주사고나 건강장애 등 알코올이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면서 일본 주류업계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도리 역시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던, 즉 고객이 아니었던 계층을 새롭게 고객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음주 습관이 있는 사람의 연대별 비율은 2009년과 2019년을 비교할 때 고령자는 증가하는 반면, 젊은 층은 감소하고 있다. 즉 2010년까지의 음주 인구가 그대로 고령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적당히 즐긴다’, ‘반드시 마시는 것은 아니다’, ‘굳이 마시지 않는다’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즉, 해가 갈수록 음주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 확보가 절실한 맥주회사들은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논알코올, 저알코올의 다양한 제품과 스마도리라는 새로운 음주문화 확산에 애 쓰는 것이다.

논알코올 음료의 채산성이 높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논알코올 맥주는 주세가 없는 ‘청량음료수’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술의 한 종류로 인식하기 때문에 일반 청량음료보다 가격대는 높다. 실제로 2009년 논알코올 맥주를 처음 선보인 기린맥주의 2009년 12월기 연결 경상이익은 예상을 뛰어넘어 전기 대비 46% 증가한 1500억 엔 수준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주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채산이 좋은 논알코올 맥주 ‘프리’의 히트가 자리 잡고 있다. 맥주회사 입장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이익 추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논알코올 음료 시장인 것이다.

●우리 기업 시사점 = 음주문화의 변화 그리고 젊은 세대의 건강 지향 등 전 세계 주류회사들 앞에 놓인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일본 맥주회사의 움직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논알코올 및 저알코올 음료의 품질에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이 발휘되고 있다는 점이다.

10여 년 전 논알코올 맥주가 처음 나왔을 때 술을 좋아하던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맛이 맥주와 다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운전을 해야 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지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맥주회사들은 심혈을 기울여 논알코올, 저알코올 음료를 출시하고 있다.

스마도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아사히맥주는 알코올 함량 1% 미만의 미알콜 음료 ‘비아리’를 2021년 9월 선보였다. 맥주를 만든 뒤 알코올을 제거하는 새로운 공법을 사용해 기존 맥주처럼 밀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사히맥주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공법을 개발하기 위해 3년 이상 걸렸으며 시험 양조 또한 100여 회 이상 거쳤다. 즉 현재 출시되고 있는 논알코올, 저알코올 음료는 더 이상 음주운전이나 특정 상황을 위한 대체재가 아니라 맛있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논알코올 레몬사와 등 과일즙이 함유된 논알코올 음료의 경우 기존에는 달다는 인식이 있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출시되는 논알코올 레몬사와 등은 단맛은 낮추고 과즙 함량을 높여 청량음료와 차별화하는 동시에 고객들에게 맛있다는 느낌을 준다.

일본 맥주회사들의 노력으로 과연 그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롭게 고객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최근의 성장세를 보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막걸리, 소주 등 한류에 힘입어 성장세인 한국 주류도 이런 트렌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고야에서 한국 식품 전문점을 운영하는 O사 대표는 KOTRA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확실히 젊은 일본 사람들은 소주를 그대로 마시기보다 탄산수, 과일 음료와 섞어 마시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KOTRA 무역관은 “한국의 참이슬 소주도 탄산이 들어간 ‘참이슬 톡톡’으로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다”면서 “한국 주류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인기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끊임없는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고야 무역관

미국에 지다니 11월 29일 이란 테헤란의 밀라드 타워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B조 미국과의 경기를 관람하던 이란 팬들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란은 이날 미국에 0-1로 패배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테헤란=로이터/연합뉴스】

미, “EU도 보조금 제도 시행해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보조금과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유럽연합(EU)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IRA의 보조금 제도는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EU도 친환경 전환 촉진을 위해 IRA와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EU도 상업용 전기차, 수소에너지, 풍력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등 3가지 생산 분야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석 기자

늘어나는 수요… 호주 식품 바이어가 찾는 K-푸드는?

라면 냉동만두 등 간편식 인기
트렌디한 포장재도 매력 요인

IBIS월드에 따르면 호주의 일반 식료품 도매시장 규모는 2022~23년 회계연도 기준 227억 호주달러로 이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원금 제공 등을 통해 외식 인구가 다시 늘어나면서 식품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한국 식료품은 현지 교포 기업이 주로 수입했지만 최근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시안계 바이어를 통한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현지 아시안 식품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간편식으로는 라면, 떡볶이, 만두 등이 있다. 대형 슈퍼마켓의 아시안 코너에는 다수의 라면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으며 한식 레스토랑에서는 떡볶이와 만두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대형 슈퍼마켓 체인 울워스, 콜스 등은 지난 수년간 아시안 식품 코너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매장의 한 개 복도를 전부 차지할 정도로 취급 비중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식품 수입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호주로 수입되는 주요 한국 식품은 라면이다. HS코드 190230 기준 호주의 면류 수입액은 2021년 1억5954만 달러였다. 상위 3개 수입국은 인도네시아(15.6%), 태국(15.5%), 한국(15%)이며 앞선 2개국에 비해 한국산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어 말레이시아, 중국 순으로 수입액이 많다. 상위 5개국 가운데 전년 대비 수입액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 말레이시아다. 한국산은 2021년 기준 2407만 달러로 지난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라면은 제조국이 여럿이고 기존 진출 기업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HS코드 190230으로 본 호주의 곡물 가공품 수입액은 2021년 기준 4668만 달러다. 이 중 한국의 떡 및 떡볶이 수입량은 174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2% 증가했다. 떡 및 떡볶이 제품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한국식 떡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있어 떡볶이 소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직접 요리할 수도 있지만 떡볶이를 잘 모르는 현지인들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 패키지 제품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호주의 만두(HS코드 190230) 수입액은 3395만 달러였다. 파스타의 한 종류이자 만두와 유사한 라비올리 제품 수입국인 이탈리아가 1위였고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미국 순이다. 한국은 6위 수입국으로 금액은 44만 달러이며 2020년 두 배 이상 증가한 이후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호주에서 만두와 덤플링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현지에서 직접 만두를 생산하는 식품업체가 일부 있으며 고기 성분이 함유된 만두는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육류를 넣은 만두와 덤플링을 제조해 판매한다. 한국에서는 김치, 야채, 두부로 만든 만두를 수입한다.

〈아시안 식품 바이어 인터뷰〉

KOTRA 멜버른 무역관은 한국 식품에 관심을 갖고 '2022 서울 식품산업대전'에서 한국 기업과 상담을 진행한 호아오스트레일리아의 구매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회사를 소개해달라.

"우리 회사는 호주 멜버른에 있으며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식품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현재 쌀, 과일 등의 식자재를 수입해 아시안 레스토랑에 공급하고 완제품은 현지 아시안 소매상 등 식료품 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약 40년간의 영업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각 주에도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시드니에 소재한 애마이슨의 자매회사다. 호아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품을 수입해 두 회사가 제품을 분배해 유통 중이다. 호주 내 아시안 식품 유통업체 중 상위급 정도의 구매력이 있으며 멜버른에 100팔레트 상당의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 한국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현재 한국 식품을 수입하지는 않으나 호주에서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식품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상당수 고객이 기존 아시안 식품 라인업과 함께 한국 식품도 같이 납품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쟁업체들도 본격적으로 한국 식품을 들여옴에 따라 우리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 식품 수입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폐허가 된 마리우폴 11월 28일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건물들이 폐허가 된 모습이다. 【마리우폴=AFP/연합뉴스】

멜버른 무역관의 소개로 한국의 다양한 식료품 업체와 온라인 미팅을 했는데, 우리의 강점을 살리면서 기존 라인업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한국 냉동식품과 포장 떡볶이 등 조리가 간편한 제품이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여 수입을 검토 중이다. 또한 한국 식품의 경우 내용물 외에도 현재 트렌드를 반영한 세련된 포장지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취급 중인 아시안 식품은 품질,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지만 한국 기업 제품은 트렌디한 포장재가 제품을 돋보이게 해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시안 식품의 경우 대부분의 제조사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징 차별화가 강점으로 어필될 수 있다."

– 향후 식료품 수입 계획은?

"현재 멜버른 무역관의 소개로 여러 한국 기업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해상운임 상승, 운송 지연 등의 악조건 속에서 기존 라인업 유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신제품 개발 및 런칭 업무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경영진의 생각이다. 특히 멜버른에 소재한 약 500개의 아시안 식품 소매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400개가량의 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공급 중인 아시안 식품에 한국 식품도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시장 및 제품 조사를 통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새로운 한국 식품 런칭을 계획하고 있다."

– 한국 기업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호주는 다문화 국가로 수출 여부와 관련 레퍼런스가 중요하다. 해외 진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어필할 수 있는 유통 네트워크 및 구매층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장점을 살린 마케팅 포인트도 있어야 한다. 또한 식품에 영문 라벨을 필수로 부착해야 하며 제품의 원재료, 영양소, 수입업자 등에 관련된 상세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호주 초기 수출 진행 시 영문 제품 포장이 없을 경우 영문 라벨 스티커를 통해 단기 수출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영어권 국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영문이 포함된 포장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멜버른 무역관

'할인'의 힘이 인플레를 이기다… 미, 사이버먼데이 매출 역대 최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사이버먼데이'에 쇼핑객들이 역대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에 따르면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사이버먼데이인 11월 28일 미국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총 113억 달러(약 15조403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사이버먼데이보다 5.8% 증가해 역사상 하루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매출을 기록한 것이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망 차질로 사이버먼데이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반대로 재고 과잉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큰 폭의 할인을 제시해 인플레이션에 움츠러들었던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어도비 디지털인사이츠의 수석 애널리스트 비베크 판트야는 "공급과잉과 소비지출 약화라는 환경에서 소매업체들은 커다란 할인을 통해 수요를 끌어들인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면서 "덕분에 온라인 매출이 예상보다 높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포켓몬 카드와 레고를 비롯한 장난감, 에어프라이어와 같은 가전제품, 플레이스테이션, 스마트TV, 애플 에어팟, 드론, 스포츠용품 등의 매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어도비는 밝혔다.

올해는 추수감사절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로 연결되는 일명 '사이버 5'로 불리는 5일간의 쇼핑 대목 전체를 통틀어도 전년 동기보다 온라인 매출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도비는 이 기간 전체 온라인 쇼핑 금액이 351억7000만 달러(약 46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어진 덕분에 오프라인 쇼핑도 함께 부활했다. 마스터카드는 블랙프라이데이 당일 오프라인 상점 매출이 전년보다 12% 증가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합쳐 쇼핑 지출이 16%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사이버 5' 주간에 역대 최다인 총 1억9670만 명이 대면 또는 온라인 쇼핑에 나섰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9% 증가한 인원이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전망을 뒤집은 예상 밖의 결과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비 심리와 경제 전반의 건전성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블랙프라이데이인 11월 25일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쇼핑몰. 【사진=AP/연합뉴스】

봉쇄 고집하는 중국, 내년에 풀어야 할 숙제 많다

수요 둔화 · 공급망 이점 퇴색
디커플링 · '제로 코로나' 해결

국내 경기 둔화 속 부진한 외부 수요, 퇴색하는 공급망 이점, 디커플링(탈동조화) 위협이 내년 중국 경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중국 경제 당국 전문가가 지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실무 사령탑으로 통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의 류쉐옌 연구원은 최근 은행간시장교역상협회(NAFMII) 주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음하면서 생산 차질을 빚은 지난 3년간 중국이 누려왔던 이점은 글로벌 공급망의 경색이 풀리면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20년에는 의료용품의 세계적 수요에 잘 부응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자기기와 가구, 올해는 자동차 부문에서 세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잘 준비됐었으나 그다음 기회의 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전쟁과 무관한 모스크바 11월 28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마련된 굼(GUM) 아이스링크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지치고 있다. 【모스크바=신화/뉴시스】

그는 "만일 수출이 급증한다면 유럽 에너지 위기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의 에너지 문제는 아직 최악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만약 에너지 위기가 계속된다면 석유화학과 비철금속 등 우리의 에너지 집약 산업에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중국의 수출 압박을 완화할 것이고 더 많은 외화를 벌어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세계의 공장' 중국의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3% 감소했다. 중국의 월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20년 5월(-3.3%) 이후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데 따른 봉쇄 조치로 내수도 부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중국 경제 전망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지난주 투자회사 CLSA는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지역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8.9%를 담당하는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류 연구원은 내년 중국 경제의 회복은 국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긴장 같은 외부 요인으로도 방해받으리라 전망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중국에서 벗어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만일 강력한 디커플링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디서 '외부 순환'(쌍순환 전략 중 수출)에 참여할 파트너를 찾을 수 있으며, 일련의 공급망과 물류 경색에 직면할 경우 우리는 교환할 무엇을 가졌는지가 내년에 특히 해결해야 할 핵심 이슈"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학자와 정부 고문들은 당국을 향해 서로 상충하는 경제 성장 목표와 '제로 코로나' 정책 중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지난 11월 27일 공개된 베이징대 주최 중국 경제 전망 세미나 발언록에 따르면 야오양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장은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해야 하며 지방 정부는 일반인들의 감정을 더 살피고 더욱 정밀한 방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는 경제 성장과 방역 통제 둘 다를 요구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할 때만 우리 경제가 향후 몇 개월 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야오 원장은 지난해 중국 경제의 가치는 114조 위안이었으나 올해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경제발전보다 강조하면서 이미 3조 위안 이상의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추산했다. 그는 "지방 정부는 방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그 정도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지방 정부는 불가피하게 방역을 최우선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왕융 베이징대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 주임은 11월 26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현재의 방역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이폰 하청업체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벌인 폭력 시위는 제조업체들의 중국 바깥으로의 이전을 촉발할 것이며, 엄격한 방역 통제가 계속되면 또다시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책 입안자와 대중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없애야 하며, 만일 한국, 베트남, 인도 등 이웃 나라들이 재개방을 잘 해낸다면 중국의 시스템과 준비는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연합뉴스

영국 총리 "중국과 황금시대 끝… 무역 통한 개혁유도는 순진한 발상"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중국이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위협하고 있어 양국간 '황금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월 28일 보도했다.

수낵 총리는 이날 주요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중국은 의식적으로 모든 국가 권력을 지렛대 삼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나서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영국의 접근법이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양국의 '황금시대(golden era)'라는 것은 무역이 (중국의) 사회 · 정치적 개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과 함께 끝나버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이 미국의 기조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모색하던 2015년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잇따라 양국 관계가 황금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며 구애했던 데 대한 지적이다.

수낵 총리는 또 27일 자국 〈BBC〉 방송의 에드 로런스 기자가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 반대 시위를 취재하던 도중 현지 공안에 붙잡혀 수 시간 구타당한 후 풀려난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체계적인 도전을 가해오고 있다"며 "이 도전은 중국의 권위주의가 강화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수낵 총리는 재무장관 시절 양국 경제교류 확대와 중국 인권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미묘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매파'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와 비교해 대중 관계에 있어선 온건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수낵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무산된 데 이어, 최근에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영국 공공기관 내 중국산 감시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지침이 발표되는 등 수낵 내각에서도 대중 태세가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수낵 총리는 "글로벌 경제 안정성이나 기후변화 등 사안과 관련해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단순히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국가도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영국은 현상유지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웅장하기만 한 수사가 아닌 굳건한 실용주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수낵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군사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내년에도 군사적 지원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확대해 나갈 것이며, 방공 시스템도 새롭게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러시아와 중국 등 경쟁국들이 그러는 것처럼 영국도 장기적인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려 하거나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냉전시대적 주장과 접근법, 감상에 갇혀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빠르게 오르는 도쿄 물가상승률

일본 도쿄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엔화 가치 하락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40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무역협회 도쿄 지부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도쿄 지역 11월 소비자물가지수(속보치, 2020년=100 기준)가 변동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하고 103.6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6% 상승했다"면서 "이 상승률은 1989년 소비세 도입 직후의 수준을 넘어 1982년 4월(4.2%) 이후 40년 7개월 만에 역대 최고"라고 전했다.

엔저와 자원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식료품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이 6.7%, 식료품 전체로는 7%를 기록했고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을 발표한 식용유는 40.4%, 국산 치즈는 35.2%, 가공식품은 6.4%가 각각 올랐다. 외식도 6.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숙박비용은 지난 10월 시작된 일본 정부의 전국 여행 지원 사업의 영향으로 16.6% 감소했다.

에너지 관련 품목이 24.4%를 기록한 가운데 10월의 24.2%를 웃돌아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전기세가 26%, 도시가스비가 33% 올랐지만 휘발유는 가격 억제를 위한 정부 보조금 덕택에 -0.8%로 나타났다.

도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본 전국 지수에 앞서 발표되며 전국 물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본의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도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용석 기자

히말라야의 미-인도 합동훈련 미군과 인도군이 11월 29일 인도 우타라칸드주 북부에 있는 협곡인 아울리에서 연례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중국과 인도 국경을 나누는 실제 통제선(LAC)에서 불과 100㎞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아울리=AP/뉴시스】

어린이 유튜버 3대 채널 구독자 3억 명

"미키마우스보다 더 유명해요"

또래를 겨냥해 어린이가 출연하는 어린이 유튜버 채널들이 각각 구독자 1억 명을 모으는 등 엄청난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조명했다.

가장 인기 있는 어린이 유튜버 3대 채널인 '블래드와 니키(구독자 9020만 명)', '나스티아처럼(1억200만 명)', '키즈 다이애나쇼(1억400만 명)'는 가입자가 합쳐 3억 명 가까이에 이른다. 가입자 수로는 세계 개인 유튜버 가입자 1위인 '미스터 비스트(1억1400만 명)', 2위 '퓨디파이(1억1100만 명)'에 육박하는 최상위권이다.

이들 유튜버는 모두 아직 10살도 되지 않았지만,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장난감 간접광고(PPL)와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나스티아처럼' 등 유튜브 유명인을 위한 전략가로 활동 중인 에이얼 비우멀은 "갑자기 유명해진 이들은 미키마우스보다 영향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들 유튜버는 멋진 장소에서 슈퍼 히어로 의상을 입고 놀거나 엔진이 달린 장난감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한다. 부모는 보조자로 등장한다. 이들은 가입자 수가 느는 등 성공할수록 더 멋진 장난감과 호화로운 나들이옷을 입고 등장하고 몰디브 리조트 등에서 해외 촬영을 하기도 한다.

이들 콘텐츠는 '아이고(oohs)', '아(aahs)' 등 감탄사와 박수 등이 주로 나와 영어뿐 아니라 아랍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로 번역하기도 매우 쉽다는 특징이 있다.

'블래드와 니키' 형제의 어머니인 빅토리아 바슈케토프는 "어린이들이 블래드(9)와 니키(7)를 친구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난감 제조업체들이 이들 '젊은 셀럽'들이 영상 속에서 자사 제품을 가지고 놀게 하려면 7만5000달러에서 최대 30만 달러(약 4억20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모습을 담은 인형이나 이름을 딴 독점 브랜드 장난감 등도 만들어 월마트나 타깃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스웨덴, 몽골 등 전 세계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양한 영상 플랫폼이 이들의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등 할리우드도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스티아 측은 할리우드 슈퍼스타 윌 스미스의 콘텐츠 제작사인 웨스트브룩과 함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고 있으며, 넷플릭스도 이 시리즈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래드와 니키' 측은 애니메이션 시리즈 등 2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HBO맥스와 맺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다이애나' 측은 최근 나온 '퍼피 구조대'(Paw Patrol)'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홍보 영상에 나왔고 아마존 프라임과 로쿠에 영상을 제공하기도 했다.

러시아 출신인 블래드와 니키, 나스티아의 부모와 우크라이나 출신인 다이애나의 부모는 처음에는 식탁이나 주변 공원 등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등 소박하게 시작했다. 이후 구독자가 몰리면서 부모들은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멋진 장소를 찾아가고 고가의 장난감도 투입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두바이나 태국 등 화창한 날씨로 야외 촬영하기 용이한 곳으로 이사하기도 했다. 이들 3가족은 나스티아의 생일날 마이애미에서 처음 만난 후 지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면서 함께 노는 모습을 영상에 담기도 했으며, 태국과 이탈리아, 하와이, 프랑스 등지를 함께 여행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다.

최근 들어 이들은 장소 섭외와 영상 촬영, 소품 조달, 번역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기업화하고 있다. 이들 3가족은 자녀들이 조만간 청소년이 되면서 더 이상 아동 콘텐츠를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고민에 빠져있다. 이에 따라 블래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음악가 등을 꿈꾸면서 꾸준히 영상작업을 하고 있으며, 블래드의 부모는 교육 등을 위해 최근 마이애미 외곽지역에 8개의 방이 있는 저택을 1250만 달러(약 167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블래드의 아버지 세르게이 바슈케토프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만큼 아이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콘텐츠 제작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석문의 베트남 통신 275

식품 수요

달러 강세로 가격이 상승하지만 불황에서도 필수 소비재인 식품의 소비는 여전히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가성비가 높은 상품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경향을 보인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베트남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국내외 수요 약화로 인해 10월에 더딘 속도로 증가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간한 베트남 거시경제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10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해 9월 13% 증가보다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낮은 성장률은 기저효과 축소와 EU, 미국,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위축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10월의 소매 판매 및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둔화되었다. 서비스 매출은 상품 판매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서비스는 12% 증가, 소매 판매는 9.6% 증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은 9월 3.9%에서 10월 4.3%로 상승해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설정한 목표치인 4%를 약간 웃돌았다. 연료 가격이 전년 대비 6% 하락한 덕분에 운송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의 식품 가격 5%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주도했다.

달러 강세로 가격이 상승하지만 불황에서도 필수 소비재인 식품의 소비는 여전히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가성비가 높은 상품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경향을 보인다. 가격에 민감한 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장환경에서도 베트남에서 호황을 누리는 기업이 있다.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기업 샤크마켓(SHARK MARKET)과 외식업 기업 떡볶이 뷔페 주피(JoopII)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판 마켓컬리, 오아시스'로 불리는 샤크마켓은 베트남에서 콜드체인으로 신선식품을 원하는 장소의 문 앞으로 배송해 준다. 냉장 및 냉동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물류창고와 배송하는 오토바이에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신선하고 안전한 품질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된다.

주요 소비자인 젊은 중산층 20~40대 직장인 및 자영업 여성들을표적고객으로 상품을 공급하며 현재는 호치민시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지만 2023년에는 2개의 물류창고를 증설하여 하노이에서도 샤크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재구매하는 비율이 72%, 3개월 이내 재구매하는 소비자는 83%를 상회하며, 기존 고객들은 월평균 3.5회 이상 구매할 정도로 고객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창업자이자 CEO인 정성원 대표는 롯데마트 베트남에서 기획, 재무 및 신사업 책임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최초의 모바일 쇼핑몰 오픈 및 운영 경험이 있다. 베트남에서 10년간의 근무 경험은 인적 네트워크의 좋은 자원이 되었다.

이제는 신선식품에서 출발해 생필품 위주의 프리미엄 상품의 수를 늘려 나가고 있다. 자체 브랜드 상품도 개발하고 B2B 영업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온라인에서 고객의 사용경험 자료를 기반으로 O2O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베트남 젊은 중산층이 주요 고객인 샤크마켓의 객단가는 40달러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의 4배다. 오프라인 브랜드와 협업을 추진하며 인지도를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베트남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다.

호치민시 주요 쇼핑몰 비보시티(Vivo City) 4층에서 새로이 외식업을 개점한 주피(JOOPII)는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라우(lẩu) 음식과 결합했다. 샤브샤브와 비슷한 라우는 끓는 육수에 얇게 썬 고기, 야채, 해산물, 버섯, 두부 등을 데쳐 먹는 음식이다. 소비자가 떡볶이를 비롯한 30여 가지 재료를 골라 음식을 만든다.

주요 고객층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식성이 좋은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며 한류 드라마에서 간접 경험한 음식을 조리한다. 어묵, 치즈가 들어간 떡, 한국식 라면 사리 등을 넣어 라우 방식으로 음식을 고객이 직접 만든다.

잡채, 김밥, 탕수육, 샐러드 등 10여 가지 사이드 메뉴는 셀프로 무제한 제공된다. 콜라도 시원한 얼음과 함께 제공되며 한국에서 공수된 여러 가지 소스는 고객의 입맛을 사로 잡는다.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점심 식사에서 저녁 10시까지 100석에 달하는 좌석은 만석이다. 대기좌석에서는 빈자리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있다.

일 평균 350명, 주말 평균 500명 고객, 1인 요금은 평일 15만9000동(약 8000원)이며 인근지역 학생요금은 5% 정도 낮다.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가 기꺼이 지갑을 열게 하는 외식업 장영관 대표는 CJ 프레시웨이 베트남 법인장 출신으로 급식업에서 외식업으로 전환했다.

불황기에도 자신만의 차별성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전직 주재원 출신인 이들에게는 벌써부터 다음 사업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었다. 많은 중소기업이 베트남에서 성공사례를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김석운
한국-베트남문화교류협회 기획위원장
kswkso@hanmail.net

데스크의 창

말레이시아, 우리가 몰랐던 반도체 강국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말레이시아는 오래 전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1970년대 당시 말레이시아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고자 노동 집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국기업의 전기전자 산업 유치에 적극 나섰는데, 전기전자 부품, 반도체 부품 및 부분조립생산(SKD)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반도체 포장, 제조 및 디자인 발전을 위해 디자인개발(D&D)센터를 설립해 커지는 PC 시장 수요에 맞춰 사무용품과 컴퓨터용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반도체 분야 내 웨이퍼 제조시설을 설립 및 확장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들이 연구개발(R&D)센터, D&D센터, 글로벌 조달센터, 물류센터, 사업운영본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 전기전자 제조업체들은 현재 전자상거래, 자동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에서 파생되는 잠재력 높은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할 계획입니다.

2020년 말레이시아의 전기전자 기기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39.4%인 919억 달러로 말레이시아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를 통해 총 148개의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며 이는 37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1970년대부터 주요 다국적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AMD, 레네사스(히타치), 인텔말레이시아, 오스람(리트로닉스), 애질런트(휴렛팩커드) 등 주로 미국, 독일, 일본 기업들이 진출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관련 현지 아웃소싱 업체들은 이들 다국적기업의 생산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세율 등에서 혜택을 주는 동시에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전기전자 산업 중에서도 반도체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반도체 시장이 침체되자 GDP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전체 판매량이 3분의 1가량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계 반도체 시장 수요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반도체 공급 차질로 가격 상승 등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해외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반도체산업협회(MISA)의 앤드류 찬익홍 회장은 "삼성전자는 이미 진출해 있으며 SK하이닉스, 디아이, 하나마이크론 등 반도체 제조 또는 장비, 후공정 전문 기업들도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말레이시아에 직접 와서 현지 반도체 시장 현황을 눈으로 확인해볼 것을 권유하면서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의 말레이시아 반도체 공장 및 회사 견학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과 만난 현지 반도체 관련 아웃소싱 업체 이나라 이애머트론 관계자는 "말레이시아가 글로벌 수요에 맞춰 공급망을 확장하면서 지난 5년간 생산량이 두 배 이상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 반도체 제조사 및 관련 장비, 후공정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우크라전 · 에너지난 속 '국제왕따' 벗어나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에너지 위기 속에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변화 조짐이 보이면서 베네수엘라가 오랜 '국제왕따'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등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재고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2018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야권지도자 후안 과이도 측이 대립하는 국내 정치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마두로 정권을 둘러싼 국제 환경은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권 내 인사 140여 명과 석유, 은행, 광업 등에 제재를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베네수엘라에 수감된 미국인 7명과 마두로 대통령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조카 2명을 교환했고, 지난 26일에는 정유회사 셰브런에 베네수엘라에서 천연자원 채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일반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셰브런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은 미국 정부가 제재 완화 조건으로 내건 마두로 정권과 야권의 협상 재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마두로 정권과 야권 협상팀이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만나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안에 합의하고 2024년 대선과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마두로 대통령과 서방 지도자 간에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회의장에서 마주친 마두로 대통령과 2분도 안 되는 짧은 대화를 나누며 그를 '대통령'으로 칭했고, 마두로 대통령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도 짧은 만남을 가졌다. 서울=연합뉴스

INQUIRY 거래알선 코너

한국무역신문은 중소 수출업체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알선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마케팅실 CBT마케팅센터**에서 제공한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거래알선 사이트(**kr.tradeKorea.com**)에 접속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싱 진행중인 글로벌 유통바이어 거래알선 정보 (12/1~12/31)

[스페인] CT Engineering

소싱품목 : 스마트팜, 항공우주 관련 제품, 에너지 절약 시스템 관련 제품

특이사항 : 영국 CT Engineering Group 의 스페인 지사로, 1988년 설립되었으며 직원 1,800여명과 함께 항공, 자동차, 철도, 해양, 산업 플랜트 및 재생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기업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인도에 지사를 두어 사업 확장중에 있음. 연매출은 스페인 지사 기준 USD 7,000만 불 규모임.
국내의 우수한 스마트팜, 항공우주 관련 제품, 에너지 절약 시스템 관련 제품 소싱 희망하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요망.

[리투아니아] KOSMELITA

소싱품목 : 스킨케어, 헤어케어, 바디 제품

특이사항 :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큰 화장품 매장 체인인 Eurokos는 18년 동안 꾸준히 그 입지를 견고히 해 나가고 있음.
Eurokos의 강점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상품, 매력적인 가격 및 쾌적한 서비스임. 이러한 노력 덕분에 리투아니아 전역 12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832명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음. Eurokos 매장에서는 항상 독점적이고 독창적이며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화장품, 위생 및 바디 케어 제품을 찾을 수 있음.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고 흥미로운 화장품 및 미용 혁신을 찾고, 선택하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스킨 및 헤어케어, 바디 제품에 관심을 소싱 중이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 요망.

[우즈베키스탄] Avtokomponent LLC

소싱품목 :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산업설비 및 기계 (튜브 밀(Tube Mill), 시밍 기계 (Lock seaming & Double Seaming machine, production to Mufflers for cars), 곡선 재단 기계 (Band Saw Machine), 프레스 기계(Mechanical Press)

특이사항 : 우즈베키스탄 GM의 자동차 배기시스템과 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임. 주로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우수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제품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향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고자 함.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를 위한 산업설비 및 기계 공급이 가능한 국내의 우수한 기업을 찾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요망.

한국무역협회-하나은행 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

한국무역협회 tradeKorea.com과 하나은행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무역거래에 대한 수출입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입계약 및 국내업체간 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문의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마케팅실 02-6000-4420

서비스 소개

- 우대 대상거래 : 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업체간 외환결제에 한함
- 이용절차

①tradeKorea.com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②신청서 작성 → ③신청결과에서 현재 상황 확인 → ④확인서 발급 확인 시 출력 후 하나은행 방문

우대내용 서비스 문의 : 하나은행 1544-3000, 3500

구분	통상 수수료율	우대 기준율
당발송금 수수료	송금금액구간 별 5,000원~25,000원	건당 50%~80% 할인
타발송금 수수료	건당 10,000원	건당 50%~80% 할인
신용장통지 수수료	건당 20,000원	건당 50%~80% 할인
매입/추심 수수료	건당 20,000원	건당 30~50% 할인
신용장발행 수수료*	신용등급 별 발행금액의 0.8~1.4%	건당 0.4%P 감면
신용장인수 수수료*	신용등급 별 발행금액의 1.4~2.0%	건당 0.8%P 감면

※ 기업의 당행신용등급에 따라 적용요율과 우대율이 상이할 수 있음.

전세계 무역인의 온라인 원스톱 거래 네트워크
tradeKorea.com
한국무역협회

SurplusGLOBAL + EQ GLOBAL

SurplusGLOBAL
www.surplusglobal.com

Global Parts Platform
반도체장비 부품 플랫폼

Online Marketplace: www.SurplusGLOBAL.com

01 Trading : :

1) Global Sourcing:
- 반도체 장비 핵심 부품 소싱

2) Sales:
- 반도체 중고장비 플랫폼 운영 및 , 판매 서비스 제공

02 Repair : :
- 반도체 전공정 장비의 핵심 부품 소싱, 수리 및 교환 서비스 제공

1) RF Repair (RF 수리):
- EQ GLOBAL의 200mm반도체/LCD의 RF Generator, RF Matcher, RPS, Microwave, Power Supply, PCB, RF Cable, RF Sensor 부품 수리 서비스 제공과 300mm반도체/OLED 부품의 지속적인 수리 및 검증 기술 개발 진행
- 해외 Repair Facility를 운영하며 현지 고객을 의한 Customized 수리 서비스 제공
- 수리 품질 유지를 위한 EQMS (EQ GLOBAL Quality Management System) 운영 및 ISO 인증 획득

2) RF Replacement (대체품):
- 단종된 반도체 제품의 대체품을 개발, 제작하여 제공
- 개발품의 성능 검증 및 품질 보증 제공

3) Wafer Tester 수리:
- ATE (Automatic Test Equipment) 신규 모델 수리 서비스 제공
- 최신 Version의 ATE 장비를 보유, 운영하며 Final Test를 고객사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 – 품질 보증 제공

03 Qualification : :
-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ATE 장비를 활용한 부품 성능 검증 인프라 확보

5,000개사 이상의 글로벌 네트워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엔지니어

1,000여 대의 중고 장비

최고 수준의 시설

Contact Us

Trading / Replacement / QA :
Parts@SurplusGLOBAL.com
Repair : RFsales@eq-global.net
EQ GLOBAL 031-321-2995
SurplusGLOBAL 031-728-1400

인도문화 포용성의 상징, Tata와 Parsi

현장에서 본 'G2' 인도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 (25)

지난 9월말 인도 뭄바이에서 타타 티아고 전기차(Tata Tiago EV)에서 만든 전기차가 글로벌 런칭 행사장에 전시돼 있다. 【사진=AP/뉴시스】

● 기업 가치 3000억 달러로 '민간정부(Private Government)'로 불리는 인도의 타타그룹(Tata Group) = 타타그룹은 조화와 포용의 5000년 인도 문화를 대변하는 인도의 국가대표 기업집단이다. 우리나라에 삼성과 현대가 있다면 인도에는 타타와 릴라이언스(Reliance)가 있다고 보면 된다. 인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타타라는 이름만이라도 기억해 둬야 무시를 안 당한다.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도 믿을 만한 인도 기업으로 타타만을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1868년 창업된 150년 역사의 뿌리 깊은 기업집단이고, 철강, 자동차, 화학, 인프라, IT 서비스, 소비재 분야의 30여 개 선도기업군을 통해 연매출 1300억 달러, 7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인도 IT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산하 TCS(Tata Consulting Service)의 1000억 달러를 포함, 타타그룹 산하 기업의 가치평가 총액이 3000억 달러에 달한다. 초일류 기업으로 등극한 우리나라 삼성전자 평가액 3000억 달러와 비슷한 규모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영국의 Land Rover나 Jaguar 자동차, 세계 제1의 Tea 브랜드 Tetley도 이 타타그룹에 편입된 브랜드다. 2002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대우상용차(버스) 군산 공장 등 전 세계 100여 국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 전역 어디를 가도 Tata Car, Tata Steel, Tata Infra, Tata Chemical, Tata Telecom, Voltas(Tata Aircon) 등 기간산업은 물론 호텔(Taj Hotel), 유통(Croma), 보석(Tanishiq) 등 유통 레저와 생필품(Tata Salt)에 이르기 까지 거의 전산업 영역에서 타타를 만날 수 있다. 스타벅스에 인도산 커피를 공급하고 있는 곳도 Tata Coffee다.

특이한 것은 핵심 산업군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독과점 횡포나 특혜 논란이 없고 인도 국민들의 타타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남다르다는 점과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면서도 미래 산업군을 내다보는 사업적 감각과 수익성면에서도 발군이라는 점이다.

타타(Tata)란 기업명은 인도 대부분의 기업이 그러하듯 자기 가문명에서 따온 이름이다. 1868년 Jamsetji(인도에서는 존칭으로 Ji를 이름 뒤에 붙임, 순수이름은 Jamset) Tata가 인도 파르시(Parsi)의 근거지인 봄베이(현 Mumbai)에서 무역업으로 창업한 이래, 본인 및 아들 손자 대에 걸쳐, 축적한 자본을 인도 최초의 근대식 방직공장, 인도 최초의 수력발전소, 인도 최초의 일관제철소에 연결시켰다.

피식민국 인도 땅에 세계 최초로 8시간 근무제와 의료보험, 연금제도를 도입했고, 북동부 Jharkand 산지에 제철소를 건립할 때는 의무에도 없는 도시 내 학교, 병원, 공원, 주택 등을 타타 자금으로 일괄 건설했다. 이러한 전통은 그 아들, 손자, 후손대에 이어져 자신들의 부 대부분을 Tata Trust 등 자선기금에 출연해 왔다.

● 그룹 지분 3분의 2를 Tata Trust등 자선단체가 보유… 교육, 보건, 불평등 해소에 투자 = 현재 타타그룹은 Tata Sons를 정점으로 하는 지주회사 형태인데 이 Tata Sons의 약 3분의 2 지분이 Tata Trust 등 자선기금이다. 따라서 막대한 타타그룹 수익금이 20세기 초중반부터 현재까지 Tata Institute of Fundamental Research 등의 연구, 교육, 보건, 문화 진흥과 빈부 격차 해소 분야에 투자되어 왔다.

그래서 타타는 릴라이언스와 함께 인도를 대표하는 양대 기업군이지만 릴라이언스의 무케쉬 암바니(Mukesh Ambani)가 아시아 최고 부자인 반면, 최근까지 타타그룹의 도약을 이끈 Ratan Tata의 인도 내 부자 순위는 400위권 밖이다. 인도 타타가 정부가 할 일을 기업이 하고 있다는 의미의 '민간정부'로 불리는 이유다. 상속세 회피용이란 혹자의 주장도 상속세가 없었고, 지금도 없는 인도에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

타타의 기업문화 뿌리는 인도 파르시(Parsi)다. 파르시는 '페르시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란 뜻이다. 이들은 이슬람 물결이 페르시아(지금의 이란)에 몰려오자, 세계 최초의 일신교로 알려진 조로아스터교 신념을 지키기 위해 8~10세기에 걸쳐 인근 인도의 구자라트 지역에 집중 이주, 정착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의 가르침과 종교의식을 이주한 땅에서도 지켜 왔고, 자녀 교육과 일족 내 유대와 연대를 강화해 왔다. 19세기 중엽 구자라트 수랏 항의 대안으로 7개의 섬을 매립해 만든 봄베이가 대영제국과의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수많은 파르시가 뭄바이 건설과 산업화 과정에 주도적으로 이주, 참여했고, 타타 가문도 이 흐름에 동참하면서 그룹의 초석을 쌓았다.

참고로 파르시는 약 6만 인구로 인도 산업계, 학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이주민족 집단이다. 인도의 경제수도이자 제1 항구인 뭄바이와 인근 푸네(Pune)에 집중되어 있고, 최초 정착지인 구자라트주에 일부 분포되어 있다. 뭄바이 시 남부의 'Dadar Parsi Colony'는 약 1만 명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파르시 집단거주지역으로, 배화교 양식의 'Parsi Temple(Agiary라 불림)'과 '조장탑(배화교는 조장 전통을 고수하고 있음)'이라는 인도에서도 이국적인 풍경을 볼 수 있다.

타타그룹 타타스틸 표지판.

파르시 중 약 80% 정도가 경제계, 나머지는 교육 및 예술계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타 외에 ▷그 비싼 뭄바이 부동산을 배경으로 인도 제일의 200억 달러 부동산 기업을 일군 Mistry Group ▷인도 소비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Godrej ▷인도 민항기 시장의 양강 Wadia Group, 그리고 ▷그동안 구축한 세계 제1의 백신 생산능력으로 최근의 글로벌 코로나19 재앙 극복에 크게 기여한 SSI(Serum Institute of India)가 대표적인 파르시계 기업이다. 과학 및 연구, 예술, 정치 분야에의 기여도 매우 커 인도 핵폭탄 개발의 아버지 Homi Bhaba, 세계적인 지휘자 Zubin Metha, 인디라 간디 전 총리의 남편 Peroz Gandhi 등이 파르시다.

융성했을 때는 15만 명을 넘겼으나 모계만 인정하는 순수혈통 고수와 타종교도와의 통혼 증가, 경제적 자립 후 결혼하는 관행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어 지도층은 파르시 증가 방안에 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근무한 구자라트주 경제수도 암다바드(Ahmedabad)에 이교도와 결혼하면 풍요롭던 환경과 가족과의 연결이 단절되고 다니던 파르시 사원에의 출입이 봉쇄될 것을 알면서도 건축디자인 쪽으로 유학 온 한국 청년과 결혼한 용감한 파르시 여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 격인 인도 CII(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의 서북부 회장은 인도 Powder 음료 시장의 선도기업을 할아버지 대로부터 물려받은 파르시로, 구자라트 거주 6000여 파르시 족보를 꿰뚫고 있었다. 파르시 대부분이 아리안계 혈통을 그대로 온존하고 있어 현장에서 보면 마치 하얀색 피부의 건장한 서구인, 독일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11월 초 한-인도경제협력 세미나 부산 행사에서 타타대우버스 사장님을 같은 테이블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 본인이 내부에서 보고 느낀 타타의 특성은 무엇인가, 20년 이상 한국에서 성공적인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왜 노사분규가 없나, 쌍용차 인수 후 도주한 중국기업이나 쌍용차에서 철수한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 비교한 타타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다. 그가 본 타타 가문 및 파르시 사람들은 누구보다 근면, 성실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물리적으로 다투는 법이 없으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내는 사람들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파르시의 80%가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가난한 파르시는 없다는 이야기도 더해 주었다.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파르시는 유대인을 넘어선 세계 초일류 소수민족 집단이다. 본토를 떠나 타국으로 이주한 10만 명도 안 되는 소수민족 집단이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의 종교, 생활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이주한 국가의 산업 근대화를 선도하고, 수많은 과학자, 예술가들을 배출했고, "파르시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는다"고 할 정도로 온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이 드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영국 신교도의 아메리카 신대륙 이주는 아마 오늘의 이스라엘,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극적 전환점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와 곡절을 낳았다. 혹자는 긴 역사적 여정과 결과물의 불가피한 과정이라 말할 수도 있겠다.

필자가 인도와 연을 맺은 지 30여 년, 현지 생활 8년을 반추해 보면, 인도가 공존 내지 조화의 땅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여지가 있으며 여백이 있다. 굳이 한쪽으로 내 것을 강요하지도 않고 주변의 사물과 사람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한다. 최소한 모르는 척해 주거나 그러려니 해 준다. 윤회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만들었다. 이러한 인도아대륙의 전통이 0이란 개념과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어 냈고 인도판 종교, '힌두스탄 철학'이라는 서양과도, 동양과도 확연히 구별되는 인도아대륙의 독자적 전통과 유산을 인류에 더했다.

인도 파르시,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타타는 선을 추구하는 파르시 종교 전통이 이주한 인도아대륙의 관용성과 포용성과 만나, 1000년 이상을 서로 고마움과 교감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 낸 '인도향 디아스포라'의 결정체가 아닐까?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KOTRA 및 한국무역신문의 입장과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김문영은 1992년 KOTRA에 입사해 인도에서만 8년 동안 근무한 인도 전문가로 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8월 귀국하여 현재 호서대학교 겸임교수로 근무 중이다. 저서로 '3,000년 카르마가 낳은 인도상인 이야기(2021)'가 있다.

샐러리맨 30년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32

상사에게 인정받는 쉬운 비법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인간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고민하게 된다. 생각한 것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고민이 많고 방향을 두고 여러 가지 숙고를 거듭하는데, 일을 지시한 상급자는 예외 없이 이런 생각을 한다. 그 사람은 왜 이리 일 처리 속도가 느리지? 내가 했으면 2~3번은 더 했을 시간인데….

입장이 다르면 같은 시간도 엄청난 차이로 다가온다. 이런 상황에서 슬기로운 대처법은 찾기 쉽지 않지만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택해야 한다.

30여 년의 직장생활에서 남보다 조금 앞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확실하지 않거나 잘 모르면 물어보고 한 템포, 아니 반 템포라도 먼저 했다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없다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원래는 내일하면 되는데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하는 것이다. 오후 일인데 오전에 할 수 있으면 오전에 한다.

왜냐하면 예상에 의하면 다음 날이나 오후에 해도 충분하지만 거의 80~90% 정도의 확률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돌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상사가 부탁이라며 일을 내밀기도 한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터져 스케줄이 망가진 것은 이제 당연시되는 일상일 정도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거나 처리해 놓지 않으면 정해진 스케줄을 맞추지 못한다.

상사한테 인정받는 가장 쉽고도 간단한 방법은 현안을 미리 챙기거나 기대하는 것보다 한 템포 앞서 결과물을 보고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직원의 능력을 쉽게 판별하는 잣대가 하나 있다. 만능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상급자가 마음에 두고 있는 방안으로 원하는 시기보다 늦게 결과물이 올라오면 보통 이하 점수를 준다. 특히 가져오라고 말해서 그때야 결과를 보고하면 대부분 화를 먼저 낸다. 좋은 결과물이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최고의 평가는 예정된 시기보다 먼저 들이미는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미리 고백하고 지금 보완 중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상급자가 책망하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빨리 일을 처리하면 또 다른 좋은 점이 있다는 포인트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마케팅을 통해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먼저 온 제안서에 눈길이 가고 많이 준비했다는 느낌이 들어 가점을 준다고 한다. 특히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니 다시 보완할 수 있어 두 번의 기회를 갖는 효과를 본다고 한다.

입찰서류를 만들더라도 1~2일 앞당겨 완성한다는 자세로 임하면 나중에 보완할 기회가 생긴다. 무역업체는 대금 결제 시 신용장(L/C)을 통해 안전하게 회수하길 원한다. 그런데 핵심 키는 서류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해 물건을 잘 만들어 선적하고도 대금을 못 받는 재앙에 빠지기도 한다. 만약 미리 서류를 제시했다가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다시 고쳐서 내면 된다.

가정에서도 원하지 않는 것을 미리 챙기는 것이 화목의 첩경이다. 가족의 일을 도와주더라도 시켜서 하는 일은 평가절하된다. 시키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마음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미리 할 방법을 고민하고 찾는 습관을 가지면 가정은 물론 회사 일이 쉬워진다.

기회가 되면 조금 당겨 일을 완료해야 한다. 예외 없이 앞당겨 준비하고 일을 하는 습관은 좋은 성과를 부르는 첩경이다. 예상치 못한 일로 납기를 못 맞추는 확률을 줄이고 더 잘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여 능력 이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민영채 | W커뮤니케이션 대표

최영진의 풍경

산모퉁이 겨울나기

이른 추위로 산모퉁이 마을에는 아침마다 하얀 서리가 내린다. 늙은 촌부도 마음이 스산하여 문 밖 걸음을 멈추었는데 헐벗은 나무들도, 산새들도 긴 겨울나기가 심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진가〉

왕초보 무역

〈한국무역신문〉은 2017년 초보 무역인들을 위한 시리즈 기획 '왕초보 무역교실'을 연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독자들의 요청으로 이를 업데이트하고 재편집해 싣습니다. 〈편집자〉

수출품과 바꿀 수 있는 선적서류 '선하증권'

일반적으로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라고 함은 "화물이 선적됐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말한다. 수출자가 수출품을 배에 선적하고 난 후 발행하는 서류다. 수출자는 수출지에서 이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자는 이 서류만 가지고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선적서류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I), 선하증권(B/L), 적하보험(IP)을 말하며 여기에 원산지증명서(CO)나 패킹리스트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상업송장은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발행하는 물품대금청구서다. 거래의 주요 내역을 기재한 물품의 명세서로서 원산지, 출항지, 입항지, 운임조건, 상품명세(품명/수량/단가/총금액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착지 세관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패킹리스트는 말 그대로 포장된 화물의 목록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다. 보통 상업송장의 보충서류로 원산지, 출항지, 입항지와 함께 총중량, 용적, 순중량, 포장개수, 포장형태 등을 기재한다. 정형화된 양식이 없으므로 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의 수령 혹은 선적을 인증하고 해당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이다. 한 마디로 '화물과 바꿀 수 있는 유가증권'이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화물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됐는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하보험증권은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사고로 화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증권이다. 보험료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부담하게 된다.

오늘은 이 선적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Consignor/Shipper
KITA CO.,LTD.
4FL., COEX BLDG., YEONGDAERO 513,
GANGNAM-GU, SEOUL, KOREA

FBL KR M71 DSCLHKP80409191
KIFFA NEGOTIABLE FIATA
MULTIMODAL TRANSPORT ICC
BILL OF LADING

Consignee
TO ORDER

DONGSUE
SHIPPING CO., LTD

Notify Party
KALMAX GARMENTS FTY. LTD.
BLOCK C, 10F., DONTEX BLDG.,
10-3 SHEUNS HEI ST.,SANPOKONG
KOWLOON, HONG KONG

TEL:
FAX:
SEOUL, KOREA

Place of Receipt
BUSAN CFS

Ocean vessel
MARCON 804

Port of loading
BUSAN, KOREA

Port of discharge
HONG KONG

Place of delivery
HONG KONG

Received by the Carrier from the Shipper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herein, the Goods, or package(s) said to contain

Marks and number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Gross weight Measurement

2,387.000 KGS 6.689CBM

24CTNS

SAID TO CONTAIN:
9,775 YDS OF

40 PERCENT NYLON 60PERCENT COTTON WOVEN FABRIC
WIDTH:56 INCHES
ITEM NO:IE-1003
FINISH:PD. WR. W/S

KALMAX
ITEM:IE-1003
COL:
QTY:
C/NO.:1-24

D/C NO.:MGK248186

FREIGHT PREPAID
SAY:TWENTY-FOUR(24) CARTONS ONLY
LADEN ON BOARD : APR. 10, 2016

ORIGINAL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the consignor

Declaration of interest of the Consignor in timely delivery

Declared value for ad valorem rate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the consignor

Freight amount
OCEAN FREIGHT PREPAID AS ARRANGED

Freight payable at
SEOUL, KOREA

Place and date of issue
SEOUL, KOREA APR. 10, 2016

Cargo Insurance through the

No.of original FBL
THREE(3)

Stamp and signature
DONGSUE SHIPPING CO.,LTD.

For delivery of goods please apply to:
DONGSUE SHIPPING COMPANY LTD.
TEL.:2-815-2973
ATTN:MR.KENNETH LAW

AS A CARRIER

S. H. Kim

【선하증권 서식.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제공】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화물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선적, 운송해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화물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선하증권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하증권을 누구에게 양도했다면 바로 해당 화물에 대한 권리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분실 등에 대비해 3통을 한 세트로 발행한다. 각 통의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 인도에는 원본 한 통의 제시로 도착지 운송으로부터 화물을 인출할 수 있는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를 받을 수 있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증권에 표시된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인증하는 영수증(화물수취증)이자, 운송인 일방만이 서명하고 발행한 것이라도 계약의 증거서류가 되는 운송계약서이며, 선하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소유자로 인정돼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화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가 증권이다.

선하증권의 종류는 분류에 따라 다양하다. 화물의 선적 여부에 따라 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과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으로 분류할 수 있고, 하자 및 유보 조항 기입여부에 따라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수화주 표시방법에 따라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으로 나뉘며 복합운송 형태에 따라 통선하증권(Through B/L),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B/L)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특수 선하증권으로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환적선하증권(Transshipment B/L)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or Surrendered B/L) ▷선사 선하증권(Master B/L or Marine B/L) ▷포워더 선하증권(House B/L) 해양선하증권(Ocean B/L)이 있다. 한국무역신문 편집팀

바이어가 갑자기 B/L을 서렌더해 달라는데 괜찮은가

A사는 얼마 전 필리핀에 컨테이너 한 대 물량을 수출했다. 대금의 20%는 선적 전에 받았고 화물은 10일 후 목적지에 도착했다. 바이어가 잔금을 보내주면 이를 받은 후 선하증권(이하 B/L)과 나머지 선적서류를 보내주는 조건이었다. 선사를 통해 원본 B/L과 서류 또는 서렌더 통지(Surrender Notice)가 없으면 화물을 내주지 말라는 전문도 함께 보냈다. 그런데 바이어가 갑자기 "화물을 찾아서 이상이 없으면 잔금을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선사를 통해 B/L을 서렌더(Surrender)해 주어야 물품을 바로 찾을 수 있고 동시에 물품의 이상 유무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즉시 송금할 수 있다고 독촉했다. 이 경우 A사는 바이어의 서렌더 요구를 수용해도 될까?

서렌더 B/L은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 전송(Fax)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이다. B/L은 유가증권이다.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Original B/L)이어야 효력이 있다. 즉, 수입자가 B/L 원본을 선사에 건네면서 "내가 이 화물에 대한 소유주니 물건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서류라는 뜻이다.

선적서류 중에서는 B/L과 I/P(Insurance Policy-보험증권), 두 가지가 유가증권이다. 서렌더(Surrender) B/L은 이 유가증권의 기능을 포기한 B/L이다. 원래는 Original B/L이 있어야 수입화물을 찾을 수 있지만, B/L이 서렌더된 경우에는 원본 없이도 B/L 사본에 'Surrendered'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B/L을 제시해도 도착지에서 수입화물을 인도할 수 있다. 신용장 거래가 아닌 T/T 거래에서 가까운 국가들끼리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본 B/L이 발행되고, 그것이 운송인에게서 수출자한테 보내지고, 다시 수출자가 수입자한테로 보내는 데는 물리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화물(배)이 서류보다 먼저 수입국에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서류의 지연 때문에 화물인수 지연이라든지, 추가 비용 발생이라든지 하는 수입자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Surrender B/L을 발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발주서(Purchase Order) 상에 바이어들이 B/L Surrender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물품을 선적하고 나서 원본 B/L이 발행되기 전에 선사(포워딩)에 "B/L Surrender로 진행해주세요"라고 하면 된다. B/L을 받아보면, B/L 원본에 'Surrendered'라는 도장(스탬프)이 찍혀 있고, non-negotiable copy B/L들이 여러 장 따라온다. 사실 이 때는 더 이상 원본이라는 의미는 없고, 포워딩에서 오는 Surrender B/L이나 복사기나 팩스기를 통해 나온 Surrender B/L의 효력이 똑같다.

간혹, Original B/L을 이미 발급받아서 손에 들고 있는데 바이어가 뒤늦게 Surrender B/L로 진행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Original B/L을 모두 포워딩(선사)에 반드시 돌려줘야만, Surrender B/L을 발급받을 수 있다.

Surrender B/L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포워딩(선사)에서 'Surrender B/L 발행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Surrender B/L을 발급해준다는 것은 쌍방간 신뢰가 많이 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Copy B/L로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하고 대금결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자의 신용이 확실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A사의 경우 KOTRA 마닐라무역관의 협조를 받아 업체의 신용상태를 알아본 결과, 거래업력도 10년 이상 되었고 해서 바이어의 요구대로 Original B/L을 서렌더하고 그 조건부로 잔금을 회수했다.

한편 바이어 측은 원본 서류가 오기 전에 서렌더 B/L로 물품을 바로 찾게 되어 물품 도착 후 발생하는 창고료나 기타 부대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한국무역신문 편집팀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전한 무역 30년, 서른 K-sure

우리 수출 30년을 지켜온 K-SURE와 함께 무역의 희망을 안전하게 채우세요

30 K-sure

10가지 뉴스로 돌아보는 2022년 우리 무역

해외시장 침체에 '3고' 현상까지… 힘겨워진 여건에도 수출 선방

◇… 2022년은 우리 무역이 격변을 맞이한 한 해였다. 코로나19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러 · 우 전쟁이 발발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트러블이 이어지면서 해외시장이 큰 위기에 빠졌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와 세계로 나눠 올해의 주요 무역뉴스 10가지씩을 가려 뽑아 한 해를 돌아본다. …◇

1. 우리 무역, 규모도 적자도 역대 최대로

유가 고공행진에 에너지 수입금액 늘어

올해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무역 규모를 기록할 것이 전망된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것도 9월 중순으로 사상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이를 성대하게 축하하기는 커녕 우려와 시름에 잠겨 있다. 사상 최대 무역 규모 기록을 빛바래게 하는 '사상 최대 무역 적자' 기록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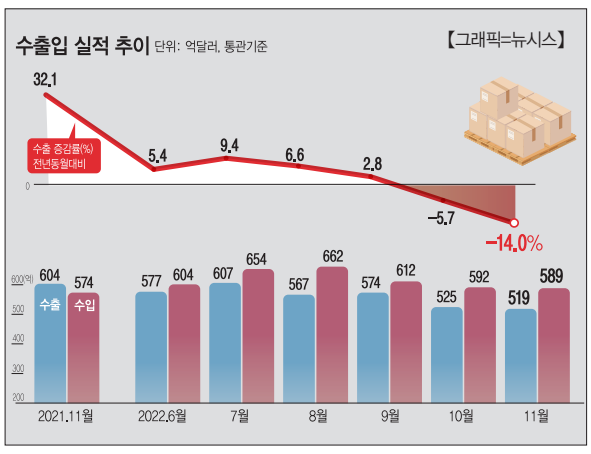
올해 수출은 1~11월 누적 규모만도 6290억8000만 달러에 달해 사상 최초로 11월에 수출 6000억 달러 규모를 달성한 데 이어 연간 최대 수출 규모 기록을 경신할 것이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수입 규모가 6716억2100만 달러에 달해 누적 연간 적자가 425억6100만 달러에 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최종 누적 적자 규모가 4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우리 무역 적자는 2분기부터 계속돼 8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세웠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다.

올해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에는 수출 부진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의 영향이 컸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수입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원유 · 천연가스 ·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였지만 올해는 6%p 증가한 24.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상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올 한 해 무역을 평가하면서 "고에너지 가격 여파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추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실적을 3대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다 썼다고 보면 될 만큼 에너지 가격이 무역수지 적자로 직결되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수출도 꺾이고 있다. 4분기 수출은 10월(-5.7%)과 11월(-14%) 연이어 역성장한 데다가 11월에는 낙폭도 두 자릿수에 달했다.



2. 대중국 수출 역성장… 수교 이래 첫 무역 적자

현지 경기 침체… '자국산 육성' 구조적 요인도

우리 무역이 적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꺾인 이유 중 하나로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꼽힌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제로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중국은 부동산 불안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 요인들이 겹치면서 내수 성장이 주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으로 주요 도시와 생산기지를 봉쇄해야 했던 지난 2분기에는 0%대 성장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17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흑자 품목 수는 282개로 전년 대비 22개 감소했으며 적자 품목 수는 937개로 29개 증가했다.

특히 대중국 무역비중이 큰 중간재 품목군에서 올해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경기가 회복돼도 구조적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쉽게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이 수출용 중간재에서 자국산 비중을 높이는 '홍색공급망', '중국제조 2025' 등 정책을 펼치고 미국과 기술패권 전쟁을 벌임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고위기술 중간재와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과 고위기술 시장이 수출을 회복해 무역 적자를 복원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3. 한국 수출, 1~3분기까지 세계 6위로 올라서

5위인 일본 역전도 눈앞… 격차, 역대 최저로

비록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금액이 더 커져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수출의 세계 속 위상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규모 순위는 지난해 7위에서 올해 1~9월 기준 6위로 상승했다. 중국 · 미국 · 독일 · 네덜란드 · 일본에 이어 여섯 번째 순위이지만 중계무역국인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수출 규모가 세계 5위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5위 수출국인 일본과의 수출 격차도 336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소 규모로 축소됐다. 독일(1.8%) · 일본(-0.02%) 등 주요 제조국의 수출이 미미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한국 수출은 12.2%(1~9월 기준)의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 수출은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1월과 5월에 일본 수출을 추월한 바 있다. 1월 한국 수출은 554억588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일본 수출 551억4063만 달러를 소폭 앞섰으며, 5월에는 한국 수출 615억9107만 달러, 일본 수출 563억1326만 달러로 한국 수출이 일본 수출을 약 9%가량 추월했다.

한일간 수출 격차는 계속 좁혀져 왔다. 20년 전인 2003년 한국 수출은 1938억1744만 달러로 일본 수출 4705억2768만 달러(연평균 환율 달러당 115.93엔 적용)의 41.2% 수준이었다. 9년 후인 2012년에는 한국 수출이 5478억6979만 달러로 일본 수출 7993억1223만 달러의 68.5%까지 따라잡았다.

다시 5년이 지난 2017년에는 한국 수출이 일본의 82.2%까지 추격했다. 이후 3년 동안 격차가 다시 소폭 벌어지긴 했지만, 지난해에는 85.2% 수준까지 올랐다. 올해 1~9월까지 우리 수출은 일본을 약 94%까지 추격해 거의 턱밑까지 따라잡았다.

4. K-방산 전성시대… 이미 수출 170억 달러 돌파

연간 200억 달러 목표 달성 낙관도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지난 11월 4일 기준 약 170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연간 방산수출 규모를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가 세운 연간 수출목표 2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방산 5개사의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30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올해 1월에는 LIG넥스원(2조6000억 원), 한화시스템(1조3000억 원), 한화디펜스(3900억 원) 등 국내 방산 3사가 UAE와 4조 원이 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천궁-II)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6일(현지시간)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시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약 30억 달러 규모의 FA-50 전투기 48기에 대한 수출이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어서 KAI는 지난 9월 폴란드에 30억 달러(4조2000억 원) 규모의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하는 실행계약을 맺었다. 현대로템도 지난 8월 폴란드 군비청과 4조4992억 원 규모의 'K2 흑표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정부와 천무 발사대, 유도탄, 장사거리탄 등을 공급하는 약 35억 달러(한화 5조 원)의 1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부터 유럽지역에 처음으로 천무를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나아가 '제3차 민 · 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5. 또 신기록 수립한 K-푸드 수출

라면 수출 사상 최대… 최대 효자 품목은 '김'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 수출 연간 누적금액은 10월 기준 전년 동기보다 5.7% 증가한 73억6000만 달러를 기록 중이다. 고물가 · 고환율, 현지 소비 위축 등 어려운 여건에도 K-푸드 인기와 글로벌 물류난 대응 전용 선박 · 항공 운영, 러 · 우 전쟁 대응 대체시장 개척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연말까지 올해 목표인 9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100억 달러를 목표로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물까지 포함하면 이미 같은 기간 K-푸드 수출이 100억3000만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역대 최단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선 셈이다. 올해 10월까지의 누적 수산물 수출금액은 26억7400만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K-푸드 최대 수출품목인 '김' 수출금액은 상반기에만 3억759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심지어는 전

지난 10월 2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K-푸드 페어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사진=aT 제공】

쟁 중인 러시아 시장에서도 한국 김을 계속해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출 1위 기업인 (주)신안천사김은 이번 무역의 날에 1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업체가 되기도 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김 수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업계는 올해 목표인 7억 달러 달성을 위해 비관세장벽 돌파 등 활로를 찾고 있다.

그밖에도 프리미엄 신선과일은 물론 K-콘텐츠 속에 등장한 떡볶이, 라면 등 가공식품도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라면 수출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5억682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8%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간 수출금액 7억 달러 목표를 두고 김 품목과 나란히 도전 중이다.

6. 전자상거래 무역도 적자… 해외직구, 역직구의 2.5배

전자상거래 무역, 코로나19 전보다 오히려 감소

2016년 상반기 처음으로 역직구액(수출)이 직구액(수입)을 역전한 후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꾸준히 흑자를 보여왔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 들어 5년 만에 직구가 역직구를 재역전하며 전자상거래 무역이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3개 반기 연속 해외직구가 역직구를 추월해 적자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는 3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4조4000억 원보다 15.9%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선호되며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인 국경 간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가 감소한 것은 역직구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까닭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2.7조 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상반기 1.8조 원보다 50.0% 증가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역직구액은 1조1000억 원에 불과해 2019년 상반기 2조6000억 원보다 57.7% 감소했다.

여기에는 중국 소비자의 한국 직구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66% 급감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해외역직구의 69.8%가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질 만큼, 역직구에 대한 중국 비중은 절대적이다. 일본(19.1%)과 미국(20.7%) 대상 역직구는 두 자릿수 증가했지만 그 외 다른 주요 시장에서 역직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7. 우리 수출 먹거리 새 희망 'K-콘텐츠'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늘면 소비재 수출 2배로

2021년 국내 콘텐츠산업 연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9% 증가한 약 135억8000만 달러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 콘텐츠 수출금액이 150억 달러를 넘어설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 콘텐츠 수출은 2010년대 후반 들어 연평균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7월 중국에서 발표된 '한한령'의 영향으로 2017년부터 음악 · 방송 · 영화 등 한류 성격이 강한 K-콘텐츠의 중국 수출액은 성장 정체를 보였으나, 비중화권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한한령을 계기로 중국 편향 성장을 극복하고 시장 확대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일대에서 열린 '2022 K-EXPO 박람회 베트남' 행사에서 4650만 달러의 수출 상담금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월 16일 한국의 에이비식스(AB6IX), 문빈&산하, 백지영과 베트남의 민(Min), 빈즈(BinZ), 저스티티(JustaTee) 등 6팀이 참가한 K-팝 콘서트장. 【사진=KOCCA 제공】

게임에 집중됐던 콘텐츠 수출 구성도 웹툰, 음반 등의 비중이 커지며 다변화되는 추세다. 특히 한국 드라마가 해외 OTT 플랫폼을 통해 영상 시리즈 콘텐츠 시장의 주류로 성장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1월 개최된 세계 최대 방송영상시장 '밉컴'에서만 우리 콘텐츠 수출 성과가 1664만1800달러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수출은 2차적인 부가 수출을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K-콘텐츠 수출 경제효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당 소비재 수출 견인 포함한 생산유발효과는 5억1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지난 5월 2021년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 증가가 2000억 원에 달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한류의 현재 인기와 대중화 정도를 나타내는 '한류현황지수'와 한류의 성장과 쇠퇴 정도를 의미하는 '한류심리지수'는 전년 조사 대비 각각 4.9%, 6.2% 증가했다.

또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이용다양성과 이용집중도도 각각 5.4와 41.9로 전년 조사 대비 8.6%, 18.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류 소비자의 연령 및 성별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층 간 한류 소비시장 다변화가 짐작되는 대목이다.

12월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1318.8원)보다 17.8원 하락한 1301원에 개장해 이윽고 장중 1300원 선 아래로 내려갔다. 10월 25일 장중 1444.2원을 기록했던 데 비해서 150원 가까이 폭락한 셈이다. 【서울=뉴시스】

8. 원/달러 13년 7개월 만에 최고기록 경신

환율 연간 변동 폭 2배 이상 커져

올해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월 25일 1444.2로 연고점을 기록했다. 이는 13년 7개월 만의 최고치로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까지 폭등한 셈이다.

또한, 이는 1월 14일 연저점 1185.6을 기록한 데 비하면 무려 258.6원(21.8%) 상승한 수치였다. 2021년 환율의 연고점과 연저점 차이가 120원 남짓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환율이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출기업에 좋은 현상으로 해석된다. 단적으로 지난 10월 수출은 달러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5.7%의 증감률을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환율이 같은 기간 20% 이상 상승하면서 원화기준 수출금액은 13.7%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원화 기준 기업 수출실적에도 고환율 효과가 짐작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상승이 올해 2분기와 3분기 무역적자 폭을 20억 달러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여건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을 경우 현 수준보다 더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수입기업에 고환율은 고물가와 함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변동폭이 커진 점은 우리 무역업계 전체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10월 25일 1444.2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한 달 뒤인 11월 25일에는 장중 1319.4원까지 떨어진 것만 봐도 그러하다. 우리 외환시장이 한 달 만에 지난해 연간 환율 변동 폭보다 더 크게 움직인 것이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한 달간의 환차손이 수출 영업이익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일이다.

9. 글로벌 물류난 완화에도… 한국은 여전히 심각

중국발 운임 폭락하는데 한국발은 약간만 하락

올해는 수출입 기업의 물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해였다.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해상물류비 부담이 쉽게 덜어지지 않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운송비 부담도 커졌다. 컨테이너를 항구에 선적하기 위해 실어나르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최근 들어 글로벌 수출입 해상물류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는 연초 대비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락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 수출입 기업들의 수출입물류비용은 그만큼 낮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행 원양 항로는 2TEU당 1000만~1100만 원 안팎으로 전년 동월 대비 9할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거리 항로의 경우 오름세가 여전했으며, 특히 대중국 항로는 전년 동월 대비 46.8% 올랐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할 때 중국 업체들보다 더 큰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대중국 · 일본 · 베트남 수출에서도 물류비 부담이 커진 셈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물류비에 부담을 준 것은 물론, 운수업자들의 어려움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화물연대 상반기 파업으로 인한 화주기업 애로가 236건 접수됐다. 하반기에는 11월 23일 파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11월 30일 오전 8시까지 70건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애로 · 피해를 접수했다.

10. 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 351조 원 공급

3고 현상 · 레고랜드 사태… 기업 자금난 심화

올해 대한민국 기업 금융시장은 큰 수난을 겪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 비용으로 조달한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 시장의 돈줄이 말라붙는 사태가 벌어졌다. 고환율 · 고물가 · 고금리의 '3고' 현상으로 자금난이 심각해진 우리 기업들에게 닥친 또 다른 금융 재난이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회사채 발행 자제령을 내리고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지만, 국고채와 AA- 등급 회사채 간 3년물 금리 격차를 나타내는 '신용스프레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떨어졌다. 신용스프레드가 커질수록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채 시장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을 통해 무역보험 체결 한도를 상향해 올해 최대 351조 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도 50억 원에서 중소기업 70억 원, 중견기업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9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750개 중소 · 중견 수출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올해 11월까지 역대 최대규모인 약 215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채 시장에 예상치 못한 '돈맥경화'가 벌어진 가운데 사상 최대규모의 무역금융이 우리 기업들의 마른 돈줄에 충분한 해갈이 되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김영채 기자

10가지 뉴스로 돌아보는 2022년 세계 무역

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에 해외수요 위축… 공급망 불안도 계속

◇… 2022년은 세계 무역이 격변을 맞이한 한 해였다. 코로나19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러·우 전쟁이 발발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트러블이 이어지면서 해외시장이 큰 위기에 빠졌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와 세계로 나눠 올해의 주요 무역뉴스 10가지씩을 가려 뽑아 한 해를 돌아본다. …◇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신냉전 구도로

지속 가능한 공급망·세계화에 대한 고민 더 커져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일으켰다. 사실상의 침공에 대항해 미국, 일본, 주요 유럽 국가들로 이뤄진 서방 동맹들은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쟁은 단기적으로 물류와 공급망에 타격을 줬고, 대러 제재는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무역·투자를 크게 단절시켰다. 에너지·식료품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공급난이 벌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잦아드는 추세지만, 세계 경제는 이제 전쟁의 장기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가 서방과 무역 전쟁을 겪는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구미 대 중러라는 냉전 구도가 2020년대에 재현되기 시작했다. 냉전의 종식으로 여겨졌던 모스크바의 맥도날드 점포는 결국 문을 닫고 러시아에서 철수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기업 환경에 큰 불확실성과 함께 세계화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이제 각국 정부과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한 비용 절감보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핵심 산업 공급망을 자국 내지는 동맹국 안에 둬야 한다는 '지역 가치 사슬(RVC)'의 개념이 부상하면서 구미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칩4동맹 등 경제안보를 중시한 경제블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정치적 이슈에서 중립을 표하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을 끌어들여 '브릭스(BRICs)' 간 연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7월 27일 워싱턴 연준 청사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2개월 연속 0.75%p의 금리를 인상에 관해 "치솟는 물가를 위한 잡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연준은 앞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워싱턴=AP/뉴시스】

2. 침체 가까워진 세계 무역… 내년 전망도 어두워

WTO, 올 무역성장률 3.5%로 추산… 내년엔 1% 불과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0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무역성장률 전망치가 3.5%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 4월 제시한 3%에 비해 소폭 오른 수치지만, 세계 무역 환경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됐다.

WTO는 "최근 입수한 데이터를 통해 전망치를 수정한 것"이라며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던 국가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아 수입을 늘리면서 다른 석유·가스 생산국의 무역량이 증가한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글로벌 상품 교역량 증가율은 하향 전망했다. 올해 4월 제시했던 2023년 무역성장률 전망치인 3.4%를 다시 대폭 낮춰 1%로 변경한 것이다.

지난 11월 말에는 WTO 상품교역지수가 96.2를 기록해 기준치를 밑돌았다고도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WTO가 발표했던 상품교역지수보다 낮아진 것이다. 부문별로는 수출 주문(91.7), 항공 화물(93.3), 전자부품(91.0), 원자재(97.6), 컨테이너 해운(99.3) 등 주요 항목들이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교역지수는 세계 무역 전망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인 100보다 낮을수록 성장세가 약하고 100보다 높으면 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망을 지수화한 만큼 글로벌 무역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이는 글로벌 무역 수요가 움츠러들었다는 의미라고 WTO는 분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속한 에너지난, 각국의 금융긴축 정책 기조, 코로나19발 침체 등으로 인해 비즈니스 심리가 위축되고 세계 상품 무역 수요가 활황을 띠기 어려우리라는 전망이다.

3.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가벼워진 세계인 밥상 다리

높아진 국제유가에 농식품 '애그플레이션'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국제유가는 장중 배럴당 140달러 가까이 가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59.7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경제의 주요 에너지·식량 공급원이기 때문이었다.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비료 공급이 어려워진 점도 문제로 꼽혔다. 비료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 가격 상승이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으로 비료 사용을 줄이면서 자체 식량 생산량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의 30%는 러시아산 비료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식량난에 장기적인 여파를 예고하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큰 폭으로 내렸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25%는 높은 상황이다.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밀 공급과 가스 공급을 의존해왔던 유럽 시장에서 물가상승 폭이 커졌다.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세계 시장에서 오르면서 연쇄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유로존은 지난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해 사상 첫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10월에도 10.6%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브렉시트 영국은 11.1%로 41년 만에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지난 6월 9.1%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연평균 글로벌 물가상승률을 8.8%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20개국(G20)의 물가상승률이 8.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튀르키예 등 극단적인 경제 정책을 구사하는 나라들에서 물가상승률은 두 자리에서 네 자리까지 치솟았다.

4. 중국 경제 발목 잡은 '제로코로나'

고강도 방역 조치 장기화로 주요 도시 봉쇄해 타격

2022년 백신 접종으로 감염확산 방지에 진척을 본 주요국들이 대부분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선회하며 방역지침을 완화했다. 그러나 중국은 강경한 '제로코로나' 방역정책을 고수하면서 이를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에는 상하이, 선전 등 주요 경제 도시들이 봉쇄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위치한 산업 클러스터와 주요 소비시장의 봉쇄는 중국 현지의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고강도 방역정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장기화했다. 이는 내수회복 지연 등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강력한 통제에 반발하는 중국 인민들의 '백지 시위'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또 다른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11월 말 중국 내 대만 업체 폭스콘 공장에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 공급망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5. 미 연준 4연속 자이언트 스텝 '성큼'

고강도 금리 인상에 신흥국 금융 어려움 커져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그 선두에는 단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연준은 지난 11월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종전 3.00~3.25%에서 3.75~4.00%로 0.75%p 올린다고 밝혔다.

연초 0~0.25%의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수준에서 3월 0.25%p 인상의 '베이비 스텝'이 이뤄졌고 5월에 0.5%p 인상의 '빅스텝'을 내딛은 데 이어 6월부터는 0.75%p 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이 이뤄졌다. 연준 고위 인사들은 미 기준금리가 내년 봄까지 계속 올라 5%대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달러화가 크게 강세를 보였다. 환율은 신흥국에서 더 크게 올랐다. 신흥국은 고환율과 고금리로 투자 자금줄이 경색되면서 재정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소위 말하는 '긴축 발작' 현상이다.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94개국에 달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IMF가 신흥국에 지원한 금융 규모는 140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정파탄 위기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 국가도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이어 방글라데시로 3개국이 됐다.

6. 기후변화, 경제 악재로 떠오르다

가뭄·산불과 폭우·홍수가 산업 생산에도 영향

전 세계가 식료품 공급난과 인플레이션으로 시름겨워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 위기가 이를 부채질하고 있

8월 18일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 주민들이 폭우로 침수된 거리를 건너고 있다. 이날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국(NDMA)은 파키스탄에 지난 24시간 동안 내린 폭우로 돌발 홍수와 각종 사고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지난 7월부터 몬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 【하이데라바드=신화/뉴시스】

8월 24일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준이(遵义)시 퉁쯔(桐梓)현 스시(狮溪)진 탕산마을에서 가뭄으로 논바닥이 갈라진 가운데 관계자들이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중국 국가관측소는 여러 지역에서 폭염이 계속되자 가뭄에 대한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국립기상센터에 따르면 구이저우 일부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급 부서는 국민의 생산과 생활용수를 보장하기 위해 가뭄 퇴치에 전념하고 식수와 농업용 관개수 공급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런/신화=뉴시스】

다. 지난여름 북반구에 들이닥친 40도가 넘는 폭염 · 가뭄과 국지적인 폭우는 올해 지구촌 농산물 생산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주요 농산물 경작지에 장기간의 가뭄이 덮친 가운데 산불과 국지적 단기 폭우로 인한 수해까지 일어났다. 인명 피해는 물론, 농림축산업에 이어 제조업까지 타격이 확대됐다.

중국 국가기후센터는 올여름 사상 최장의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양쯔강 일부 구역의 수위는 역대 기록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쓰촨성은 수력발전으로 공장을 돌려왔는데 가뭄 때문에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폭스바겐, 도요타 등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리튬, 비료, 태양광 발전 장비 제조업체 등도 피해를 봤다.

남유럽은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았다. 독일에서는 수운의 핵심인 라인강이 말라 물류난이 벌어지고 공급망에 악영향을 받았다. 석탄 수송 지연과 수력 발전 감소로 인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서부에서도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짧은 시간 퍼붓는 국지성 호우로 수해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최대 농업지대인 캘리포니아주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서 물 공급이 급격히 감소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지역인 센트럴 밸리에서는 전체 농경지 중 약 3분의 1이 물 부족으로 인한 경작 불능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파키스탄은 국토 3분의 1이 폭우로 잠기면서 사망자만 천여 명이 넘고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이 일로 국제 기후 회의에서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7. 인플레이션감축법, 최대 글로벌 통상 이슈로

대중국 견제 법안… 보호무역주의 비판받아

지난 8월 16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했다. 에너지와 기후 대응 분야에 391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전기차 보조금 360억 달러가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역내,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 제련한 광물 비중이 일정 이상인 배터리를 탑재해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타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배제하는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산 공급망을 구축해온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세계에서 전기차 산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온 나라 중 하나며,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기도 하다. 중국이 IRA법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요건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빠지면서 IRA는 우리나라의 최대 통상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EU는 한술 더 떠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책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청정 수소연료 및 청정 전기 관련 세액공제 등 관련 항목에서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EU는 미국으로 주요 업계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IRA와 유사한 '유럽산 우선 구매' 법률과 첨단산업 보조금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8. 아베의 유산 아베노믹스, '나쁜 엔저'로 돌아와

환율 상승이 수출에 도움 됐던 시대에 종언 고해

올해 일본 엔/달러 환율은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양적 금융완화로 엔저를 이룩해 수출을 진흥시키려 했던 일본이 지금에 와서는 엔저로 인한 경제 부담에 '나쁜 엔저'를 성토하고 있다.

일본 엔화는 10월 20일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50엔을 돌파했다. 이는 약 32년 만의 최저치로, 엔화 가치가 버블 붕괴 시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당시 경제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섰으며, 기업들은 투자와 임금을 억제했다. 지금 일본 경제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을 억제하고 있으며 소비 또한 침체돼있다. 반면에 고유가와 엔저로 인해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되면서, 한때 '수출 채산성과 가격 경쟁력에 좋다'고 떠받들어졌던 엔저는 순식간에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다.

엔저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선이 바뀐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일본에서도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엔저가 수입물가 상승의 주범 중 하나로 몰린 것이다.

둘째는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난 점이다. 일본 내 심각한 인력난과 높은 생산비용으로 국내 생산설비 투자가 부진하면서 해외로의 공장 이전이 가속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일본 내각에 따르면 일본 제조업의 외국 생산 비율은 1998년 10%에서 2020년 22%로 약 2배 이상 뛰었다.

마지막으로는 엔저가 이제 수출기업들에 더는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닛케이〉는 "근본적인 문제는 엔저 효과를 살릴 산업 경쟁력을 잃었다는 점"이라며 "엔저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강화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9. '패리티' 수준까지… 파운드화의 추락

최단기간 총리 교체 수모… "국력 쇠퇴" 지적도

한때 '해가 저물지 않는 나라'로 불릴 정도의 위세를 자랑했던 영국이 국력 쇠락의 위기를 겪고 있다. 20세기 들어 미국에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를 내주고도 오랫동안 경제적 · 문화적 대국으로 글로벌 리더의 한 축을 차지해왔으나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겪은 이후로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축소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파운드화는 미 달러화보다 가치가 높은 것이 당연했으나, 지금은 아니다. 지난 9월 26일에는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등가에 가까운 파운드당 1.035달러까지 급락하면서 파운드화 가치의 십진법 표기 개시 이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운드당 2달러 수준의 환율을 과시하며 영국 경제의 저력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9월 29일 보도를 통해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이 영국 국력 쇠퇴를 상징하는 한 단면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무늬가 들어 있는 영국 파운드화의 추락은 여왕의 서거처럼 영국 역사의 한 장을 마감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세계화 및 개발 교수인 이언 골딘은 영국의 경제와 정치적 영향력은 2016년 브렉시트 투표 이후 하락세가 가속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를 제외하면 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경제 지표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영국의 GDP 성장률이 0.5%에 그쳐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연료빈곤종식동맹은 내년 초 3개월 동안 1050만 가구가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보리스 존슨 전임 영국 총리는 악화한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계속해서 옹호해왔으나, 정치적 스캔들로 사임까지 내몰렸다. 브렉시트 협상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리즈 트러스 전 외무장관이 신임 총리가 되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더욱 악화했다. 트러스 정부 취임 하루 만에 파운드화는 3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결국 트러스 총리는 역대 최단기간 재임의 불명예를 안고 리시 수낵에게 차기 총리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10. 영국 제치고 'G5' 된 인도의 부상

차기 'G3', 신냉전 구도에서도 핵심 포지션 차지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인도의 국제적 존재감이 큰 해였다. 1분기부터 인도는 한때 식민지배 본국이었던 영국의 경제 규모를 앞지르면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성장률 추산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GDP도 무난히 영국을 제칠 전망이다.

새로 영국 총리가 된 리시 수낵이 인도계인 것 또한 인도의 존재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인도의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삼피트 파트라 대변인은 "우리를 지배했던 자들이 이제 우리보다 열세에 놓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밖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공화당의 대선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비롯해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브라빈드 주그노트 모리셔스 총리 등 세계의 주요 정치인에 인도계가 포진해 있다.

인도계 기업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아온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CEO, 샨타누 나라옌 어도비 CEO, 랙스먼 내러시먼 스타벅스 CEO, 리나 나이르 샤넬 CEO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 경영진이 인도계로 채워져 있다.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가 신냉전 기조에 돌입한 가운데 인도가 중립에 서서 양측에서 어부지리를 취하는 구도도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존재감을 드높였다. 인도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대체지로 떠오른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며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인도의 2021/2022 회계연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싸게 구입하는 인도를 제재하고 싶어도 높아진 인도의 위상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와의 안보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

인도는 내년 성장 전망도 밝다. OEC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세계 경제가 침체를 피한다면 그것은 중국과 인도의 높은 성장률 덕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의 성장률을 5.7%로 추산하면서였다. IMF는 인도의 2022/2023 회계연도 성장률을 6.8%로, 2023/2024 회계연도 성장률을 6.1%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의 성장률은 4%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 들어 중국을 추월했다. 중국에서 세계 경제발전 동력의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모양새다. 내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인구 면에서도 추월할 전망이다. 인도가 미국과 중국 다음가는 'G3' 국가에 올라설 일도 머지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채 기자

리시 수낵 신임 영국 총리가 11월 7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샤름 엘 셰이크=AP/뉴시스】

탄생 60년 '수출확대회의'로 본 무역사

'수출강국'을 만든 숨은 공신… 이번 정부 들어 부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 수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서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증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출전략회의'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대통령 주재 수출 회의다. 좁은 국토와 시장, 한정된 자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수출이었다. 이에 수출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민·관을 가릴 것 없이 '수출 역사'를 회고할 때면 반드시 이 회의를 빼놓지 않는다.

● **1962년 '수출진흥위원회'에서 발전** = 수출 회의의 역사는 통상 1965년을 기원으로 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962년 내각 수반 소속으로 설치된 '수출진흥위원회'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가재건최고위원회가 임명하는 내각 수반이 대통령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수출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내각 수반이 맡았다는 것은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과 위상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본다면 수출 회의는 올해로 출범한 지 60년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수출진흥위원회가 확대·개편해 1965년 9월 13일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의 첫 공식 명칭은 '수출진흥확대회의'였다. 한 해 전 정부가 첫 목표로 했던 연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계기로 수출드라이브를 더욱 가속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였다.

이어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월간경제동향 보고, 청와대 국무회의, 국가기본운용계획 심사분석회의, 방위산업진흥확대회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5대 회의 가운데 하나였다. 1980년까지 모두 151차례나 개최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불과 다섯 번을 빼고는 전부 자신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을 만큼 열정적으로 수출진흥 업무를 챙겼다.

● **1968~1977년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전성기'** =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 2015년 산업연구원(KDI)이 매월 발간하는 〈나라경제〉 5월호에 기고한 '수출진흥확대회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쇠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1968년부터 1977년까지의 기간을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전성기'라고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1965년 이후 약 3~4년 동안 수출확대회의는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내용과 위상 측면에서도 크게 성장했다. 대략 1968년을 전후로 한 시점이 되면 수출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정책기구로 자리를 잡는다. 이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1977년경까지 확대회의는 이러한 모습을 유지한다.

수출확대회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이 10여 년 동안에 수행한 기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수출입 실적과 관련 정책의 보고 및 점검'이었다. 연중 거의 빠짐없이 매달 말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 회의는 보통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 시간 중 80%는 상공부와 외무부 담당자가 수출 관련 실적을 보고하고 향후 수출증진을 위해 마련된 정책과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데 쓰였다.

김 교수는 이 점에서 수출확대회의의 실체가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매우 달랐다고 봤다. 그동안 국민에게 알려진 수출확대회의는 민간과 정부가 수출과 관련해 대통령 앞에서 '난상토론'을 벌이는 장이었고, 이를 통해 수출과 관련된 많은 장애가 제거됨으로써 수출증진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회의에서 건의와 토론은 2시간 회의 중 10~15분에 불과했으며, 심지어는 민간 측 발언이 전혀 없었던 회의가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건의가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 정부당국자가 응답하거나 추후 검토를 하겠다는 언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난상토론처럼 전개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렇다고 정부와 민간의 교류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교류는 확대회의의 준비 과정에서 이뤄졌다. 상공부 상역국을 중심으로 한 담당 공무원들은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많은 민간 인사들을 만나 현황을 파악하고 수출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조사했다.

● **주문대로 해결해주는 '도깨비방망이'** =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위상이 커지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집착에 가까운 수출에 대한 관심 덕분이었다. 수출이 잘 될 수 있다면 수출진흥확대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었다. 회의 이전에 어느 정도 사전검토를 거치기도 했지만 다소 무리하다 싶어도 대통령이 "그건 상공부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관계 부처가 협조를 안 할 수 없었다. 대통령이 특별히 상공부 편을 들지 않았지만,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관계 부처도 상공부 안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각종 행정절차와 규제는 물론, 무역금융 단가 조정을 비롯해 외환, 조세, 금융 등 수출에 관련되는 거의 모든 시책이 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됐다.

무역진흥확대회의로 개편돼 산업계 대표들도 참석하게 된 1977년 이후에는 회의에 참석한 업계대표가 건의하는 사항도 대부분 즉석에서 해결됐다. 부처 간 실무협의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사안도 확대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곧바로 결론이 났다. 관계 부처가 반대할 것이 뻔한 사안은 부처 간 협의 없이 바로 수출진흥확대회의에 올라가는 일도 있었다. 수출진흥시책에 관한 한 무엇이든 주문대로 해결해주는 '도깨비방망이'였다.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이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다 보니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상공부 이외의 경제부처는 확대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을 사전에 입수하기 위해 고심했다. 안건을 미리 알고 있어야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에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다 보니 재무부나 경제기획원의 국장들이 소관 업무가 수출확대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는 낌새가 있으면 상공부 수출진흥과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과장 또는 사무관을 수시로 상공부에 보내 내용을 알아보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 **'손바닥 자료'가 만든 가장 빠른 수출입통계** =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수많은 일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손바닥 자료'로 통했던 〈수출입일보〉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수출입일보〉를 챙겼다. 1970년대 중반 전국에 가뭄이 들자 대통령이 매일 확인하는 통계에 일기예보와 지역별 강우량이 보태졌다. 이 바람에 김정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매일 아침 상공부에 〈수출입일보〉를 독촉하고 관상대에 전화를 걸어 그날의 일기예보와 전날 밤의 지역별 강우량을 파악하는 것이 일과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어느 땐가는 김 비서실장이 아침 업무보고 때 〈수출입일보〉를 빠뜨렸다가 불호령을 맞았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처럼 매일 아침 비서실장을 통해 〈수출입일보〉를 보고 받으면서도 상공부 장관을 만나면 그날의 〈수출입일보〉와 그해 들어 당일까지의 누계 수출실적을 불쑥 묻곤 했다. 자연히 상공부 장관은 〈수출입일보〉를 손바닥 크기로 만들어 상의 윗주머니에 휴대하고 다녔고, 대통령 면담 예정이 없는 날 갑자기 손바닥 자료를 만들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상공부 직원들은 그날 장관이 어느 행사장에선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수출입 일보가 발전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매월 1일 전월 수출입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월간 수출입 실적은 미국, 일본, 중국 등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자료라고 하는데, 박 대통령의 일화가 국가 경제의 핵심 유물로 자리 잡았다.

● **'수출' 떼어내자 경제 위기 닥쳐** = 거의 매달 개최된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수출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한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은 1965년 1억 달러에서 1977년 100억 달러로 불과 10여 년 만에 기적적인 100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또한, 1972년 곡물 파동과 1973년, 1979년 오일 쇼크로 대외 수출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업종별 돌파구를 찾는 전략기지 역할을 했으며, 1973년 중화학공업 선언을 이끌어내며 전체 산업구조 혁신을 주도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수출만을 강조할 수 없었다. 김 교수의 기고로 돌아가 보면,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77년을 정점으로 변신을 위한 모색을 시작한다.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그 이전에 추진해온 '수출제일주의' 정책은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수출이 가져온 국민의 소득증대와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요구들, 수출지상주의가 가져온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고려하지 않고선 국민의 동의와 지지 속에 수출을 증진하는 것이 더는 가능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의 수출은 민간 주도에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그해부터 회의 명칭을 '무역진흥확대회의'로 명칭을 바꿔 수출업계 대표들도 참석하는 회

1977년 무역진흥확대회의. 【사진=국가기록원】

제1회 수출의 날을 알리는 조형물. 【사진=국가기록원】

1967년 제8차 수출진흥확대회의 【사진=국가기록원】

탄생 60년 '수출확대회의'로 본 무역사

안건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해결되던 '도깨비방망이'

의로 확대했다. 하지만 결과론으로 본다면, 무역진흥확대회의로의 전환은 수출회의의 쇠퇴를 가져왔다. 여기에 2년 후 박정희 대통령의 별세까지 더해지면서 수출회의의 전성기는 쉼표에 가까운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출회의의 명칭은 매번 바뀌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수출'이라는 단어가 떼어졌다는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1981년 3월에는 무역진흥확대회의가 '무역진흥월례회의'로 개편됐다. '월례회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1980년대 한국 수출은 저유가 · 저금리 · 저환율 등 이른바 '3저 효과'를 바탕으로 고성장세를 유지하며 1986년 처음을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고, 비슷한 시기에 86아시안게임에 이어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가 경제력을 대외에 과시하던 시기였다. 이러다 보니 무역월례회의는 부정기적으로 명맥만 유지해오다가 1986년 7월 이후에는 아예 중단됐다.

● 열리지 않은 '수출회의' =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3저 효과도 사라지자 1989년부터 한국의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국제사회의 견제에 따라 수출실적은 줄어드는 반면 여행 자유화와 수입소비재 제품 등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4년 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여기에 국내에 불어닥친 민주화 요구와 노사갈등 등 사회적 격변까지 더해졌다.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그해 9월 22일 중단 38개월 만에 수출회의를 주재했다. 명칭은 '무역동향보고회의'였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무역업계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데통령이 무역동향보고회의를 주재, 민관합동으로 수출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수출부양 대책을 강구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무역동향보고회의를 분기마다 주재해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둔화와 무역적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가 감지되었는데도 말이다.

● 수출회의 개최 한 달 앞두고 '신경제회의'로 둔갑 = 수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김영삼 정부 때에도 이어졌다. 특히, 1993년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김영삼 대통령 주재 '신경제 국제화전략회의'는 당초 '수출진흥종합대책회의'라는 명칭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을 앞두고 수출진흥이었던 주제가 국제화로 바뀌면서 명칭도 바뀌었다. 안그래도 수출 부진에 애를 태우고 있던 상공자원부 관계자들은 양어깨에 힘이 풀렸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 주제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진흥대책이 워낙 범위가 좁은 데다 자칫 정부 주도형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연상시킨 선진국들로부터 '아직도 인위적인 수출촉진을 쓴다'는 비난과 함께 통상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출촉진대책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포괄적인 국제화 및 개방화 의지까지를 포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게 가장 유력한 설명이다.

이에 당시 상공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도 최근 수출지원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 수출업체의 사기를 살려줄 수 있는 가능한 지원책을 총동원해도 올 수출목표 달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 김대중 대통령 총력 수출로 IMF 위기 극복 = 대통령 주재 수출회의는 국가 경제, 특히 수출이 악화하는 위기 때마다 열려 수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기업의 사기를 돋워주기 위해 개최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다른 대통령들은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종의 일회성 이벤트성격으로 열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국가 경제 위기 속에서 수출회의가 열린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발발이라는 국가 부도 위기 사태 속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1998년 취임 선서 직후 한 달여 만인 3월 27일 한국종합전시장(KOEX, 현 코엑스)에서 처음 열린 회의의 이름은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였다. '투자'라는 단어가 명칭에 처음 사용됐다. 하루아침 만에 변한 경제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확대도 중요하지만, 취약해진 국내 산업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중단기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또한 외국기업 관계자들도 동석해 한국 투자 애로 요인과 개선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2000년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주재하는 등 수출에 주력해 이듬해 IMF 관리체제 조기졸업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 4월 27일 1차 '무역진흥확대회의'를 주재했다. 김대중 정부의 수출정책을 대부분 이어받았지만 차이점은 지방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점에서 한발 앞서갔다. 집권 기간 내내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가 연간 수출 20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으나 대 · 중소기업 간 또는 수도권 · 비수도권 기업 간 실적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출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줄여 모든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어 회의 명칭에 '진흥'을 넣었다. 실제 무역진흥회의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키우기에 많은 공을 들였다. 집권 기간 총 세 차례의 무역진흥회의가 열렸다.

● 박근혜 대통령 '수출 회의' 부활 꿈꿨지만 = 2008년 정권을 잡은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5월 16일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민간부문 참석자를 업계단체 위주가 아니라 주요 수출 기업인들도 초청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외국 기업인들도 동석했다. 이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이듬해까지 세 차례 개최되었다. 취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발발한 글로벌경제위기로 전 세계를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 격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비상경제정부를 선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비상경제상황실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정부는 다양한 차원의 경제회복 조치들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 '수출희의' 명칭 변경사

박정희 대통령	• 1962년 내각수반 소속 수출진흥위원회 설치 • 1965년 10월 수출진흥확대회의 첫 회의 •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기념 무역진흥확대회의
전두환 대통령	• 1981년 3월 28일 첫 무역진흥월례회의
노태우 대통령	• 1989년 무역동향보고회의
김영삼 대통령	• 신경제 국제화전략회의(1993년 수출종합대책회의 개최 예정했으나 통상 분쟁 우려로 명칭 변경)
김대중 대통령	•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노무현 대통령	• 무역진흥확대회의
이명박 대통령	• 무역투자진흥회의
박근혜 대통령	• 무역투자진흥회의
문재인 대통령	•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대통령 주재 안함)
윤석열 대통령	• 수출전략회의

수출 회의의 화려한 부활을 꿈꿨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과 동시에 투자 활성화 기치를 내걸고 그해 5월 1일 첫 번째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무역투자회의를 매분기 개최하겠다고 강조할 만큼 이 회의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임기 동안 열린 11차례 무역투자진흥회의 가운데 1~10회 회의를 모두 직접 주재하며 챙겼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무역투자회의가 수출 중심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투자 활성화가 핵심이었다.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10차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총 943건의 분야별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644개 과제의 추진이 완료됐고 216개는 정상 추진 중이며 83개 과제만이 법률안 국회 계류, 이해관계자 간 이견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의 투자 지원으로 벤처 기업 수가 3만 개를 돌파하는 등 제2의 벤처 · 창업붐이 조성됐으며 의료 · 관광 등 유망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으로 서비스 산업의 고용 ·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화려한 성적이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고,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성과도 평가절하되었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회의를 단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다. 민관합동이라는 형식을 빌려 '수출전략회의'가 열리긴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윤석열 대통령, 46년 만에 '수출회의' 이름 복원 = 2022년 11월 23일 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로 돌아오자, 정부는 이날 '전 부처의 산업부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ICT(과기부), 바이오(복지부), 원전(산업부), 방산(국방부), 해외 건설(국토부) 등 부처별로 유망 · 전략 분야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개 수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부처별 수출 지원 계획과 협업 과제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무역 적자의 주범인 에너지 수입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수출 회의는 모든 정권 때마다 항상 국가 경제의 중추인 수출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가 철폐되어 수출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6103억 달러(약 825조 원), 수입은 6503억 달러로 누적 무역적자는 400억 달러에 이른다.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1996년(206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무역 적자는 에너지 수입 가격 폭등 탓이 컸지만, 최근엔 수출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주재한 수출전략회의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회의 명칭에 '수출'로 시작하는 것은 1976년 수출확대회의 이후 46년 만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상 위험 때문에 수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기도 했다. 부활한 수출전략회의에서 과연 어떤 진흥책이 나올지 궁금하다.

글로벌이코노믹 채명석 기자

2023년 눈길 끄는 전시회 국 내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과 2021년은 전시업계에 암흑기와도 같은 시간이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의 전시회가 취소 · 연기되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고, 국가 간 이동 제한과 혼란스러운 물류 일정, 치솟는 물류비에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22년에는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국내외 전시산업이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국내에서 하반기에 개최된 전시회들은 참가업체나 방문객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90% 수준까지 정상화됐다. 해외 전시회 역시 아직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시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점을 빼면, 대체로 '국제 비즈니스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되찾았다.

전시회는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트렌드를 공유하고 기업과 상품을 홍보하며 네트워킹하는 창구로, 기업들의 국내외 마케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기간 온라인 전시회가 비약적 발전을 했지만, 고객과의 대면 네트워킹과 신뢰관계 강화, 상담 및 계약 등의 성과 면에서 오프라인 전시회와 비교할 수 없다. 2023년 국내외 산업전시회가 기대되는 이유다.

2023년 주목할 만한 전시회를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 전시회 5개를, 다음 호에는 해외 전시회 5개를 각각 선정했다. 한국무역신문 전시팀

사전 참가신청 크게 늘어 전시규모 30% 확대

인터배터리 2023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한국전지산업협회, 코엑스, KOTRA
- 일자 : 3월 15~17일
- 장소 : 코엑스 A, B, D홀

코로나19 기간에도 성장을 이어온 국내 유일의 전지산업전시회 '인터배터리(InterBattery)'가 내년 전시 규모를 30% 확대하며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된다.

2013년 처음 열린 '인터배터리'는 국내외 이차전지산업을 조망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배터리재팬'(일본), 'CIBF'(중국)과 함께 세계 3대 배터리 전시회 중 하나로 우뚝 섰다.

'인터배터리 2022'는 3월 17~19일 코엑스(A홀)에서 3일간 열렸다. 198개사가 664부스로 참가했고 전시면적도 전년 대비 38% 늘었다. 행사 사흘간 전시장을 찾은 참관객은 총 4만102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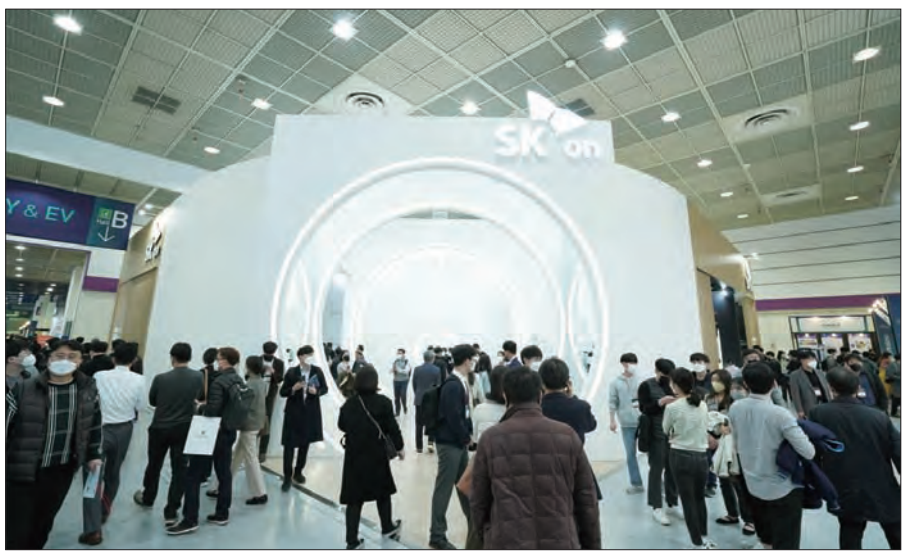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글로벌 배터리 3사가 모두 출품했고, 소부장 부분에서는 포스코케미칼, 엘앤에프, SK넥실리스, 원준, 성일하이텍 등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다.

행사 기간 KOTRA는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위한 'KOTRA K-소부장 수출대전'을 운영했다. 이 행사에는 국내 참가업체 39개사와 해외바이어 55개사가 참여해 총 120건의 상담과 2만2900만 달러의 상담액, 1만2400만 달러의 계약추진액을 달성했다.

전기차 전시회 'xEV 트렌트 코리아', '더 배터리 콘퍼런스 2022', '배터리 잡페어', '1:1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인터배터리 2022'와 동시에 진행됐다.

'인터배터리 2023'은 올해 전시 기간에 126개사(720개 부스)가 조기 참가신청을 완료하며 2022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주최 측은 '인터배터리 2023'이 내년 3월 15~17일 A · B · D홀로 전시장을 확대해 300개사 1000부스 규모로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최 측 관계자는 "K-배터리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내년 전시회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참가를 신청한 CATL을 비롯해 파나소닉, 노스볼트 등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No.1 전시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터배터리 2022' 전시 현장. 【사진=인터배터리 전시사무국】

한국 최대 의료기기산업전… 융복합 의료산업 미래

국제의료기기 · 병원설비전시회(KIMES)

- 주최 : (주)한국이앤엑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일자 : 3월 23~26일
- 장소 : 코엑스 전관, 그랜드볼룸, 로비

'제38회 국제의료기기 · 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는 1980년 첫 회를 시작으로 한국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온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전시회다. 2022년 행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로 건강과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복구에 초점을 맞췄다. '키메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곳(KIMES, Where New Hope Begins)'을 주제로 코엑스 전관(A, B, C, D홀)과 그랜드볼룸에서 4만500㎡ 규모로 열렸다. 대기업과 빅테크기업, 스타트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넘어 전문 의료기기 시장까지 진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첨단 의료산업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었다.

국내외 대표기업 1200여 개사가 참가해 첨단 의료기기와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 · 재활기기, 관련 의료용품 등 3만여 점을 선보였다. 의료기기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수출상담회가 KOTRA와의 협업을 통해 온 ·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 상담회에는 해외바이어 415개사와 참가기업 200개사가 참가했다. 10월 부산에서는 'KIMES 부산 2022'이 'KIMES 2022'의 4분의1 규모인 250개사 1만㎡ 규모로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됐다.

'KIMES 2023'은 로비 공간까지 활용해 올해보다 확대된 규모로 3월 23~26일 나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IMES 부산 2023'은 10월 13~15일 벡스코서 열린다. 출품문의는 전시회 사무국(02-551-1020)으로 하면 된다.

2023년 3월 23~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제38회 국제의료기기 · 병원설비전시회'가 열린다. 사진은 2022년 전시회 현장. 【사진=한국이앤이엑스 제공】

유아교육·용품 한자리에… 국내 최대 유아교육박람회

제51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 주최 : 세계전람
- 일자 : 7월 6~9일
- 장소 : 서울 코엑스

'유아교육전&베이비페어'는 유아와 아동용 교육용품과 제품을 한자리에 만나 볼 수 있는 관련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다. 0~10세 자녀의 학부모, 교육기관 종사자, 정부기관 종사자, 기업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내 최대 유아교육 박람회로 꼽힌다.

영유아 교육 · 교구&교재 · 완구 · 라이프스타일부터 원&시설 납품 · 시공 · 유통 · 수출에 이르는 B2B(기업간 거래)까지 아우르는 영유아 프로그램 및 소비재의 중심이 되는, B2B · B2C(기업 소비자간 거래) 전시회다. 올해 7월 코엑스(A홀)에서 열린 전시회는 550개 부스, 1만1088㎡ 규모로 개최됐다. 참관객은 대부분 2세~7세 연령의 유 · 아동 자녀를 둔 20대 후반~40대 초반 부모로 전시회 기간 나흘 동안 5만8000여 명이 방문했다.

특히 윤선생영어, 잉글리시에그 등 언어프로그램과 수학 · 과학 · 예체능 교육프로그램, 완구, 도서, 교재 등 대표적 기업들이 대부분 참가했다. 또 S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도 키즈 전용 브랜드에 집중하면서 유교전에서 각종 이벤트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내년에는 3월(SETEC)부터 5월(송도컨벤시아), 7월(코엑스), 10월(송도컨벤시아), 11월(코엑스)까지 5차례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SKT, LG 등도 유아전용 브랜드를 선보이며 2022년 유교전에 대형 체험공간을 설치했다. 사진은 SKT의 ZEM(잼) 부스. 【사진=SK텔레콤 제공】

명실상부 한국 대표 전자 · IT 산업전시회

제54회 한국전자전(KES 2023)

- 주최 : 산업통상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일자 : 10월 24~27일
- 장소 : 서울 코엑스 A~D홀

내년에 54회째를 맞는 '한국전자전(KES)'은 전자 · 정보통신기술(IT) 산업 역사와 함께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자 · IT 산업전시회다. 기업의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는 추세에 맞추어 네트워킹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끄는 첨단 전자 · IT 산업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미래 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상해 볼 수 있는 최신 정보 교류와 기술 습득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10월 4일부터 나흘간 열린 한국전자전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됐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전시관을 동시에 운영하고 국내외 수출지원전문기관과 협력해 해외 진성 바이어 발굴하고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화상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참가기업 부스를 촬영해 실시간 온라인 홍보와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홍보 마케팅도 지원했다.

약 500여 기업이 1200부스를 마련했고, 7만여 명이 국내외 참관객이 다녀갔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들도 대거 참가해 가전, 정보기기, 솔루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기, 통신, 딥러닝, 부품, 생산제조 기술 등을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KES 2022에 참가해 '스마트싱스', 'C랩 전시관' 등 차별화된 솔루션을 대거 선보였다. 사진은 C랩 전시관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내년엔 베트남에 이어 프랑스까지 영역 확장

'2023 서울카페쇼'

- 주최 : 엑스포럼, 월간커피
- 일자 : 11월 8~11일
- 장소 : 코엑스 전관

'서울카페쇼'는 아시아 최초의 커피 전시회로 출발해 글로벌 대표 커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한 전시회다. 글로벌 커피 및 식음료 시장 동향과 가치 소비 등 최신 트렌드를 한자리서 읽을 수 있다.

11월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서울카페쇼'는 커피 · 식음료 문화 교류와 함께 업계 종사자를 위한 네트워킹, 글로벌 식음료 트렌드와 문화체험의 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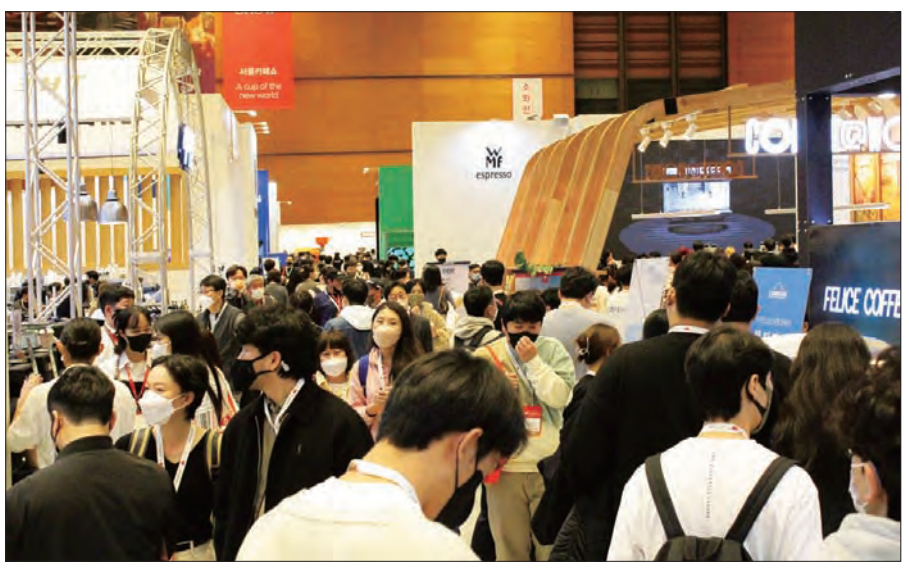
올해 행사는 세계 35개국 627개사 3533개 브랜드가 참가해 역대 최대규모로 참가했다. 가정용 커피 메이커, 커피머신, 바리스타 로봇, 이동형 식음료 배달 로봇 등 개인 소비자와 카페 자동화를 원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제품 등이 대거 출품됐다.

올해 행사는 전시장 내 인원과 시음 제한이 풀리면서 지난해보다 활기를 띠었다. 개막 당일부터 입장객이 줄을 섰고, 폐막일에도 입장 대기시간이 2시간이나 걸리며 커피 및 카페 관련 종사자와 커피애호가들의 높은 기대를 받았다.

'제11회 월드커피리더스포럼', '서울커피페스티벌'의 ▷커피토크 ▷커피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커피 문화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과 소통을 넓혔다.

참가기업과 커피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했고, 24~25일에는 KOTRA와 '글로벌 바이어 수출상담회'을 열고 해외 유망 바이어와의 1:1 미팅도 진행했다.

내년 서울카페쇼는 파리 전시회를 새로 런칭하며 글로벌 프랜차이즈 전시회로서의 역량을 보다 강화한다. 카페쇼 행사 문의는 엑스포럼(02-6000-6720)으로 하면 된다.



2022 서울카페쇼가 열린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 참관객들이 구름처럼 몰렸다. 사진은 서울카페쇼 개막일인 23일 코엑스 1층 전시장. 【사진=조철한 기자】

[2023년 환율 전망]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 여부 주목… 하반기 안정 예상

1. 최근 환율 동향

변동률 확대 및 킹달러 확인한 상관계수

[변동률 및 상관계수] 올해 11월 25일까지 주요 통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하루평균 변동률은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확대됐다. 달러-원 환율과 위안-원 환율의 '전일 종가 대비 하루평균 변동률'은 각각 0.49%, 0.38%를 기록했고 '하루 중 고점-저점 차이의 하루평균 변동률'은 각각 0.61%, 0.44%를 기록했다. 아울러 엔-원 환율의 '전일 오후 3:30분 매매기준율 대비 하루평균 변동률'은 0.53%를 기록했다. 다만, 유로-원 환율의 '전일 오후 3:30분 매매기준율 대비 하루평균 변동률'은 2021년에 비해서는 확대됐으나 2020년에 비해서는 소폭 축소됐다. (표-1 참조)

그리고 달러-원 환율과 달러 인덱스의 상관계수는 0.97을 나타내고 있으며 달러-엔, 유로-달러, 달러-위안, 달러-호주달러 환율과는 각각 0.95, -0.95, 0.96 -0.91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달러는 모든 통화에 대해서 '킹달러'로서의 위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금리 차이 확대에 따른 원화 약세 심화

[달러-원 환율 동향] 올해 1189.50원에 첫 거래가 시작된 달러-원 환율은 2월까지 22.90원의 박스권 범위에서 조용하게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2월 말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고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달러 강세가 추가 진행됐다.

이에 6월 23일 들어서 달러는 급기야 1300원을 웃돌았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연준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고 차이가 확대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추가 급등하며 10월 25일에는 1444.20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즉,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표현이 완전히 무시된 움직임을 보이며 시장에서는 1500원 선 진입에 대한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그러나 11월 들어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달러가 약세로 반전되면서 14일에는 1308.50원까지 낙폭을 확대했고 이후에는 박스권을 형성하며 25일에는 1323.70원에 장을 마감했다. (표-3 참조)

원화 대비 엔화 약세 유지
유로화 강세 전환, 위안화 약세 전환

[이종통화 환율 동향] 올해 엔-원 환율은 일본의 통화완화 정책 유지 고수에 따른 엔화 약세 폭이 원화 약세 폭에 비해 컸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는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11월 들어서는 원화 강세가 엔화 강세보다 심화함에 따라 11일 장중에는 930.00원을 밑돈 후 25일 오후 3시 30분 매매기준율이 954.47원에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3 참조)

그리고 원화 약세가 10월까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로화 역시 9월 말까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유로-원 환율은 박스권 움직임을 유지했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원화 약세 유지-유로화 강세 전환으로 상승함에 따라 27일에는 1430.00원을 웃돌았다. 11월에는 하락, 상승을 반복하며 25일 오후 3시 30분 매매기준율이 1377.97원에 형성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표-3 참조)

한편, 위안화는 10월 초까지 원화에 대해 강세를 유지함에 따라 10월 4일에 위안-원 환율은 202.33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는 반면 원화는 강세를 보임에 따라 11월 25일에는 184.78원에 장을 마감했다. (표-3 참조)

2. 2023년 환율 전망

G2 리스크 포함 불안 요인 주목

[달러-원 환율 동향] 올해 달러-원 환율은 연중 내내 상승하는 움직임을 유지함에 따라 10월 25일에는 1444.20원까지 폭등했다. 이후에는 경기침체 우려 관련 미국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 영향 등으로 20일/60일/120일 이동평균선을 모두 하향 돌파하며 11월 25일 들어서는 1323.70원에 장을 마감했다. 즉,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두 달 열흘가량 급등했던 상승 폭이 한 달 만에 급하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다시 8월 중순 수준으로 돌아오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달러 약세가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아직은 다소 섣부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여전히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연준의 12월 FOMC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준의 3인자로 인정되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내년에도 긴축을 주장하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에 코로나 확산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강력하게 봉쇄령을 단행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상황이 당국의 일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코로나 봉쇄령에 대한 중국 국민의 불만이 여러 지역에서 공격적으로 분출되면서 시진핑 퇴진까지 요구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됨에 따라 위안화 약세 확대, 중화권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권 증시 약세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소강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푸틴이 70만 명 추가 징집을 계획하는 등 추가 확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러시아발 에너지 리스크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리스크가 특히 유럽 경제의 물가 상승 등 불안감을 가중할 경우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화가 다시 약세로 급반전될 가능성 또한 열어둬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 지속에 우리 무역이 적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20일 현재 올해 무역수지는 399억6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불안할 때는 무역적자 확대 가능성 또한 열어둬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무역수지, 경상수지 악화는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긴축 정책 유지 이외에 직접적으로 환율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다.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 주목

다만, 최근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2년 만기 국채수익률보다 0.78%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를 경기침체 전조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향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경제가 정상화할 가능성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정 기간 후에 달러에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환율 점검

지난 9월까지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표현이 무시된 움직임을 보였으나 10월 이후에는 이 표현이 적용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후 1320원~1340원 범위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며 횡보하고 있다, 이는 현재 매수, 매도 세력이 균형을 이루며 12월 미국 FOMC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 10월에 좁은 상하한선 안에 갇혀서 박스권 움직임을 전개했고 11월 들어 상하한선이 확대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추세중심선을 뚫고 하향 돌파한 후 하한선 근처에 머물다가 다시 상하한선 안으로 갇힌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12월 미국 FOMC 결과에 따라 어느 쪽으로든 균형을 깨고 새로운 추세가 형성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단 향후 볼린저 밴드의 상하한선 축소 여부를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만약에 12월 FOMC가 파월 연준 의장의 11월 30일 발언에 이어 비둘기적 모습으로 이어질 경우 상하한선이 추가 확대되고 달러-원 환율의 하한선 하향 돌파로 하락 압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가 하락 압력이 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요인들로 인해 상반기 내내 하단이 꾸준히 지지되며 하락 변동성을 제어할 전망이다.

이상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달러-원 환율은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11월 30일 브루킹스 연구소 발언으로 하락 압력이 있을 것 같고 12월 미국 FOMC 결과에 따라 2023년도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하락, 상승의 잔물결 속에서도 지속해서 하단이 지지되는 움직임을 전개할 전망이고 하반기 들어서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달러 강세는 하반기 들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본다.

이 석 재
한국무역협회 TradeSOS
외환 상담 전문위원

■ [표-1] 통화별 일평균 환율 변동폭 및 변동률

*2022년 11월 25일 기준

구 분	연도별	달러-원		엔-원		유로-원		위안-원	
		변동폭	변동률(%)	변동폭	변동률(%)	변동폭	변동률(%)	변동폭	변동률(%)
전일 대비	2020	5.00	0.42	5.71	0.51	5.94	0.44	0.54	0.31
	2021	3.63	0.32	3.69	0.35	3.72	0.27	0.43	0.24
	2022	6.37	0.49	5.22	0.53	5.56	0.41	0.73	0.38
일 중	2020	6.65	0.56					0.65	0.38
	2021	5.17	0.45					0.58	0.32
	2022	8.03	0.61					0.85	0.44

■ [표-2] 달러-원 vs 달러 인덱스 및 통화별 환율 상관계수

*2022년 11월 25일 기준

구 분	달러 인덱스		달러-엔		유로-달러		달러		달러-위안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2022	0.97	0.92	0.93	0.93	-0.96	-0.83	0.91	0.85	-0.57	-0.88
	0.97		0.95		-0.95		0.96		-0.91	

■ 2023년 달러-원 예상 거래범위

- 2차 지지선 : 1200원 // 1차 지지선 : 1230원
- 2차 저항선 : 1400원 // 1차 저항선 : 1370원

■ [표-3] 통화별 환율 동향

구 분	환 율 (종가 기준)			
	달러-원	엔-원	유로-원	위안-원
2021.12.30	1188.80	1032.39	1345.66	186.63
2022.11.25	1323.70	954.47	1377.97	184.78
증 감 폭	134.90	-77.92	32.31	-1.85
증감률(%)	11.35	-7.55	2.40	-0.99

신차출고, 최소 6개월? 하모니렌트카는 즉시출고!

하모니렌트카
HARMONY RENTCAR

하모니렌트카는 특별합니다.

- 동반차 신차 장기렌트
  대기없이! 심사없이! 상황별 맞춤상품!
- 동반차 중고재렌트
  전문 정비사가 관리하는 믿음직한 렌트카!
- 실시간 견적
  원하는 차량과 옵션으로 확인하는 렌트료!
- 신뢰가 기본, 하모니렌트카!
  렌트 고민은 하모니렌트카로 해결하세요!

동반차는 '함께, 더불어'의 의미를 담은 무심사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렌트 문의 1661 - 9763

상호 : (주) 하모니렌트카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한강자이타워 B동 901호
사업자번호 : 109 - 86 - 31667 대표 : 김연운 | 렌트문의 : 1661 - 9763 | 고객센터 : 1588 - 5802
이메일 : harmony_rentcar@naver.com | 팩스 : 02 - 6442 - 7977

무역의 날 특집

한국무역신문 제748호 2022년 12월 5일

- 10가지 뉴스로 돌아보는 2022년 우리 무역 20~21면
- 10가지 뉴스로 돌아보는 2022년 세계 무역 22~23면
- 탄생 60년 '수출확대회의'로 본 무역사 24~25면
- 2023년 눈길 끄는 전시회 26~27면
- 2023년 환율 전망 28면
- 수출의 탑 수상업체 / 훈포상 수상자 명단 31~37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출의 탑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상훈(왼쪽부터, 7천만불) (주)코스알렉스 대표이사, 강철구(1억불)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남(1100억불)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문재인 대통령, 김창한(8억불) (주)크래프톤 대표이사, 서명득(7천만불) 에이치라인해운(주) 대표이사, 한상민(2천만불) (주)한영넉스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1200억불탑 새 역사를 쓰다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 에스케이하이닉스도 300억불탑 '반도체 잔치'

■ 수출의 탑 수상업체 수 (단위 : 개사)

수출탑	2021년	2022년
1200억불탑	0	1
1100억불탑	1	0
300억불탑	0	1
30억불탑	1	0
20억불탑	0	3
10억불탑	5	6
9억불탑	0	0
8억불탑	2	2
7억불탑	2	2
6억불탑	3	1
5억불탑	1	7
4억불탑	2	9
3억불탑	7	10
2억불탑	11	13
1억불탑	36	31
7천만불탑	14	42
5천만불탑	28	47
3천만불탑	65	76
2천만불탑	79	104
1천만불탑	199	240
7백만불탑	147	172
5백만불탑	191	213
3백만불탑	264	265
1백만불탑	516	535
계	1573	1780

삼성전자 박학규 사장 외 3인 금탑산업훈장

한국무역협회는 12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에 기여한 우리 수출기업과 유공자를 치하하는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1200억불 수출의 탑을 비롯해 총 21종의 수출의 탑이 1780개 업체에 수여됐다. 또 금탑산업훈장 등 5종의 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등이 수출 유공자들에게 수여됐다. 수출탑은 그해 수출 유공업체(기업)들에게 주어지는 포상이며 훈장이나 포장, 표창은 수출유공자 개인에게 수여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초로 12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무역의 날에 1100억불탑을 받은 바 있으며 그동안 무역의 날에 '수출의 탑 새 역사'를 써 왔다. 삼성전자는 1995년 제조업체로는 처음으로 100억불탑을 받은 이후 2000년 150억불탑, 2001년 200억불탑, 2003년 250억불탑, 2004년 350억불탑, 2005년 400억불탑, 2007년 450억불탑, 2008년 500억불탑, 2011년 650억불탑, 2014년 750억불탑, 2018년 900억불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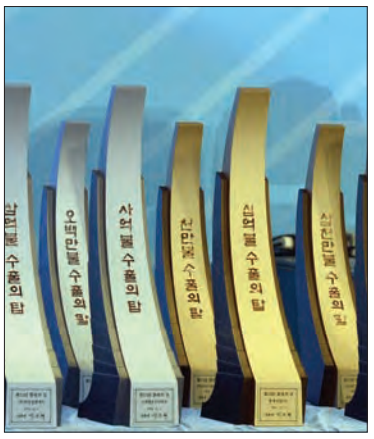
에스케이하이닉스가 300억불 수출의 탑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스디바이오센서, 한화솔루션이 20억불 수출의 탑을, 심텍,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엘엑스세미콘, 크래프톤, 희성피엠텍이 10억불 수출의 탑을 각각 받았다.

수출의 탑 수상업체는 모두 1780개 업체로 지난해보다 207개 업체가 늘었다.

수출유공자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박학규 사장, 희성피엠텍 정경오 대표이사, 대성하이텍 최우각 회장, 디케이락 노은식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 서울전선 이장열 대표이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김영기 전무, 금호폴리켐 김선규 대표이사, 지에스칼텍스 허세홍 대표이사, 금호미쓰이화학 류재혁 상무, 포스코인터내셔널 박혁상 상무가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롯데케미칼 조태호 파트장, 에스케이하이닉스 박찬동 부사장, 에드워드코리아 정용호 상무, 포스코 김경한 전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지종립 사장, 삼광 김진우 대표이사, 비지에프리테일 이건준 대표이사, 신성오토모티브 이민수 대표이사, 수산이앤에스 한봉섭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올해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수상업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다. 최근 10년 수상업체 수를 보면 ▷2011년 1929개 ▷2012년 1742개 ▷2013년 1526개 ▷2014년 1481개 ▷2015년 1328개 ▷2016년 1209개 ▷2017년 1153개 ▷2018년 1264개 ▷2019년 1329개 ▷2020년 1505개 ▷2021년 1573개사 ▷2022년 1780개사다. 김영채 기자



무역의 날

올해 59회째인 '무역의 날'은 한국이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수출의 날'로 지정한 것이 기원이다. 1986년에는 무역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고 이듬해인 1987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역의 날'로 변경됐다.

1988년부터는 KOTRA에서 한국무역협회로 주관기관이 바뀌어 행사를 치르고 있다. 이후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을 기념하여 무역의 날은 12월 5일로 변경됐다.

무역의 날에는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무역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한다.

수출의 탑은 전년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출기업의 실적에 따라 수여하는데, 올해는 '1백만불탑'부터 '1200억불탑'까지 총 21종이다.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 · 종업원을 위한 10종의 수출업체 포상(훈장 · 포장 · 표창)도 마련돼 있다. 김영채 기자

수출의 탑 · 훈장 · 포장 · 표창 수상자

수출의 탑 수상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1200억불탑	
삼성전자(주)	한종희
300억불탑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박정호
20억불탑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지종림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이효근
한화솔루션(주)	남이현
10억불탑	
(주)심텍	최시돈
(주)에코프로비엠	주재환, 최문호
(주)엘앤에프	최수안
(주)엘엑스세미콘	손보익
(주)크래프톤	김창한
희성피엠텍(주)	정경오
8억불탑	
대덕전자(주)	신영환
한국알프스(주)	강동완
7억불탑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장인아
금호미쓰이화학(주)	온용현
6억불탑	
해성디에스(주)	조병학
5억불탑	
(주)경동나비엔	손연호
(주)비에이치	이경환
금호폴리켐(주)	김선규
송원산업(주)	김충식
주식회사 에코프로이엠	박종환
포스코스틸리온주식회사	윤양수
현대글로벌서비스(주)	이기동
4억불탑	
(주)대동	김준식
(주)에프앤에프	김창수
(주)피엔티	김준섭
삼양식품 (주)	김정수
에드워드코리아(주)	윤재홍
주식회사세아엠앤에스	마정락
티케이지휴켐스(주)	김우찬
파주전기초자(주)	토미오카 마사루
하나마이크론(주)	이동철
3억불탑	
(주)단석산업	한승욱
(주)바이오노트	조병기
(주)센트랄	윤용호, 이호영
(주)실리콘마이터스	허 염
(주)이녹스첨단소재	장경호
(주)한솔케미칼	박원환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배 원
삼강엠앤티(주)	송무석
주식회사디엔오토모티브	김인환
주식회사바커케미칼코리아	조달호
2억불탑	
(주)바텍	김선범
(주)엠티어	심성준
(주)코아시아씨엠	김태섭
(주)티와이엠	김희용
그로발스타로지스틱스(주)	진병수
더블유씨피(주)	최원근
동원시스템즈(주)	조점근
리노공업(주)	이채윤
에스앤와이글로벌(주)	최원석
에이치라인해운(주)	서명득
오스템임플란트(주)	엄태관
켐코(주)	최제임스성
태광후지킨(주)	김영호
1억불탑	
(주)거상	문제희
(주)넥스플렉스	박동원
(주)뉴프렉스	임우현
(주)라모스테크놀러지	조장호
(주)루트로닉	황해령
(주)메가젠임플란트	박광범
(주)세아씨엠	김동규
(주)신안천사김	권동혁
(주)쎄믹스	유완식
(주)아이엠에스코퍼레이션	김민상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김윤태
(주)엔에이치인터내셔널	김호석
(주)유피케미칼	손수익

업체명	대표자명
1억불탑	
(주)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성상엽
(주)정광아이엔씨	박중원
(주)퓨트로닉	고진호
SK바이오팜(주)	조정우
디에스알(주)	홍석빈
디와이파워(주)	박치웅
로얄캐닌코리아(유)	CAI XIAODONG
모락스트레이딩(주)	김기성
미원화학(주)	정규식
민팃(주)	하성문
신성통상(주)	염태순
엘티소재(주)	이주동
제이에스테크(주)	최겸우
주식회사 제주반도체	박성식, 조형섭
주식회사엔켐	오정강
태광정밀화학(주)	김일순
한전원자력연료(주)	최익수
韓國昭和化學品株式會社	에모리미츠요시
7천만불탑	
(주)대성하이텍	최우각
(주)맥선	박봉준
(주)맬콤인터네셔널	주겸목
(주)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장슈쥔
(주)빅솔론	노현철
(주)빙그레	전창원
(주)세고스	박윤식
(주)솔머퓨처	공동준
(주)신신사	최상기
(주)실리콘투	김성운
(주)씨케이솔루션	안근표
(주)아이디스	김영달
(주)에스씨민이노베이션	김상대
(주)에이치피에스피	김용운
(주)인텍플러스	이상윤
(주)중일	박용필
(주)케이에스엠	김윤호
(주)켐원코퍼레이션	신식우
(주)코넥	공성황
(주)티에스아이	표인식
(주)하나기술	오태봉
가온브로드밴드 (주)	전대석
데브시스터즈(주)	이지훈
동아화성(주)	임경식, 성락제
동진상선(주)	오용환
디와이씨주식회사	이종훈
범주해운(주)	이상복
새솔다이아몬드공업(주)	맹주호
서울전선(주)	이충열,이장열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주식회사	안정범
에이치비솔루션(주)	이재원
에이펫(주)	김덕호
일신케미칼(주)	김진웅
정우금속공업(주)	이광원
주식회사 원익큐엔씨	백홍주
주식회사광천김	김재유
주식회사이노폴	윤범식
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주)	이종화
티이엠씨(주)	유원양
파테크	박남명
하나머티리얼즈(주)	오경석
한진철관(주)	이형석
5천만불탑	
(주)S-Tech	박진섭
(주)굿트러스트	박영근
(주)다원알로이	고이석
(주)대창식품	정현택
(주)더마펌	한윤재
(주)두맥스	전원배
(주)디씨이	최동철
(주)디에이치씨앤에어	김용우
(주)레이	이상철
(주)베이글코드	윤일환
(주)비츠로이엠	장택수
(주)스마일게이트알피지	지원길
(주)에스티인터내셔날	안태영
(주)에프앤코	김창수
(주)오성전자	김인규, 하택선
(주)오토닉스	박용진
(주)유진메디케어	민병욱
(주)제노레이	박병욱
(주)제이시스메디칼	강동환
(주)젤텍	양주환
(주)지화이브	김신범
(주)진양오일씰	이명수
(주)키프로	문성식

업체명	대표자명
5천만불탑	
(주)태상	김광표
(주)테이팩스	김상구
(주)티케이씨	박용순
(주)파미	황석용
(주)포스뱅크	은동욱
(주)포인트모바일	강삼권
(주)한강메탈	홍정희
KAF(주)	오용석
경북통상(주)	김유태
다산기공(주)	김병군
대진반도체(주)	박성서
디케이락(주)	노은식
부천공업(주)	강경필
삼보프라텍(주)	정연호
세광인터내셔날네트워크(주)	박경수
씨제이올리브영(주)	구창근
주식회사삼화	조성환
주식회사수젠텍	손미진
케이넷(주)	서성남
쿠쿠전자(주)	구본학
쿠쿠홈시스(주)	구본학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박상일
현대중공업터보기계	김동수
화성금속공업(주)	김인규
3천만불탑	
(주)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주)애드엑스	강율빈
(주)엠에이치수산	강욱구
(주)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주)강원엔티에스	전창열
(주)극동엠이에스	홍현득
(주)나인벨	최문수
(주)네오바이오텍	허영구
(주)넥스틴	박태훈
(주)대하전선	하병철
(주)데코산업	이관영, 김기성
(주)디비코포레이션	김성준
(주)라바상사	남종현
(주)리버	김명환
(주)미래그린케미칼	조희성
(주)미르기술	박찬화
(주)복스트라	홍석민
(주)봉산	김명중
(주)비이케이물산	김욱성
(주)상진테크	진승욱
(주)세림전자	이용국
(주)세쓰요아스텍한국지점	KISHIMOTO TETSUYA
(주)신성엔지니어링	박대휘
(주)씨앤씨인터내셔널	배은철
(주)에스앤씨코퍼레이션	박형준
(주)에스에스피	이규호
주식회사 케이타운포유	송효민
(주)에이치제이	윤세원
(주)엠아이텍	박진형
(주)엠케이켐앤텍	권혁석
(주)영진하이텍	김영호
(주)유을	박혜진
(주)이에스씨에스	이동훈
(주)장유	한완수
(주)제로투세븐	김정민, 조성철
(주)제일	윤홍현
(주)제일화성	임종일
(주)코와이어	황재철
(주)탑머티리얼	노환진
(주)티르티르	이보희
(주)티에스이	민병국
(주)파리크라상	황재복
(주)파마리서치	강기석
(주)판디아메디텍	변준석
(주)피제이메탈	원경연
(주)해광	김한수, 김면수
(주)희창유업	박창현
농업회사법인(주)에버굿	김한상
대광산업(주)	고승대
대리정밀(주)	김대열
동진기업(주)	양오열
디와이이노베이트(주)	이승창
롯데렌탈(주)	김현수
린데코리아 (주)	성백석
비전세미콘(주)	윤통섭
삼일방(주)	노희찬
세일공업(주)	최영태
씨엠인더스트리 유한회사 (영업소)	강호정

업체명	대표자명
3천만불탑	
안성공업(주)	임경석
에스엠스틸(주)	김기호
에이치설퍼(주)	유선경
엔에이치케미칼(주)	김정규
오리온에너지(주)	윤희근
우진선박(주)	정지원, 정성헌
위시컴퍼니(주)	박성호
이든인터내셔널(주)	김영민
주식회사 레이크머티리얼즈	김진동
주식회사구마자원	최혜진
주식회사비.엘.아이	서경아
주식회사태성	김종학
지에스에코메탈주식회사	김영필
토와한국(주)	한상윤
프리닉스(주)	노광호
한국쿠제(주)	엄재철
한호산업(주)	강동한
현대무벡스 (주)	현기봉
2천만불탑	
(주)나경	차윤근
(주)원우이엔지	서병일
(주)남궁튜나	김민의
(주)대평	김경재
(주)더한인터내셔날	전유진
(주)도도액티브코리아	서강자
(주)두본	이대희
(주)두성글로벌	강진핑
(주)두원테크	이대원
(주)디에스테크노	안학준
(주)렛잇뷰티	박준성
(주)미팜	권종욱
(주)범우정밀	이점범
(주)베스트부품	황대진
(주)보우테이프	육태규
(주)부쉬매뉴팩처링코리아	유승화
(주)블루웨일인터내셔널	정의석
(주)빅토리아텍스타일	임정묵
(주)삼천리기계	서홍석
(주)신성프리시젼	최영식
(주)신원플라텍	박성규
(주)신풍산기	김태성
(주)씨스토어	임창현
(주)씨유메디칼시스템	김형수
(주)아이티씨	김경숙
(주)아인스시스템	이승현
(주)알킨스	노진환
(주)알파홀딩스	김종인
(주)양현무역	이규득
(주)엔픽셀	배봉건
(주)엠에이치엘코리아	임철영
(주)오다메드	김정구
(주)오알켐	이재현
(주)옥산아이엠티	조동원
(주)와이엠텍	김홍기
(주)원에스티	이택원
(주)위즈네트	이윤봉
(주)윌비에스엔티	김진우
(주)융진	이상근
(주)이노메트리	이갑수
(주)이루다	김용한
(주)이엔플러스	안영용
(주)제테마	김재영
(주)지우텍	윤인노
(주)진영	심영수
(주)청광신소재	최정환
(주)케이제이에이치앤비	지영중
(주)켐오일	채홍룡
(주)코리아인스트루먼트	최준영
(주)코스메티나	황치훈
(주)코아메탈	김명환
(주)코엠에스	황선오
(주)테라베이	이상규
(주)트리노테크놀로지	오광훈
(주)트리플코어스코리아	김익년
(주)티씨씨통상	손희전
(주)하이필	권상오
(주)한국파워셀러	조언빈
(주)한중엔시에스	김환식
(주)헬리녹스	라영환
(주)황조	문병태
광진정밀(주)	권상훈
그린테크(주)	장영호
금양그린파워(주)	이윤철

업체명	대표자명
2천만불탑	
농업회사법인(주)영풍	조재곤
닛켄인터내셔널코리아(주)	김경태 외 1명
대성금속(주)	노윤구
동진기업(주)	송석환
디에프피(주)	노성현
메리디안글로벌 (주)	황성수
모모미디어	정지윤
미래메디엔텍(주)	박정훈
미래솔레어(주)	임순교
바이오플러스(주)	정현규
북두산업(주)	박동명
삼원산업(주)	김공섭
샘스킵로지스틱스코리아 주식회사	조대규
세원화성주식회사	국승원
스마트공작기계코리아	김종철
신원산업(주)	송성인
신원화학(주)	송성인
아산제약(주)	염정규
아이디피(주)	노현철
아이쓰리시스템(주)	정한
에이치엘비(주)헬스케어	진양곤
오성화학공업(주)	권영후
우성오토콘(주)	민삼환
원텍 주식회사	김종원
인듐코퍼레이션코리아(유)	그레고리피에번스
장암칼스(주)	구연찬
주식회사 그린켐	박민숙
주식회사 실론	차진섭
주식회사농가의하루	안현주
주식회사영진플렉스	임태경
주식회사재영	심택수
주식회사티에스오토모티브	민규현
케이피한석화학(주)	윤정학
켐가스코리아(주)	박창옥
티오케이첨단재료(주)	무라카미 유이치
파미셀(주)	김현수
파인원(주)	고재생
퍼시픽엑스코리아	도병록
페스웰(주)	문영기
헵시바(주)	성차현
1천만불탑	
(주)아테코	이택선
(주)일룸	강성문
(주)지앤티글로벌코리아	나우채
(주)펜팻코리아	박형준
(주)호성에이비오	김선동
(주)DH케미칼	조정현
(주)가리미	임복남
(주)고려비엔피	민정훈
(주)골드라인파렛텍	김진국
(주)국제태산무역	송무헌
(주)금명하이텍	서인명
(주)네오솔라텍	최정묵
(주)네오제네시스	김용필
(주)노바렉스	권석형
(주)뉴로시스	정윤갑
(주)뉴벤코리아	구정수
(주)다원트레이드	이민재
(주)대우볼트	강희준
(주)대한스텐레스파이프	김성훈
(주)더에이치큐	김상기
(주)데일리앤코	공성아
(주)동그라미프로젝트	송상윤
(주)동아	이우종
(주)동양에이.케이코리아	김윤중
(주)동탄이엔지	고광노
(주)두인	김영환
(주)드림코퍼레이션	장정미
(주)디어유	안종오
(주)디에스피	정광섭
(주)디에이텍	박광희
(주)딜라이트룸	신재명
(주)레이저옵텍	주 홍
(주)마이다스아이티	정승식
(주)맥스원아시아	한웅희
(주)메인일렉콤	윤일구
(주)베이스	박태호
(주)벤인코	김병윤

업체명	대표자명
1천만불탑	
(주)보다나	최수정
(주)부영섬유	정일환
(주)뷰티스킨	최범석
(주)비엔씨글로벌	보조로브 파리둔
(주)비올	이상진
(주)삼진정밀	정태희
(주)상신	박상원
(주)선인	이효구
(주)세바	김정언
(주)세아네트웍스	이근홍
(주)세화피앤씨	이훈구
(주)셈텍스	서성균
(주)스킨앤스킨	권영원
(주)스타메드	신경훈
(주)시에이치메탈	정성필
(주)시지바이오	유현승
(주)신명유압	채성완
(주)신영포엠	김익한
(주)쌤시크코스메틱	유성혁
(주)쎄미하우	현봉호
(주)쓰리에이씨	채성호
(주)아라	김진배
(주)아스트루멧	조용범
(주)아이코닉스	최종일
(주)아임유	최재섭
(주)아지텍	박경일
(주)알코켐	윤정민
(주)애터미오롯	김치봉
(주)앤비젼	김덕표
(주)에스에스엠글로벌	신종철
(주)에스에이치리싸이클링	이동재
(주)에스엔아이	한강호
(주)에이씨엘	배황근
(주)에이아이코리아	안진호
(주)에이에스텍	윤종배
(주)에이치에스인터내셔널	김우찬
(주)에이치제이글로벌	최현학
(주)에이텍에이피	박응민
(주)에코브릿지	강은주
(주)에프알디	박규홍
(주)에프엠	성석기
(주)엑소코바이오	조병성
(주)엔에스티바이오	박은영
(주)엘리온	정태영
(주)엘앤에스	김보현, 함민철
(주)엘케이엔지니어링	이준호
(주)엘투케이알	이효형
(주)엠아이씨텍글로벌	쑹까오신밍, 박진호
(주)엠피에스	이재완
(주)예손엔터테인먼트	박경자
(주)예인티앤지	김경남
(주)오토탑	이기덕
(주)오피지지	최상락
(주)온빛	김충덕
(주)옵토레인	이도영
(주)와우벤처스	유지혜
(주)와이디티	김대주
(주)와이에이치이코퍼레이션	김주환
(주)와이엠피	최석종
(주)원드롭	이주원
(주)웰템	박정우
(주)윈텍오토메이션	송일재
(주)유니온전자통신	김태우
(주)유스틸	이치형
(주)유아이디	박종수
(주)유어스테크앤마케팅	권오성
(주)이삭	권종호
(주)이스트포토닉스	석호준
(주)이앤씨	신광현
(주)인드림스	김창섭
(주)일레븐전자	박지수
(주)일신웰스	윤동훈, 박병서
(주)제우테크노	김치현
(주)제원코퍼레이션	정성목
(주)제이씨리소시즈	김현수
(주)제이이엔지	정원태
(주)제이플러스아이	최정민
(주)제일엠앤에스	이효원
(주)주호레포츠	박우식
(주)지씨에스	김창식
(주)지티엠글로벌	조설매
(주)진글라이더	송진석
(주)케이디랩	이규철
(주)케이에스더블유	박식순
(주)케이에스시스템	이창원
(주)케이에스씨엔티	유명실, 김석곤
(주)케이엔에스	정봉진
(주)케이인터내셔날	이근수
(주)케이지무역	독토바에브일리아즈

업체명	대표자명
1천만불탑	
(주)켐옵틱스	이형종
(주)켐트로스	이동훈
(주)코디코	유태흥
(주)코뿔소	오승일
(주)코스모텍	정형오
(주)코스텍시스	한규진
(주)코웰메디	김기홍
(주)클라쎄인터내셔널	김병원
(주)타라유통	이재수
(주)템스코	오정석
(주)트리아펙스	김재일
(주)티씬	안선호
(주)티에스프레임	김상용
(주)티에프오네트웍스	이준영
(주)티에프이	문성주
(주)티플랙스	김영국
(주)파두	남이현
(주)파일란트	허노환
(주)퍼시픽하베스트	박도준
(주)포나인	오창영
(주)프락시스	김윤제
(주)프레스코	강석환
(주)프론텍	민경원
(주)플로원	문철근
(주)피코그램	최석림
(주)필링크	이민창
(주)하스	김용수
(주)한드림넷	서현원
(주)한마루	이명원
(주)한민	김재찬
(주)한성이에스	장욱진
(주)한일하이테크	이이원
(주)함창	함정대
(주)홍림교역	김민재
(주)프로이천	임이빈
넥서스파마(주)	성승제
뉴바이오(주)	김숙희
대달산업(주)	권현달
대명코리아(주)	김지현
대은산업(주)	김종웅
대진기계	곽노근
대진기계공업(주)	김종백
대진첨단소재주식회사	유성준
더파운더즈	이창주
덕산약품공업(주)	고영채
동아금속주름관(주)	최혁재
디아이오토모티브	유기덕
디에프케이바이오랩(주)	고동환
루에랑(주)	김 직
매그날주식회사	현석정
미츠바상사	김채정
뱅크웨어글로벌 (주)	이경조
부흥정밀(주)	박동주
삼익정공(주)	진문영
삼일테크(주)	김종은
선진수산영어조합법인	정정진
시너스(주)	김부순
신성산전(주)	이주억
신아물산(주)	이우진
신진화스너공업(주)	정한성
씨에이치 글로벌 유한회사	김수흥, 조경순
씨제이푸드빌(주)	김찬호
아네시	천영근
아이씨이아이우방주식회사	이찬우
에스테크(주)	이병노
에이에치코리아(주)	김성환
에이치제이코퍼레이션즈(주)	성현중
에코시계(주)	고영곤
영창테크(주)	한명섭
오션브릿지(주)	이석규
옥시젠디벨롭먼트(주)	김진옥
우성공업(주)	원명철
우성스텐스틸(주)	권욱상
유씨엘스위프트(주)	박찬설
유한책임회사신동공업	김명관
유한회사다시	박종현
이린통상(주)	김지혜
이코니(주)	한상철
일동후디스(주)	이준수
일진알텍(주)	현용길
재유코퍼레이션(주)	정남교
제너럴바이오주식회사	서정훈, 정석근
제이비지컴퍼니(주)	이상철
조일산업(주)	박순정
주식회사디에스아이	박준모
주식회사비앤에프	이영원
주식회사아민	이윤준
주식회사지씨이	김윤곤
주식회사한국비엔씨	최완규
주식회사나노시스템	이형석

업체명	대표자명
1천만불탑	
주식회사나이벡	정종평
주식회사메탈박스	윤석희
주식회사신성금속	전백민
주식회사아네스토	고현규
주식회사아이크	이인기
주식회사애플티	이민근
주식회사인터세미	이종은
주식회사저스틴비디앤엘	김상욱
주식회사제일선재	부지현, 부상혁
주식회사지케미	이광수
컨스턴테크놀로지(주)	신동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케네스민규리
켐버드(주)	한상용
코디아산업(주)	김창희
퀄맥스주식회사	최종국
파워제넥스(주)	고상영
파츠너(주)	김승근
하나시스주식회사	이정용
하이드로텍(주)	유성렬
한국피아이엠(주)	송준호
한국후지필터(주)	심일보
한선엔지니어링주식회사	이제훈
한주기계공업(주)	김범준
홍성산업(주)	김병식
7백만불탑	
(주)남양자원	최영환
(주)디오에프연구소	박현수
(주)루소	김항성
(주)뮤직플랜트	박정원
(주)비전월드	장윤석
(주)아스테라시스	서은택
(주)코리안프렌즈	장준성
(주)티피엠엔	박도현
(주)골든마운틴	김재완
(주)골든토드	JIN JINGJUN
(주)구다이글로벌	천주혁
(주)구수중전기	김원구
(주)굿띵	이종수
(주)그레이스온	CHENGSHUAISHUAI
(주)네일테크	정길영
(주)네츄럴라이프아시아	김경락
(주)다산제약	류형선
(주)다이나테크	공영준
(주)대금지오웰	이승우
(주)대명연마	김명묵
(주)대영케이블	김동암
(주)대한기계	정병춘
(주)더주얼리컴퍼니	김석
(주)더케이로지텍	권민재
(주)동원P&P	지제도
(주)리트빅	이인섭
(주)마루닉스	이경연
(주)마블프로듀스	전현준
(주)마이라텍스	신재명
(주)마이크로컨텍솔루션	양승은
(주)마크로케어	이상린
(주)미래전자	배효민
(주)바이오제닉스	손태훈
(주)보원화스너	이색용
(주)부민인터내셔널그룹	김 혁
(주)삼원	제행모, 송계순
(주)서버벨	손문경
(주)선우엔지니어링	문병래
(주)세이션	구경모
(주)센코	하승철
(주)솔리드메카	김태완
(주)수양켐텍	박범호
(주)수일개발	염윤희
(주)스노우라인	최진홍
(주)스페이스솔루션	이재헌
(주)승용컴퍼니	이성욱
(주)신라에프에이	이종만
(주)신보	정재문
(주)아우딘퓨쳐스	최영욱
(주)아이소브	이동철
(주)아이씨케이	강수향
(주)아이토크콘트롤즈	엄세용
(주)알에프메디컬	전명기
(주)얼라인드제네틱스	정연철
(주)에디코	한경렬
(주)에스아이테크	김진성
(주)에스제이엔터프라이즈	김용세
(주)에스케이씨에스	조경진
(주)에스켐	김동욱
(주)에이치더블유아이	안광호
(주)에이텍솔루션	박병호
(주)엑스골프	최승환
(주)엔원테크	최모성
(주)오브이코스	안정숙

업체명	대표자명
7백만불탑	
(주)오유인터내셔널	고현호
(주)오토리더	김동욱
(주)와이디어	강하늘
(주)와이티트레이딩	이영택
(주)우신화장품	안태만
(주)우양	이구열
(주)우주식품	이미향
(주)유에이치텍	김원석
(주)이노디스	박해신
(주)이스턴산업	김기영
(주)이즈앤트리	김진우
(주)이큐글로벌	김한준
(주)인스케이프	김상백
(주)제오빌더	정규영
(주)제이비피코리아	임홍석
(주)제이엔엠코퍼레이션	김동환
(주)제일기계	양순호
(주)제일윈도텍스	임정희
(주)중원산업	김명구
(주)지에스리테일	허연수
(주)지엔에스이엔지	정원희
(주)지티지메디칼	박세환
(주)청우식품	박윤구
(주)카츠코리아	이성길
(주)칸타텀	이상의
(주)케이프	정형석
(주)케이피일렉트릭	김호철
(주)코스라이프	정호성
(주)크래비스	황준현
(주)탑코	유정석
(주)티스틸	유태종
(주)티제이테크놀러지	박성배
(주)티젠 농업회사법인	김병희
(주)풍원부품	신우철
(주)피에스디이	박동석
(주)한걸음	김태웅
(주)한돌펌프	이지훈
(주)한서정공	홍석봉
(주)함안비철	신귀연
(주)힐룩스	김도연
21세기기업(주)	이규환
H&PINTERNATIONAL	허 팡
경진단조(주)	고석재
농업회사법인정우식품(주)	이한면
다산일렉트론(주)	한승우
대승금형	김흥기
두리화장품(주)	이병수
디앤에이치인터내셔널(주)	홍화식
디케이알텍(주)	김현기
라인호(주)	신라이히라이너
레이저쎌주식회사	최재준
리란시(주)	남중혁
메드윈인터내셔널주식회사	이정효
모틴코리아	이수형
미진공압산기주식회사	최유진
범양기업	김범수
부림광덕주식회사	임용수
브이피에스(주)	현철원
삼진코퍼레이션	이태희
상문	서호성
서울디엔에스(주)	고복규
선라이즈무역	예브그래브스카야 타티아나
세이프웨이오토(주)	최재혁
스마트에스(주)	임채율
신한열교환기공업(주)	신영준
씨엔티지(주)	김정호
씨퍼스트엔지니어링	백정렬
아이메디컴(주)	주돈수
앳킨스	김창준
에스카주식회사	진홍근
에스티엠(주)	김준우
에이스기계(주)	이 철
에코폴리텍(주)	허 한
영진폴리캠(주)	김성진
와이드무역	윤순식
우암신소재(주)	정동관
우영유압(주)	채경호
우진산업(주)	김창영
유니코스(주)	김기창
유진디스컴(주)	이강수
제엠제코(주)	최윤화
제이에프(주)	진용우
주식회사 브링코	김태환
주식회사비알에스글로벌	김동윤
주식회사알피에스	이동헌
주식회사엘티아이	이은형
주식회사담터에프엔비	장세근
주식회사디오션	김경수
주식회사보근	박성원

업체명	대표자명
7백만불탑	
주식회사식스트레이드	김항우
주식회사에이스나노켐	이종훈
주식회사한바다	김덕종
주식회사효승	양성찬
지더블유인터내셔날(주)	김삼용
지디케이화장품(주)	김태성
천일제지(주)	이용제
케미웨이(주)	한정수
케이피엔티(주)	강병의
코웰정밀(주)	이진우
태명산업(주)	한명철
테크밸리(주)	김한석
티지코포레이션(주)	김홍우
프리시젼바이오(주)	김한신
한국솔타(주)	김동욱
한산스크류(주)	사카모토히토시
한솔디피에스(주)	우정남
한양로보틱스(주)	이원자
한일식품(주)	김주성
합성메데아(주)	이문영, 김용암
5백만불탑	
(주)네오솔 프라임 컴패니	심용국
(주)이엠비글로벌	김언빈
(주)제이메디컬인터	정진호
(주)코벨트	노유곤
(주)가영산업	김 성
(주)계성인더스트리	김영애
(주)골드크랩	이인철
(주)광진화학	권근섭, 강경희
(주)궁전방	송청호
(주)글로쿼드텍	장기수
(주)금광케이엘	김문규
(주)나린코리아인터내셔널	민병욱
(주)나비드전자	최병욱
(주)다스코	이근영
(주)다인지티	오태훈
(주)단디글로벌	이명재
(주)대두식품	조성용
(주)대오정밀	박지동 외 1명
(주)디비전	류영균
(주)디젤파트너스코리아	김봉식, 이지동
(주)레스트	김동일
(주)레오엘에스아이	허승훈
(주)리텍엔지니어링	이미애
(주)마스	남창호
(주)매그나텍	박준표
(주)메디컬랩코리아	이한철
(주)무진비앤에이치	김준성
(주)미래기연	선우종현
(주)민트	정귀중
(주)바노바기	반재용
(주)바텍엠시스	고영탁
(주)범농 농업회사법인	임종배
(주)범석엔지니어링	심재봉
(주)범우에이텍	이창화
(주)보광아이엔티	차순자
(주)부성이엔씨	양승열
(주)부일에스티	김복만
(주)브라보월드	최승호
(주)브이엘코스메틱	이재영
(주)블루코어컴퍼니	김성민
(주)비모뉴먼트	반성연
(주)비에스팜코리아	양광모
(주)비주코리아	김애화
(주)비지에프리테일	이건준
(주)삼성페인트	안동환
(주)새롬텍스타일	황도경
(주)서야에프씨	이은미
(주)석경에이티	임형섭
(주)소디스	강찬호
(주)수지스퀴진	박수지
(주)슈웅	김효준
(주)스피드랙	민병오
(주)승화일렉트론	이광훈, 남기량
(주)신해무역	박점식
(주)쏠리드	우영미
(주)아이지스	김남진
(주)아젠테소프트	이규진
(주)알씨이	한호진
(주)애니원에프앤씨	봉종복
(주)애플트리	김기재
(주)에스에치	김갑주
(주)에스에프인터내셔널	이성원
(주)에스제이케미컬	김현희
(주)에스케이에이어드벤스드	김기홍
(주)에스켐텍	홍광표
(주)에이에스비	염병렬
(주)에이에프지엠	박경철
(주)에이치에스지	정진근
(주)에코트론	오준용

업체명	대표자명
5백만불탑	
(주)엑티브온	조윤기
(주)엘에치텍	이성기
(주)엠디에이치테크	장순재
(주)엠에스티	이동욱
(주)엠에이케이	전병준
(주)엠큐엠	이승민
(주)영진테크	박근종
(주)영케미칼	윤한성
(주)오션스인터내셔널	안성민
(주)오토모빌토탈솔루션	진재웅
(주)오토일렉스	배종윤
(주)올리브	서명현
(주)와이엠쉬핑	김연지
(주)와이엠케이	OGAWAKATSUMI
(주)와토코리아	유경선
(주)우리비앤비	박상협
(주)우주글로벌	길경택
(주)우진공업	장주봉
(주)원스인터내셔널	한상돈
(주)위덤	권혁천
(주)위드베이비	박명진
(주)윈백고이스트	김남혁
(주)유니퍼트	김영훈
(주)유레카	무즈로포바 굴미라
(주)유일로보틱스	김동헌
(주)유티글로벌	서호열
(주)이너프	이월자
(주)이앤이	현장수
(주)이엠씨	박노규
(주)인사이롭	신현진
(주)인터아시아	주성호
(주)일신오토클레이브	김현효
(주)일진	마하선
(주)정민통상	정준구
(주)정우코스	조우철
(주)정코리아	정성협
(주)제이렘	최진석
(주)제이앤이	김재호
(주)제이앤코슈	장유호
(주)좋은아침창	김성철
(주)지에스피	김대식
(주)지엔엠텍	손법호
(주)지오메디	김도형
(주)지우광기술	허문회
(주)지티월드	정상훈
(주)진매트릭스	김수옥
(주)천지인화	로림호
(주)케이씨트레이드	심민섭
(주)케이엠티월드컴포넌트	김진환
(주)코디	김종원
(주)코션	고정호
(주)코원	김용수
(주)코인텍	용석호
(주)퀸스인터네셔널	최윤민
(주)태영이앤티	윤태영
(주)포네스	임성빈
(주)풍산디에이케이	안동일
(주)프라임테크	김환이
(주)프로	강선주
(주)프로비아	차기철
(주)피앤엘세미	고성민
(주)피엘케이	이채철
(주)픽플러스	임정빈
(주)한국비엠아이	이광인,우구
(주)한국이엔이	조용화
(주)한국정밀	김성봉
(주)한림티앤씨	박현훈
(주)한미유압기계	전승현
(주)한타스	이성재
(주)해성	용석수
(주)헤드라인	이호준
(주)혜경수산	김수경
(주)호강상사	장효겸
(주)후후인터내셔널	정만형
금호조침	김화규
대건금속	김용만
대림비앤코주식회사	강태식
대한고열공업(주)	정형기
더메탈플러스(주)	장영수
동성신소재(주)	황호락
디케이메디칼시스템(주)	이준혁
반석중공업(주)	김명환
비아이씨(주)	김수인
선일텔레콤(주)	김규식
성문일렉트로닉스(주)	이강일
세노	하윤기
세연아이넷(주)	정은호
신풍섬유(주)	윤상배
아시아교역(주)	전시환
아이엠에스(주)	피창호

업체명	대표자명
5백만불탑	
알에프머트리얼즈(주)	남동우
어반스퀘어(주)	김종성
어센트글로벌(주)	전상윤
어업회사법인(주)열림푸드	신혁호
에이스씨엔텍(주)	장덕흠
에이지켐솔루션	고길홍
에이치지동신상사	오익종
에코리빙주식회사	한영호
오알에스코리아	아흐멧아슬란
유성알미늄(주)	신규완
이엔테크주식회사	홍희세
주식회사동방엔지니어링	박세준
주식회사리센스메디컬	김건호
주식회사브이텐시스템	박재연
주식회사인터원	나정훈
주식회사코코	최장호
주식회사티엔비코리아	태원남
주식회사겟뷰티	김기택
주식회사그릿	김민수
주식회사디지레이	강영호, 공상섭
주식회사라이언프로젝트	김정희
주식회사비티씨	윤재중
주식회사세라트랙	이민희
주식회사세인센서	김명숙
주식회사애드위너	조양래
주식회사에스아이엠티	장은정
주식회사에이치엠	김인환
주식회사웹게이트	김상석
주식회사이노렉스	이태규
주식회사진성아이엔디	김진수
주식회사피비코스	박기범
중부오토리사이클(주)	나영배
지쓰리글로벌시스템	홍정호
창신인터내셔날(주)	이채구
칸트래딩 (KHAN TRADING)	MD AL AMIN 외 1
케이와이씨	조기용
켐솔루션(주)	김영록
코로스전지주식회사	김성훈
코어엔텍 주식회사	윤석찬
트라이코리아(주)	우경서
티피에이코리아(주)	최재웅
포벨	김정수
프리미어(주)	박석언
플렉스(주)	황양호
피에이치지주식회사	조원재
피엘	강성일
하나섬유	신승혜
하이소(주)	정혜욱
한국플랜트	김병학
한국학술정보(주)	채종준
현대씨즈올(주)	정승갑
희래(주)	김두일
힐링칩스	김학모
3백만불탑	
(주)경우시스테크	장용준
(주)교원프라퍼티	장평순
(주)라디안큐바이오	이제우
(주)룰	문관현
(주)씨아이씨인터내셔널	홍웅교
(주)에스에이엠지 엔터테인먼트	김수훈
(주)에쓰엠디	JIN TONGJI
(주)윈앤윈	김석오
(주)이테하드	모하메드술레만
(주)프라이웍스	정운창
(주)피, 엔, 티	강기훈
(주)강한	정의한
(주)갯뉴스킨코리아	심원진
(주)광명통신	염채화
(주)국일텍스타일	이태완
(주)나눔테크	최무진
(주)나인위시스	김지훈
(주)남선지티엘	주용제
(주)네오마블	서정한
(주)네오텍	최병훈
(주)네오하나텍	최병일
(주)넥스젠파워	강동원
(주)넥슨화장품	박현준
(주)다산에이디	류희수
(주)담음폴리머	박희철
(주)대광주철	최재석
(주)대원산업	서준석
(주)대진코스탈	강성공
(주)더스킨스	백승태
(주)델트레이딩	이지환
(주)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주)동양케미컬	주윤일
(주)디씨티	김광성
(주)디아이	정조훈

업체명	대표자명
3백만불탑	
(주)디엑스앤브이엑스	박상태
(주)디엔텍	정찬수
(주)디와이이엔지	신동엽
(주)디지털프린팅솔루션	조명호외 1명
(주)디케이문교	남두석
(주)디투엔지니어링	김낙경
(주)디티인터내셔널	정은우
(주)라비오	조광진
(주)로팩	박기로
(주)로프캠프	윤강호
(주)립멘	서윤덕
(주)마루온	한연수
(주)메타폴라 아로마	권오역
(주)모션트레이딩	유길호
(주)미주파워텍	김명애
(주)바우와우코리아	고은숙
(주)바이오머테리얼즈코리아	오근택
(주)바이오뷰텍	김인영
(주)본코스메틱	신인호
(주)부경글로벌	류재균
(주)부성	함영민
(주)브이텍	조호영
(주)비씨이노텍	정원근
(주)쁘띠엘린	심석영
(주)사이언스프로버	한정렬
(주)삼성텍	임용택
(주)삼일화스너	정용일
(주)성광옵틱	김응철
(주)성원화이바	김은진
(주)세명에버에너지	전형진
(주)세븐티원글로벌	박은주
(주)세원메디텍	김창용
(주)세이프케이	강원찬
(주)세종플렉스	석종민
(주)송마	허정석
(주)송원화학	김인순
(주)스카이상사	김태형
(주)스키디웍스 인터내셔널	서정일
(주)씨케이브리지	최재민
(주)아그네스메디컬	안성용
(주)아미글로벌	유실근
(주)아이유닉	김미경
(주)아이파워	육두수
(주)알루피아	김태일
(주)야다	강은미
(주)어드밴스오토	김현우
(주)에스아이유	윤인자
(주)에스엠씨지	최승호
(주)에스엠아이앤씨	이종진
(주)에스엠지	임경재
(주)에스오엠홀딩스	윤재필
(주)에이에스피	엄기범
(주)에이엠에이치엠	박이라
(주)에이치비글로벌	이철호
(주)에이치앤티테크놀로지	홍순명
(주)에프씨앤티	이창경
(주)엔스크린	정대욱
(주)엔티에스인터내셔날	이우성
(주)엘스브릿지	이지인
(주)엘앤엘트레이딩	양진혁
(주)엘에프케이	조 송
(주)엘피케이하이테크	강선영
(주)엠씨티바이오	김성윤
(주)영원코스텍	김재기
(주)예그리나	한성수
(주)올릭스글로벌	유창남
(주)와이낫	최헌영
(주)와이케이인터내셔널	이용범
(주)용사보	정경훈
(주)원모터스코리아	손 원
(주)웰스팜텍	나진상
(주)유비온	임재환
(주)유알스킨솔루션	정희경
(주)유창종합식품	장대석
(주)유티에스글로벌	남기연
(주)육리메탈	홍영선
(주)이도코리아	박종남
(주)이지함화장품	김상명
(주)이투텍 (E2 Technology Co., Ltd)	최봉규
(주)이파워	고정임
(주)이포넷	이수정
(주)이호 강서지점	이희제
(주)인천폐차사업소	박순용
(주)인코아	황준성
(주)자이온앤더뷰티	강희종
(주)제달	전덕진
(주)제이디아웃도어	정병길

업체명	대표자명
3백만불탑	
(주)제이솔루션	이승룡
(주)제이씨알패키징	조덕규
(주)제이앤에스	김병수
(주)제이앤제이인터네셔날	홍성호
(주)중앙플라텍	권오준
(주)지앤이글로벌	김호겸
(주)지엘켐오창공장	이원민
(주)지오실크트레이딩	정병국
(주)지톤그룹	이인재
(주)진교정밀	박세영
(주)진양기술	하용운
(주)차메디텍	김석진
(주)카라즈	나 경
(주)케이와이엘트레이딩	전유진
(주)케이텍	이광희
(주)케이투앤	김병열
(주)케이티엠테크	전종호
(주)코리아알루미늄인터네셔널	최정현
(주)코마테크놀로지	박성훈
(주)코스만	김진우
(주)코스존	하춘홍
(주)크리에이트립	임혜민
(주)태린홀딩스	조서윤
(주)테크니컬코리아	오규일
(주)테크웰아이엔씨	이명아
(주)토탈팩	이인순
(주)티앤이코리아	박기철
(주)티엘비전	연준채
(주)티지보람	이종주
(주)프레쉬벨	김근화
(주)프로스코	황보성
(주)플리토	이정수
(주)픽소	김상원
(주)픽슨이앤씨	신강수
(주)하나메탈코리아	조정식
(주)하루미오	공상호
(주)하본인터내셔널	윤동현
(주)한라글로벌	김재우
(주)한송M&T	이해우
(주)함일셀레나	이동훈
(주)해람코퍼레이션	채동훈
(주)협신금속	이장원
KS케미칼(주)	유창준
경인리사이클링(주)	배한웅
계림금속(주)	정민호
그레이터웍스(주)	장석윤
그린아이글로벌	김수영
글로픽스	여일석
남강제지(주)	하준식
농업회사법인(주)더기반	표만문
대림산업	정성기
대성금속공업(주)	최일성
대연화학(주)	김연두
대한열기(주)	주강일
더블유메디칼(주)	신승종
더비링크(주)	정순희
데코윈 텍스타일	이근수
디에스씨(주)	김의태
라스씨앤씨	김미영
리메세(주)	한득천
리얼월드코리아(주)	백성관
마선텍스	유미영
모린(주)	임영식
별솔금속	강계수
부흥시스템(주)	정인균
비케이엠(주)	유재화
삼성의료고무(주)	정재학
삼일코포레이션	권중량
삼창기전	양공열
상구정공(주)	장석채
새숨바이오	강상훈
성진종합전기(주)	김정환
세한산업	조남영
센텀머티리얼	이진호
솔리스(주)	이종필
수유상사(주)	이종욱
슈퍼센트(주)	공준식
스페이스다움(주)	박현정
신우신(주)	이지우
신화철강주식회사	정영록
씨엔에스글로벌주식회사	오차현
씨케이테크닉	김수형
아야나앤드컴퍼니(주)	한득천
아이엔테코(주)	김익진
아이홀랜드아시아주식회사	최민아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송원수산	임 민
업백이프로백이무역주식회사	백석현

업체명	대표자명
3백만불탑	
에브리봇(주)	정우철
에스비아이상사(주)	변기봉
에이스티앤씨	김혜민
에이치제이이앤지주식회사	임장수
에프씨유	최현식
엘비화장품	조진희
엠앤에이치케미칼(주)	김덕현
엠텍비젼(주)	이성민
영어조합법인일출봉	한우진
영진에스앤에이무역	전은겸
오픈월드코퍼레이션	박유나
요크헤이븐코리아	박봉근
웰메이트(주)	박동환
위펀	이석오
유한산업(주)	신기일
유한책임회사범진금속	박만선
유한회사 신일정밀	조승환
이노패스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	한지훈
일광공구공업(주)	김동승
장자도어업그룹한국(주)	양 준
재우에스에프(주)	성익승
정우엔텍(주)	신광선
정원기계(주)	원경연
제논전장(주)	김은성
제이티에스코퍼레이션	정일규
제주터봇	주정호
주식회사강원수출	안권용
주식회사비앤에프	김준범
주식회사여주티앤씨	조연정
주식회사와이즈테크	우장원
주식회사유니팩	이경택
주식회사파스텍	송진일
주식회사현대메디텍	송미희
주식회사대석프로토	오판세
주식회사대성하이테크	정진한
주식회사비전에셀	정식원
주식회사센스텍스	유시영
주식회사솔뫼에프엔씨	최규복
주식회사에이엔씨코리아	전진
주식회사에이치에스엘시스템	허지완
주식회사에이피테크	박찬봉
주식회사위너테크놀로지	한동빈
주식회사정우인더스트리	배계탁
주식회사지연피앤피	진오임
주식회사케이랩	권구철
주식회사해피디아	장창빈
창영메디칼(주)	최창희
케이티티플랜트	김창훈
코스탈(주)	이재필
파워오토메이션주식회사	황장선
평안제관(주)	신정헌
프리셀주식회사	장동수
피앤케이코리아	박종윤
피에스씨(주)	서용원
피엠에스마린서비스	김동현
하스엠(주)	박무신
한미전선(주)	성병경
1백만불탑	
(유)성문	윤경순
(유)세린	유현희
(유)에스더블유상사	이세원
(주)가치인터내셔널	안소라
(주)대광오토	하대석
(주)리얼게인	박대영
(주)미시카인터내셔널	김 한
(주)백스코	주재근
(주)블루골드	김봉현
(주)비스타릿	이정호
(주)비티에스이엔지	이명석
(주)상봉코포레이션	김경일
(주)시크릿박스뉴욕	송희승
(주)실바트	이명철
(주)에프알메드코스	조진만
(주)엔엔비코스메틱	최호진
(주)와이제이에이스	권영환
(주)유앤아이트레이드	김성길
(주)유앤제이코스메틱	김종인
(주)이엘라이즈	김선재
(주)장원무역	량국동
(주)지브이엑스	김신우
(주)창세이노베이션	김재영
(주)킥더허들	김태양
(주)풍림	권재욱
(주)하이브로트레이드	한국남
(주)가나공영	곽영단
(주)가온상사	김윤호
(주)가이오	여동혁

업체명	대표자명
1백만불탑	
(주)강민코퍼레이션	강기복
(주)건영제과	김정성
(주)게임듀오	최재원
(주)경한	한균식
(주)고은피플	김종헌
(주)교우인터내셔널	조영식
(주)그레넥스	국중창
(주)그레이스인터내셔날	조신일
(주)그레이스클럽	장준탁
(주)극동마린	류순홍
(주)글로벌냉동식품	장 준
(주)글로벌드림스틸	조재광
(주)글루가	유기현
(주)글루업	박경준
(주)금호쉽빌딩엔지니어링	오정수
(주)기가스	김환표
(주)끄레몽에프엔비	허창기
(주)네오메디컬	이태훈
(주)노드메이슨	구자풍
(주)노바메디	노현미
(주)뉴리드글로벌	김준우
(주)뉴아이디	박준경
(주)다모아코스메틱	박종철
(주)다빈리써치	강남석
(주)다솔	김슬기
(주)다이브	이대인
(주)달팩토리	민병선
(주)대단한형제들	정정엽
(주)대성티엠씨	노윤재
(주)대승인터내셔널	표영수
(주)대한특수강	김성훈
(주)더이안	이은하
(주)더존케미칼	김태억
(주)더파트너즈	허승화
(주)더퍼스트코리아	이재범
(주)데이지크	연정미
(주)도리스엔지니어링	박동규
(주)도우상사	PIAOCHENGZHEN
(주)동방지앤씨	문희성
(주)동양정밀가스켓	이기제
(주)동우정공	박영욱
(주)동진산기	김정규
(주)동화하우스웨어	김선옥
(주)두리두리	김상현
(주)두인티앤피	김삼종
(주)디앤와이	최동식
(주)디엠콜라보	양주영
(주)디이엑스	박 훈
(주)라이브셀인스트루먼트	이용진
(주)라이프온	이우승
(주)랜드켐	최유락
(주)러시아	이서훈
(주)레스텍	박가원
(주)레어팜	김성회
(주)레인보우로보틱스	이정호
(주)레프코리아	조선웅
(주)로이드	이우성
(주)루카컴퍼니	김희효
(주)루트세미콘	장근호
(주)마나	윤성일
(주)맘스트레져	박용운
(주)매그니프	김영만
(주)맥파이테크	신웅철
(주)메가폼코포레이션	이성광
(주)메디퍼스트	이영주
(주)메딕프로코리아	윤부용
(주)메이니코코	포미유
(주)메이코더스	최새미
(주)모먼츠컴퍼니	정윤진
(주)뮤토코퍼레이션	이원규
(주)미진시스템	정대경
(주)바로스튜디오	김준형
(주)바이바이	박태균
(주)바이오시엠	조규태
(주)바이오웰스팜	장영수
(주)바이오팩트	문성은
(주)반찬단지	우성명
(주)방앗간화장품	임영식
(주)배럴	박영준
(주)버스터	한승용
(주)벤처메탈스아시아(서울지점)	크리스 정
(주)보다	최우영
(주)보향무역	우문해
(주)복어뱅크	정상문
(주)부광케미컬	백영관
(주)부영정밀	주상철
(주)블루마마	조화진
(주)블루인더스	정천식
(주)비브로	신상현
(주)비씨상사	한경수

업체명	대표자명
1백만불탑	
(주)비에스씨	노석범
(주)비에스티코리아	홍창근
(주)비에프솔루션	박진섭
(주)비엔무역	김대호
(주)비하다	서나리
(주)빅픽처팀	현우진
(주)삼정켐텍	구자선
(주)상상과상상	정 은
(주)상원	김희진
(주)샘초롱농업회사법인	차훈일
(주)샤인	최형주
(주)성오스틸	정양준
(주)성은켐	변윤환
(주)세림	구현서
(주)세미켐	김영두
(주)세양코리아	이은하
(주)세우씨엔티	홍세모
(주)솔나노텍	최금선
(주)솔비트	강화석
(주)스마트테크	문성진
(주)스킨앱스	박용민
(주)시너지스틸	노동민
(주)시티케이	육창현
(주)신도피앤지	안도현
(주)신명써보	임선영
(주)신아전자	이재덕
(주)씨앤에이치코스메틱	최성욱
(주)씨앤엠비즈	이경희
(주)씨에스씨	이청산
(주)씨엘팜	장석훈
(주)씨유스킨	김현철
(주)씨제이	양남진
(주)씨큐엠에스	안인영
(주)씽크아이	최성국
(주)아레스	김진원
(주)아로니안	유영숙
(주)아모라이프사이언스	김병규
(주)아이솔	정달용
(주)아이케이푸드	이창훈
(주)아즈텍코리아	이은정
(주)아침해의료기	오세홍
(주)아카바코퍼레이션	이주한
(주)아쿠아리오	신진숙
(주)아트페이스	안경열
(주)알비이엔씨	조대영
(주)액션핏	박인후
(주)앰트	김남훈
(주)얼트루	소성현
(주)에듀케이션아이코퍼레이션	김미진
(주)에버켐텍	이성민
(주)에스노멀인터내셔널	김진식
(주)에스랩아시아	이수아
(주)에스아이	김기연
(주)에스에이치티	김수형
(주)에스엠이노베이션	박종근
(주)에스엠지코퍼레이션	하승묵
(주)에스엠테크코리아	이주일
(주)에스와이인터네셔널	마재철
(주)에스티케이	김상범
(주)에스피엠	박승규
(주)에이치에프메탈무역	원홍봉
(주)에이치와이지	정다혜
(주)에이케이이십일	이재성
(주)에이코닉글로벌	변민규
(주)에코윈	구경본
(주)에프엔디	홍만석
(주)엘이디포유	한철기
(주)엘케이글로벌루브	이민석
(주)엘트라글로벌	맹찬호
(주)엠앤케이코리아	유효민
(주)연제	장인호
(주)영암산업	조재복
(주)영재철강	최익섭
(주)오름	김종철
(주)오복식품	채경석
(주)오션	고정훈
(주)올데어코리아	김정현
(주)올딩스	한영대
(주)와이비에너지	양봉조
(주)우주기계	박병호
(주)울타리코리아	임양원
(주)원데이바이오텍	김진환
(주)원씽	최유미
(주)원일식품	신준철
(주)월드마인코포레이션	이종복
(주)월드코스텍	강세원
(주)유니크메디케어	김경찬
(주)유라이텍	이승엽
(주)유앤씨인터내셔널	정형호
(주)유에스티	방민규

업체명	대표자명
1백만불탑	
(주)은하수산	이현우
(주)은혜무역	김승미
(주)이노코스텍	이규영
(주)이노패션	강희범
(주)이노하이텍	김동성
(주)이맥솔루션	임대재
(주)이산글로벌바이오	이준한
(주)이소이비	이강희
(주)이씨엠	서충옥
(주)이온케어스	강진호
(주)이지전자	김대영
(주)이케이엘	곽대원
(주)익스톨	허욱환
(주)인피니트플로우	김유정
(주)재우통상	지형곤
(주)저스트원	임충환
(주)정금지에스글로벌	최금선
(주)정스옵티칼	정병재
(주)정인글로벌	박인식
(주)제네드	최영진
(주)제니아	김성호
(주)제니어스	이학원
(주)제이드텍스	김기옥
(주)제이에스아이	김수현
(주)제이에이치코프	김연준
(주)제이케이씨머터리얼즈	이황종
(주)제이케이테크상사	정종갑
(주)제이크리컴퍼니	지숙희
(주)조비	이승연
(주)중신산업	박창규
(주)지러스트	김지택
(주)지메드	마 열
(주)지브이라이텍	김명호
(주)지씨에스	유두영
(주)지앤에프	전도현
(주)지에스피	최동진
(주)지에프테크놀로지	최광현
(주)지엘케이글로벌	길의석
(주)지오에스	고수연
(주)지유	장육유
(주)지유테크	김성민
(주)지컴	김윤창
(주)진영이노테크	배영호
(주)진영코리아	박규현
(주)진우아이앤피	김영선
(주)청미래	김현성
(주)청정화푸드	김재우
(주)캡쳐	윤영복
(주)커버뷰	김지영
(주)컨텍	이성희
(주)케미필드	박희철
(주)케이에스엘코리아	고희성
(주)코멕스 인터내셔널	김진본
(주)코멧	문상호
(주)코아시스	강태훈
(주)코어인터네셔널	위성민
(주)코원티엔에스	이승한
(주)크라운푸드	김옥경
(주)키오스킨	석 훈
(주)테스크	이석길
(주)테크벤쳐스	정은영
(주)테크피아	정명재
(주)텍스원코퍼레이션	김원현
(주)토브넷	김찬영
(주)티렌	문병수
(주)티씨에프씨	진 연
(주)티앤알바이오팹	윤원수
(주)티에스식스티즈	강성석
(주)티에프씨	박완수
(주)티오엠	하우석
(주)판게아인터내셔널	고상웅
(주)퍼즐원스튜디오	이기섭
(주)포메데시	박기상
(주)포미트	강기수
(주)폴레드	이형무
(주)프라임포디아	오규하
(주)프랭크스토어	백승재
(주)프로테옴텍	임국진
(주)프리모텍스	백승수
(주)플랫폼베이스	김범수
(주)피앤케이하이테크	박인국
(주)하라나	신화군
(주)하이디스플레이	한영환
(주)한국쉬즈라인	최용국
(주)한국카타오카	변성환
(주)한국파워테크	이호재
(주)한국해사기술	신홍섭
(주)한울인터내셔널	김병준
(주)해담트레이드	김희영

업체명	대표자명
1백만불탑	
(주)해랑	김연희
(주)해창트레이딩	백진욱
(주)헬본반도체	이상호
(주)혜인식품	현철호
(주)화인	김영덕
(주)흥일폴리켐	하진만
DEFINTERNATIONAL	박희선
J-TECH	박경발
K&L 코퍼레이션	이수정
SM COMPANY	김현수
가림인더스트리	김석준
강호에너지(주)	이태호
거안주식회사	이종원
견주이커머스(주)	이호준
계성 인터내셔널	민승현
공영기계	허민진
광진	반태행
국제체인(주)	장연화
극동엔지니어링	류순홍
금부	박정식
금산진생협동조합	정원식
금청약품(주)	신동언
금화테크	조현희
나노켐	이형복
나인코리아(주)	조선혜
넥스트바이오	신언무
농업법인회사금복에프에스(주)	고현숙
농업회사법인 에이치지바이오주식회사	한 봉
농업회사법인 한아푸드시스템(주)	김용회
농업회사법인(주)푸드베리	장진수
농업회사법인(주)현농프레쉬	이나미
농업회사법인 오션팜주식회사	장민경
다누비우스	김혜경
다산상선(주)	전종진
달슨	한 달
대성ENG	이남순
대성엔터프라이즈주식회사	박연수
대우 오토모티브	함상엽
대현수지	이미자
더마코	김수용
더블유앤컴퍼니 주식회사	정수영
더블유에스피주식회사	임종길
더블유원인터내셔널(주)	오정일
더빅코리아	이은주
데코밸리(주)	송영관
덴큐	이태훈
동신목재(주)	최재홍
동우정밀(주)	김정구
동주에이피(주)	박문수
동해스틸텍(주)	신동형
두리마이텍(주)	황창연
디엘코리아주식회사	이 위
디케이엠(주)	이현수
라이닉스	조민식
락토코리아(주)	서동석
레옹오일	백옥연
레피나	엄성배
르수기아뜰리에(주)	김진숙
마이스웰(주)	박수연
마크럭셔리코리아(주)	루스란
만제영어조합법인	김수정
머신허브(주)	권경란
메카상사	윤문필
명품전복영어조합법인	오지수
모아컴컴퍼니	문병필
문교산업(주)	남기용
반도엠앤씨(주)	이석형
밸리드원	홍상의
베스트일레컴(주)	오권석
부강스프링(주)	이성환
부건코스메틱(주)	박준성
북하특품사업단(주)	정병준
브이엠메탈(주)	김정민
비담은코스메틱(주)	김정남
비아이피포커스	고지원
비에이치코퍼레이션	옥상호
비엠솔루션	김영철
비이엠(주)	김승국
빅애플	김상연
서북인터내셔널(주)	이민지
서울인터네셔널	백성흠
성진섬유	이성광
세린식품(주)	송현석
세미플론(주)	이진용
세양폴리머(주)	윤성업
세일단조주식회사	김수권
스즈요코리아(주)	SUZUKIMASAHIRO, 정우람

업체명	대표자명
1백만불탑	
시스랩코퍼레이션(주)	김정하
신우산업	오재종
신원정공	강승무
신의테크놀러지	양연순, 방성자
실드(주)	최경진
쏘피컴퍼니(주)	박선주
씨에이엘	이준재
씨에이페이퍼(주)	유창성
아라푸드	김효진
아성크린후로텍(주)	김형수
앤투유(주)	김형은
어빌리티코리아(주)	김진웅
어업회사법인 경영수산유한회사	최경영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해초	나윤호
에버스타해운(주)	권영섭
에스더블유밸브	박정헌
에스앤에이치(주)	김성종
에스와이티앤엘주식회사	문양원
에스케이에프	김진아
에스케이이엔지코퍼레이션	최진아
에스트래픽(주)	문찬종
에어피엔씨	송재도
에이치엔케이컴퍼니	강덕원
엔와이무역	표혜중
엘에이치비코퍼레이션	문승용
엠에스피(주)	전승진
엠이티케미칼	서정근
엠케이웨이로지스(주)	이명경
엠티코리아(주)	이동배
영성에이씨씨	김주한
영어조합법인마리솔	이상민
영훈산업(주)	윤장수
오라클코스메틱(주)	노영우
오렌지몽키코리아(주)	조용수
옥해전자주식회사	최길회
와이앤케이글로벌네트웍스(주)	김영선
와티코스(주)	김영탁
우양홀딩스(주)	최영해
우테크	정연우
위고서비스	최지현
위아글로벌	김상수
윌테크놀러지(주)	이윤정
유비이노베이션	김선명
유씨엘트레이딩 주식회사	박승우
유진상션(주)	박보국
이룸인터내셔널	신철주
이엠알테크유한회사	배경환
이젠임플란트(주)	김주석
인터에쓰유(주)	심현섭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이장휘
잭콘글로벌	조지혜
정우화인(주)	김유석
정일산업(주)	유호석
제이에스이앤엘주식회사	류재문
제이케이이커머스	이정임
제일종합식품	남정숙
주성디엔에스(주)	이창훈
주식회사누비스코리아	이장훈
주식회사뉴대산교역	송재만
주식회사도원팩	홍유진
주식회사롬팩(ROMPACK)	박계현
주식회사멜릭서	이하나
주식회사에이치이공일	이대성, 하경수
주식회사와이드켐	강휘령
주식회사윈보	강미란
주식회사유핀	현유림
주식회사제이에스비	김조슈아정민
주식회사클레	허영욱
주식회사티엠에스코리아	김신호
주식회사 프로미넌스	김예진
주식회사다스	이춘진
주식회사다올정밀	한우중
주식회사대원그린	김민석
주식회사더빅코리아	김장수
주식회사메디앤리서치	이서형
주식회사삼성인테리어필름	황호기
주식회사석우	최승호
주식회사성신전자	강영근
주식회사세이가	이경도
주식회사신광이엔지	서준식
주식회사엠티씨에스	신재홍
주식회사옵토전자	이준역
주식회사유민	정희철
주식회사유성에프에이	김경훈
주식회사이엠티	방보혁
주식회사이트	박준영
주식회사제로스	이해용
주식회사제이엠	주겸목
주식회사지디앤코	김상우
주식회사진영아이엔씨	이기택

업체명	대표자명
1백만불탑	
주식회사코델	장상호
주식회사코머스코퍼레이션	정현택
주식회사태동테크	정현우
주식회사테스카	박상남
주식회사토리든	권인구
주식회사포커스뷰티코리아	이덕형
주식회사풍전	이범석
주식회사플렉시아	전준혁
주식회사한성테크글로벌	최유범
주식회사해강산업	이국천
지디엠에코(주)	김해금
지오닉스	백태순

업체명	대표자명
1백만불탑	
지오커뮤니케이션즈	김봉석
지투아이코퍼레이션	안상철
진영섬유	김수정
창영케미칼	최창희
천안포도영농조합법인	박용준
첨단정공(주)	이천호
초산씨푸드(주)	황의홍
카이	이윤식
케이아이씨(주)	조용구
케이에이치트레이딩	박용일
케이엠텍(주)	박광민
코스모스	김가영

업체명	대표자명
1백만불탑	
키오스크코리아(주)	이명철
타누	최준기
탈렌티스	정지영
태산무역	송시형
태성정밀공업(주)	강태욱
태평양건설	김재명
테코	안재정
텍스에드(주)	이경선
투민코퍼레이션(주)	우경준
튤립에프앤비(주)	정영호
트루코스메틱(주)	최동혁
티앤에프	송명규

업체명	대표자명
1백만불탑	
티엠무역(주)	정학봉
티이티컴퍼니	이은수
파이(주)	안재석
패터니아(주)	소문숙
팬코스주식회사	김대천
퍼스텝앤컴퍼니(주)	이종수
펠릭스코리아	김경미
포덤코스메슈티컬즈	김성철
피엔피에너지텍주식회사	이용현
피엠더블유글로벌(주)	박정협
하나금속(주)	김덕규
한국나크(주)	박준서

업체명	대표자명
1백만불탑	
한국산요카세이(주)	나카지마 히데히로
한들수산	서순필
한팩	박인호
해광씨앤아이(주)	정승현
해금(KorMc)	박혜영
해원에프엠(주)	김상규
해원영어조합법인	김영재
헤베코리아	공규진
형일기술	최영환
화연물산(주)	김어금
화코스텍인터내셔널(주)	계세찬
효성오앤비(주)	박태헌

훈 · 포상자

수상내역	업 체 명	직 위	성 명
금탑 산업훈장	삼성전자(주)	사장	박학규
	희성피엠텍(주)	대표이사	정경오
	(주)대성하이텍	회장	최우각
	디케이락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은식
은탑 산업훈장	서울전선(주)	대표이사	이장열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전무	김영기
	금호폴리켐(주)	대표이사	김선규
	지에스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세홍
	금호미쓰이화학주식회사	상무	류재혁
	주식회사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박혁상
동탑 산업훈장	롯데케미칼주식회사	파트장	조태호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부사장	박찬동
	에드워드코리아주식회사	상무	정용호
	주식회사포스코	전무	김경한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사장	지종립
	(주)삼광	대표이사	김진우
	(주)비지에프리테일	대표이사	이건준
	신성오토모티브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민수
	주식회사수산이앤에스	대표이사	한봉섭
철탑 산업훈장	이구산업(주)	대표이사	김영길
	(주)삼진지.에프	대표이사	방관혁
	세아상역(주)	상무이사	이중오
	(주)동보	상무이사	박동열
	(주)쎄믹스	대표이사	김지석
	(주)에이치피에스피	대표이사	김용운
	(주)라모스테크놀러지	대표이사	조장호
	케이넷(주)	대표이사	오영석
	대진기계	대표	곽노근
석탑 산업훈장	(주)구수중전기	대표이사	김원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처장	윤인규
	(사)한국무역협회	본부장	김고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부장	김태호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	윤종배
산업포장	현대삼호중공업(주)	책임매니저	김기섭
	(주)현대미포조선	부장	박승호
	현대제철주식회사	상무	김성민
	희성촉매주식회사	팀장	송진우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원
	(주)코스메카코리아	대표이사	조임래
	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주)	대표이사	이종화
	세미플론(주)	대표이사	이진용
	디와이파워(주)	이사	정해영
	주식회사우신세이프티시스템	부장	박성재
	(주)수산중공업	부장	안태헌
	넥센타이어(주)	법인장	한윤석
	(주)아이디스	본부장	전준
	(주)빅토리아텍스타일	대표이사	임정묵
	주식회사아테코	대표이사	이택선
	주식회사지앤티글로벌코리아	대표이사	나우채
	주식회사아민	대표이사	이윤준
	(주)제우테크노	대표이사	김치현
	엘지이노텍(주)	팀장	서우석
	린데코리아주식회사	차장	김명환
	일본전기초자주식회사	부장	나카노 이치로
	(주)금명하이텍	대표이사	서인명
	엘에스일렉트릭재팬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태근
	(주)브랜뉴머시너리	대표이사	도성진
	부산신항만(주)	상무	한두포
	서강대학교	교수	김시중
	현대건설(주)	상무	조상열
	(주)신성목공	대표이사	최길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법인장	감상균
	가나물상(주)	대표	홍기호
	(주)풍산	부사장	김영주
대통령표창	씨제이올리브영(주)	대표이사	정윤규
	한화솔루션(주)	팀장	이종우

수상내역	업 체 명	직 위	성 명
대통령표창	삼성물산(주)	그룹장	배정환
	금호미쓰이화학주식회사	상무	정대성
	희성피엠텍(주)	차장	박연수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팀장	한권환
	주식회사포스코	그룹장	서용덕
	(주)풍산디에이케이	대표이사	안동일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장인아
	(주)세라젬	대표이사	이경수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수석	이원걸
	정우금속공업(주)	이사	김진현
	주식회사경동나비엔	법인장	이상규
	(주)우신시스템	부장	오용택
	주식회사유라하네스	팀장	박명호
	(주)융진	이사	이상열
	(주)네이처리퍼블릭	이사	유은정
	주식회사피제이메탈	이사	주영일
	(주)동보	계장	박인선
	한국알프스(주)	책임매니저	김대원
	아이쓰리시스템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한
	주식회사저스틴비디앤엘	대표이사	김상욱
	씨에이치글로벌유한회사	대표이사	조경순
	(주)코웰메디	대표이사	김기홍
	주식회사티피엠엔	대표이사	박도현
	(주)켐오일	대표이사	채홍룡
	지더블유인터내셔널주식회사	대표	김삼용
	(주)한일하이테크	대표이사	이이원
	(주)바이오뷰텍	대표이사	김인영
	주식회사디씨티	대표이사	김광성
	주식회사지씨이	사장	김윤곤
	동아전자(주)	대표이사	안병수
	주식회사보근	대표이사	박성원
	주식회사영진하이텍	대표이사	김영호
	(주)황조	대표이사	문병태
	비즈온글로벌(주)	대표이사	유재철
	(주)진영	부사장	노운래
	(주)라모스테크놀러지	이사	명노광
	헵시바(주)	부장	김석
	(주)홍림교역	이사	김덕영
	화성금속공업(주)	차장	이은숙
	(주)삼천리기계	부장	이호범
	㈜피,엔,티	고문	강명구
	태광정밀화학주식회사	사장	전대성
	주식회사티에스아이	부사장	안창희
	대성금속(주)	대표이사	노윤구
	(주)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부장	김현수
	비전세미콘(주)	전무이사	권성만
	주식회사와이엠텍	차장	김현식
	유진통신공업(주)	부장	김경훈
	(주)조비	사장	이승연
	한미반도체주식회사	이사대우	김정태
	주식회사제주반도체	부장	김호림
	주식회사신스틸	전무이사	한희석
	시너스(주)	대표이사	김부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실장	전미호
	우영유압(주)	대표이사	채인기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	팀장	송석호
	주식회사피엔에이링크	컨설턴트	이소현
	(주)한국무역정보통신	과장	구준완
	(사)한국무역학회	회장	이봉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장	이길재
	(주)비츠로이엠	대표이사	장택수
	한국광해광업공단	차장	최부갑
	주식회사케이타운포유	팀장	류용석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이준봉
	김 · 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세연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사장	유용중
	(주)홈앤쇼핑	차장	박문수
	대상(북경)식품유한공사	상무	이상철

수상내역	업 체 명	직 위	성 명
대통령표창	(주)메쎄이상	회장	조원표
	두루무역(주)	대표이사	유동림
	주식회사포스포	대표이사	윤호신
	(주)유스틸	대표이사	이치형
	삼성에스디에스(주)	부장	송아나스따시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국무총리 표창	한전원자력연료(주)	연구원	윤상준
	대한조선주식회사	차장	최규석
	현대삼호중공업(주)	반장	신경우
	(주)현대미포조선	기원	엄성일
	희성촉매주식회사	기감	남범우
	현대제철주식회사	기장	김보현
	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주)	팀장	최운기
	하나시스주식회사	연구소장	윤현오
	삼강엠앤티(주)	과장	김병한
	아네시	대표	천영근
	(주)지앤에프	이사	김무창
	주식회사신풍산기	부장	박상진
	(주)엠아이씨텍글로벌	대표이사	박진호
	(주)궁전방	부장	박행련
	넥센타이어(주)	팀장	손민필
	주식회사나경	대표이사	차윤근
	(주)데코산업	과장	최석근
	케이피엔티주식회사	대표	강병의
	한국플랜트	대표	김병학
	(주)솔리드메카	대표이사	김태완
	주식회사우신세이프티시스템	기성	박응수
	비엔스틸라(주)	차장	윤대한
	주식회사대원코프	대표이사	윤종원
	(주)미주파워텍	전무이사	이성호
	주식회사엠피에스	대표이사	이재완
	(주)지티월드	대표	정상훈
	상신이엔지주식회사	과장	최우철
	(주)수산씨에스엠	차장	하진희
	세원화성주식회사	부장	현주환
	주식회사아이크	상무이사	김대종
	(주)인텍플러스	부사장	김재호
	농업회사법인 두리두리	상무	김종준
	(주)중원산업	상무이사	김호동
	(주)대명연마	부장	박창현
	(주)굿트러스트	이사	이민희
	케이넷(주)	전무이사	임광훈
	모락스트레이딩(주)	부장	박은정
	(주)엔원테크	대표이사	최모성
	신성오토모티브주식회사	기술대리	김현철
	고모텍(주)	부장	윤석주
	영도산업(주)	반장	정태흠
	쿨랜스코리아주식회사	반장	박남주
	(주)쎄믹스	이사	강건수
	(주)한메가	대표이사	강주승
	(주)젤텍	부장	김병성
	(주)전자신문사	차장	김신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김창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장	김형운
	(주)성현	대표이사	김호성
	삼성전자(주)	프로페셔널	김호용
	주식회사유니크	선임매니저	박용진
	(주)한국그린켐	대표이사	류희정
	주식회사엘케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준호
	(사)한국선급	본부장	박주성
	전방텍스타일	이사	박진우
	(주)신한은행	커뮤니티장	배현재
	주식회사수산이앤에스	과장	서형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장	안유석
	(주)코스메카코리아	책임	양은석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위찬정
	씨제이제일제당(주)	대표이사	윤도선

수상내역	업 체 명	직 위	성 명
국무총리 표창	태광후지킨주식회사	반장	이덕훈
	주식회사청안오가닉스	대표이사	이명연
	삼양식품(주)	차장	이상민
	에이에이씨티유한회사	부장	이상준
	(주)수산중공업	반장	이순금
	현대엔지니어링(주)	상무	이승원
	(주)네오바이오텍	부장	이신웅
	소니메디	대표	이정복
	씨에스홀딩스(주)	법인장	이창수
	한국남부발전	차장	임윤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장경훈
	(주)우리은행	본부장	장창엽
	한국가스공사	과장	정회석
	주식회사포스코인터내셔널	그룹장	조남대
	주식회사퍼민	대표	조은정
	현대로템주식회사	부장	조일연
	디와이파워(주)	공장장	주봉환
	동아화성주식회사	전무	지창훈
	(주)하나은행	지점장	최현수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팀장	클라우스 줄리안파스칼
	신성델타테크(주)	차장	하영중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하창인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한재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대원
	공군본부	공군대령	김성중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표창	(주)루소	팀장	서지희
	주식회사애플티	이사	나경진
	대성금속(주)	상무이사	이성우
	(주)엔에이치인터내셔널	대표	김호석
	(주)쎄믹스	실장	윤대석
	(주)인텍플러스	전무	주병권
	(주)옵토레인	대표이사	이도영
	주식회사경동나비엔	파트장	유성목
	(주)티르티르	대표이사	이보희
	(주)데코산업	부장	최순집
	(주)에스앤씨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박형준
	(주)에이치에스지	사원	박정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	케네스민 규리
	㈜한일하이테크	부장	박창호
	(주)코리나무역	대표이사	전학철
	21세기기업(주)	반장	박용주
	삼일테크(주)	과장	델리소 롤랜도
	(주)케이지무역	대표	독토바에 브일리아즈
	(주)삼천리기계	부장	박선준
	한창기업(주)	반장	김정임
	주식회사농가의하루	대표이사	안현주
	(주)대창식품	대표이사	정현택
	농업회사법인 (주)에버굿	대표이사	김한상
	주식회사티에스아이	팀장	오재규
	(주)복스트라	대표이사	홍석민
	동진기업(주)	팀장	신성섭
	(주)삼광	프로페셔널	한희봉
	(주)코스알엑스	팀장	원얜홍
	(주)에스테크	팀장	허재원
	주식회사케이타운포유	팀장	송희연
	주식회사유바이오로직스	부장	오명석
	고모텍(주)	사원	성연옥
	(주)마블프로듀스	대표	전현준
	위시컴퍼니(주)	팀장	이주아
	(주)세고스	반장	문창열
	주식회사삼화	부장	이훈
	경북통상(주)	대리	유서연
	(주)씨앤씨인터내셔널	부사장	배수아
	(주)대화산기	부장	김민재
	(주)덴티스	본부장	차주완
	터보파워텍(주)	부장	정영진
	(주)제일무역	대표이사	조우현
	(주)메가젠임플란트	이사	이우용
	(주)유니온전자통신	차장	허은선
	(주)중원산업	직장	박인규
	주식회사와이엠텍	주임	윤희관
	(주)리템엘앤씨	차장	오섬근
	(주)퀸스인터네셔널	대표	최윤민
	씨에이엘(CAL)	대표	이준재
	주식회사아테코	팀장	민상홍
	(주)이엠비글로벌	대표이사	김언빈
	삼강엠앤티(주)	기원	최해춘
	(주)더케이로지텍	대표이사	권민재
	(주)미래기연	조장	박억신
	농업회사법인 (주)영풍	과장	변지나
	아이쓰리시스템주식회사	과장	김진원
	(주)이즈앤트리	과장	형초롱
	(주)한국정밀	전무이사	송의환
	레이저쎌주식회사	상무이사	손호석
	(주)영남메탈	상무	김경태

수상내역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표창	정우금속공업(주)	직장	이현우
	(주)인터로조	과장	이철은
	주식회사 롬팩	대표이사	박계현
	(주)덕인	차장	차상윤
	한국알프스(주)	책임매니저	황금하
	이든인터내셔널(주)	팀장	박동현
	데코윈텍스타일	대표	이근수
	아이엔테코(주)	반장	박만기
	(주)마스	대표이사	남창호
	(주)태상	부문장	정동호
	(주)켐옵틱스	차장	정진권
	주식회사유니팩	대표이사	이경택
	(주)우주글로벌	과장	양은석
	㈜에이아이코리아	부사장	최현모
	(주)프레스코	과장	강명구
	(주)제우테크노	부장	이철범
	하이트진로(주)	부장	성관기
	일광공구공업(주)	반장	김상영
	(주)진영이노테크	대표이사	배영호
	(주)유에이치텍	과장	유정옥
	하나섬유	차장	김성현
	(주)미주파워텍	상무이사	이상덕
	주식회사디지레이	대표이사	공상섭
	프리닉스(주)	대표이사	노광호
	서울전선(주)	이사	이후근
	(주)수양켐텍	차장	윤만석
	(주)경우시스테크	부장	조지훈
	세원화성주식회사	대표이사	국승원
	(주)코리녹스	대리	박혜인
	(주)하스	대리	탁효례
	에코시계(주)	사장	고영곤
	(주)디티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정은우
	주식회사해강산업	대표이사	이국천
	장암칼스(주)	대표이사	구연찬
	(주)실리콘마이터스	본부장	김경환
	(주)엠에이치수산	부장	박정환
	(주)스페이스솔루션	과장	오도영
	코로스전지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훈
	주식회사엘케이엔지니어링	상무	김남출
	(주)에스켐	대표이사	김동욱
	선일텔레콤(주)	대표이사	구본석
	(주)세명에버에너지	대표	전형진
	재유코퍼레이션(주)	이사	함동인
	지더블유인터내셔날주식회사	이사	조효이
	에이치엘비(주)헬스케어	본부장	이제규
	(주)올릭스글로벌	대표이사	유창남
	티피에이코리아(주)	대표이사	최재웅
	(주)청미래	대표이사	김현성
	주식회사인터원	대표이사	나정훈
	(주)아임유	대표이사	최재섭
	데코밸리(주)	대표이사	송영관
	(주)예인티앤지	대표이사	김경남
	주식회사알피에스	이사	조지훈
	비아이피(주)	반장	구본일
	(주)그레이스온	대표	청솨이 솨이
	덕산약품공업(주)	반장	이지훈
	부흥시스템(주)	팀장	이지은
	(주)에스씨엘	과장	김연화
	퀄맥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종국
	(주)루소	공장장	이충환
	주식회사세이가	대표이사	이경도
	애터미(주)	차장	반진호
	(주)대하	과장	이혜미
	대달산업(주)	대표이사	권현달
	영도산업(주)	차장	조원제
	(주)마크로케어	공장장	한민우
	아이메디컴(주)	대표이사	주돈수
	주식회사아이크	대표이사	이인기
	(주)디에스피	이사	나준호
	(주)일신웰스	대표이사	박병서
	(주)황조	상무	이기봉
	(주)지씨에스	대표이사	유두영
	(주)러시아	대표이사	이서훈
	넥서스파마(주)	회장	현창훈
	주식회사석우	대표	최승호
	(주)알씨이	대표이사	한호진
	(주)제이앤에스	상무이사	임동석
	(주)리얼게인	차장	임영철
	(주)영재철강	대표이사	최익섭
	(주)범농 농업회사법인	과장	김윤희
	(주)수산씨에스엠	사원	이동근
	주식회사애드위너	대표이사	조양래
	(주)다산에이디	본부장	류희창
	(주)바이바이	이사	박태균
	주식회사아민	공장장	오판철
	대진금속주식회사	이사	한병목
	주식회사신성금속	팀장	주진환
	현대중공업터보기계주식회사	상무	추헌직
	주식회사청안오가닉스	과장	최사무엘
	(주)아이토크콘트롤즈	팀장	김 철

수상내역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표창	기가비스(주)	부장	차유덕
	(주)에프알디	대표이사	박규홍
	(주)다솔	대표이사	김슬기
	(주)고려비엔피	대리	전현진
	삼양식품(주)	팀장	권기현
	비엔스틸라(주)	직장	고경균
	켐솔루션(주)	부장	이철호
	(주)제이비피코리아	차장	조현성
	하이드로텍(주)	팀장	추건호
	(주)시티케이	대표이사	육창현
	(주)원우이엔지	대표이사	서병일
	(주)블루인더스	대표이사	정천식
	(주)신아전자	대표이사	이재덕
	부천공업(주)	대표이사	강경필
	(주)가유	대표이사	안필이
	범양기업	대표	김범수
	(주)비스타릿	대표	이정호
	(주)로프캠프	공장장	김금호
	(주)글로쿼드텍	대표	장기수
	(주)핌스	연구소장	유홍우
	파주전기초자(주)	과장	정은호
	(주)탑코	대표이사	유정석
	(주)마루온	대표이사	한연수
	우진산업(주)	대표이사	김창영
	(주)아트페이스	대표이사	안경열
	(주)유알지	팀장	우경미
	(주)유티케이	상무이사	정용현
	지디케이화장품(주)	대표이사	김태성
	대현수지	대표	이미자
	(주)원데이바이오텍	부사장	송재현
	성문일렉트로닉스(주)	대표이사	이강일
	신성에스티주식회사	전무이사	권병현
	(주)캡쳐	대표이사	윤영복
	(주)코엠에스	상무	이경윤
	쿨랜스코리아(주)	사원	이승수
	한미전선(주)	대표이사	성병경
	태창금속산업(주)	부장	이해승
	포덤코스메슈티컬즈	대표	김성철
	주식회사보근	팀장	김상수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이사	문상현
	(주)레어팜	대표이사	김성회
	(주)씨앤엠비즈	대표이사	이경희
	(주)더파트너즈	대표이사	허승화
	(주풍산디에이케이	팀장	이영학
	(주)에이치에스오토모티브	부장	신우철
	태광후지킨주식회사	과장	황대현
	지오닉스	대표	백태순
	(주)비앤에이치코스메틱	대리	동천용
	미진공압산기주식회사	부장	김영기
	(주)오토모빌토탈솔루션	대표	진재웅
	(주)지맥스	파트장	백상진
	태평양건설	대표	김재명
	(주)한림티앤씨	이사	이승기
	주식회사플렉시아	대표이사	전준혁
	(주)동원P&P	대표이사	지제도
	(주)성광옵틱	팀장	이종윤
	코스모스	대표	김가영
	농업회사법인 두리두리	부장	정재식
	동해스틸텍(주)	대표이사	신동형
	(주)궁전방	팀장	송세일
	북하특품사업단(주)	대표이사	정병준
	케이앤엘 코퍼레이션	대표	이수정
	케이아이씨(주)	부장	김규회
	(주)에스엠아이앤씨	대표이사	이종진
	주식회사재영	부장	남태욱
	(주)삼원	대표	김한상
	두리마이텍(주)	대표이사	황창연
	(주)우성아이비	상무이사	이강식
	(유)세린	대표	유현희
	(주)디오도노	차장	정민우
	(주)헥사코리아	선임	박소연
	주식회사코머스코퍼레이션	실장	최현민
	(주)진글라이더	대표이사	송진석
	(주)글루업	대표	박경준
	리얼월드코리아(주)	대표이사	백성관
	(주)강민코퍼레이션	사장	강기복
	(주)세라젬	사원	방권민
	(주)카츠코리아	대표	이성길
	(주)엑티브온	차장	박윤빈
	(주)엔피에스	대표이사	배성호
	(주)해피글로벌솔루션	대표이사	윤해근
	(주)에코윈	대표이사	구경본
	북두산업(주)	대표이사	박동명
	주식회사크래프트맨	대표	고영남
	(주)다산제약	대표	류형선
	(주)나눔테크	차장	박종서
	(주)신티에스	상무	고재준

수상내역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주)한서정공	대표이사	홍석봉
	에이치제이이앤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장수
	(주)바우와우코리아	팀장	이승수
	(주)동방미인코리아	이사	조민재
	한양로보틱스(주)	차장	서동윤
	(주)아침해의료기	파트장	이동구
	(주)우신시스템	반장	정향란
	(주)피,엔,티	차장	김광현
	(주)더존케미칼	대표이사	김태억
	흥가하이드로릭스코리아(유)	대표이사	허성욱
	(주)지오엠에스	대표이사	김민수
	(주)지유	대표	장육유
	(주)케이와이엘트레이딩	이사	정철
	(주)에이지켐솔루션	대표	고길홍
	(주)이파워	대표이사	고정임
	한진철관(주)	차장	윤지영
	(주)아이지스	차장	정승원
	(주)아이케이푸드	대표이사	이창훈
	옥해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회
	린데코리아주식회사	과장	김준
	(주)젤텍	전무	양준성
	상신이엔지주식회사	부장	조주희
	유진통신공업(주)	대리	유정현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고성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문서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조윤후
	고산티엠(주)	대표이사	손병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이지문
	(주)유원산업기술	대표이사	문수경
	한국콘텐츠진흥원	센터장	김영수
	주식회사씨케이엘	대표이사	박성영
	(사)벤처기업협회	과장	이상배
	케이엘피코리아(주)	대표이사	김케네 스택
	(주)이씨이십일	대리	박슬
	한라아이엠에스주식회사	상무	이주하
	(주)이온인터내셔널	대표이사	한정우
	(주)드림셰프	상무	남상무
	(주)이룸팩토리	대표이사	김상권
	제이앤지코스메틱(주)	대표	김정국
	유니스파테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정동
	에스엠에이티(주)	대표이사	김성문
	(주)또르르	대표이사	윤길영
	지제이테크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봉기
	(주)동해이앤티	대표이사	김진영`
	관세법인 커스앤	대표	박주형
	이상헌관세사사무소	대표	이상헌

수상내역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농업회사법인 동방제유 주식회사	공장장	최정원
	(주)쎄노텍	이사	문태경
	디에스알(주)	대표이사	홍석빈
	(유)해오담농업회사법인	대표	전순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조은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대우	형가진
	(주)우리은행	팀장	김민재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부장	권오준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부장	김영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연원호
	법무법인(유한)광장	연구위원	허난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최용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실무관	엄현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원	권용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무원	김상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전문관	최상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장	이승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팀장	유정식
	한국산업단지공단	팀장	이동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전문관	성희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강원지회	차장	엄유래
	(주)부산은행	대리	전우중
	대한상공회의소	차장	강현실
	(주)대구은행	대리	이현진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센터장	심성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장	정지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전문관	김정욱
	(재)경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3급)	김봉수
	강원도경제진흥원	팀장	박보흠
	(주)신한은행	센터장	정성종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사	김소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배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백재승
	중소기업중앙회	과장	임경민
	주식회사포스코	대리	이은조
	주식회사고피자	대표이사	임재원
	코코넛사일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승용
	(주)대한항공	부장	김우홍
	(주)파이브핑거시스템	대표이사	김종열
	(주)휴스틸	이사	황은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	안태웅
	농업회사법인(주)네시피에프엔비	대표	장현순

수상내역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팀장	김은경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유)	부장	한상훈
	주식회사힐록스	대표이사	김도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권승면
	신용보증기금	차장	김재원
	가온브로드밴드(주)	대표이사	전대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임스페셜리스트	이순재
	방위사업청	매니저	김형철
	엘아이지넥스원(주)	팀장	류성훈
	(주)제이엘유	대표이사	김기수
	(주)올릭스	대표이사	안종욱
	주식회사고려정공	대표이사	안승의
	(주)이더라	대표	박준영
	주식회사케이알티앤에스	대표이사	김영재
	(주)옥두식품	대표이사	최정자
	자경케미칼(주)	대표이사	이기석
	하나은행동경지점	지점장	김진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리	박민진
	제주특별자치도	주무관	김연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무관	정윤정
	충청남도	주무관	우장훈
	삼성물산(주)	프로젝트 매니저	이동보
	평창청옥산천년초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경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원	김희은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교수	윤은주
	(주)디엔아이씨	대표	유지수
	농심캐나다주식회사	법인장	박성진
	알파현대모터	사장	메디마흐 주브
	주식회사윌비스	상무	이문헌
	주식회사포스코인터내셔널	부장	조용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부장	이정훈
	현대자동차스페인판매법인	법인장	가석현
	후지산업주식회사	사장	토도 다카코
	크리에이시브유한회사	대표	장션성욱
	아난드그룹	사장	라지브 게라
	노블홀딩스	대표	나야르 아마드
	티센크루프 프레스타	기술이사	뮐슐락 토스텐
	샤라프디지유한책임회사	최고경영자	닐리쉬 칼코
	(주)오다메드	대표이사	김정구
	(주)태원인터내셔날	대표이사	김성택
	울타리유에스에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상곤
	자마방유한공사	대표	심선미
	(주)마코피셔리스	회장	김덕기
	(주)한협통상	대표이사	이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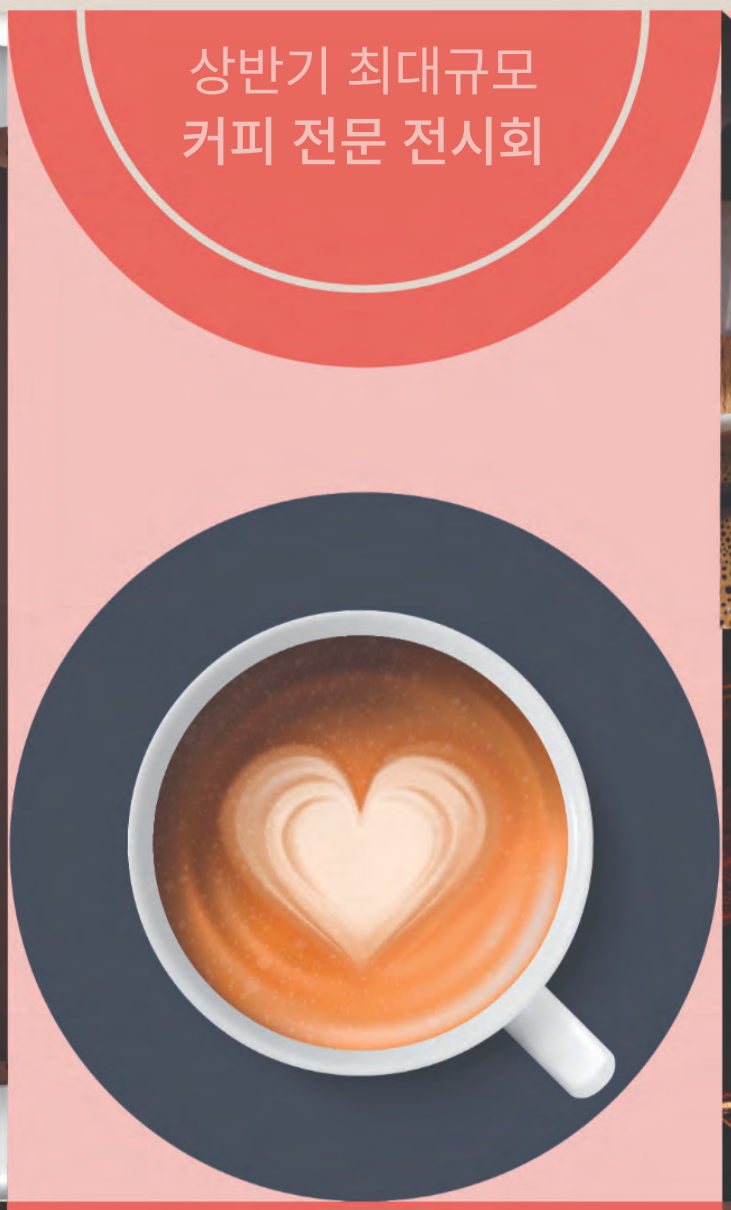
COFFEE EXPO SEOUL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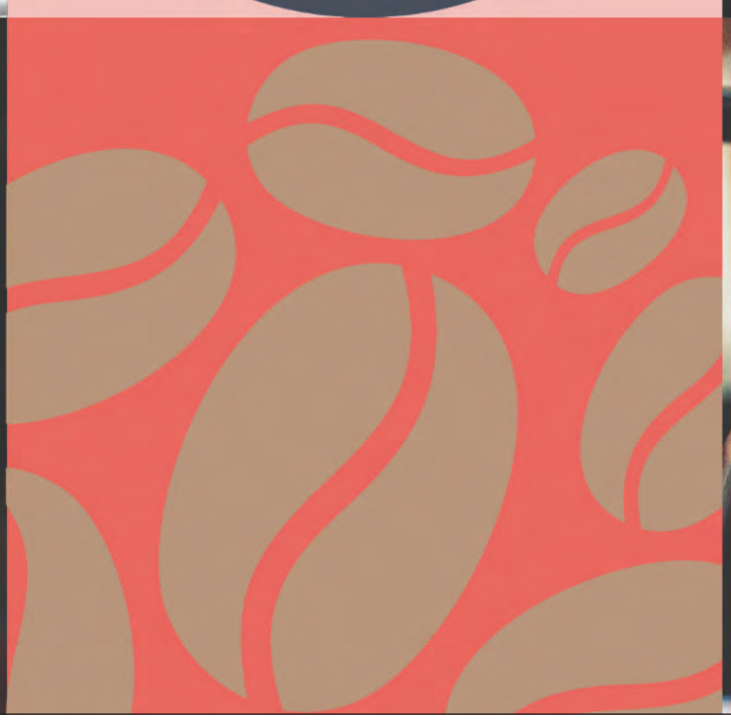
2023 서울커피엑스포

2023.4.5(수) - 8(토) | 코엑스 A,B홀

참가신청 바로가기

상반기 최대규모
커피 전문 전시회





알립니다

●2023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참가모집

KOTRA는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 · 중견기업에 현지 KOTRA 협력 물류회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의 2023년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1개사당 최대 5개 무역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 비용은 기업당 100만~2000만 원 사이며 이 중에서 국고 지원 비중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다. 아마존 입점 기업이라면 해당 국고지원을 통해 아마존 FBA 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이용 기업에는 해외 현지 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서비스는 물론, 수출마케팅 서비스도 지원된다.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를 국고 지원을 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12월 14일까지 KOTRA 무역투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 문의 : KOTRA 유망기업팀
- 전화 : 02-3460-7923
- 홈페이지 : www.kotra.or.kr

●MWC 2023 바로셀로나 4YFN 참가기업 모집

한국무역협회는 유럽경제협력네트워크(EEN)와 함께 세계 최대 정보통신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바르셀로나 2023 4YearFromNow(4YFN)'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4YFM은 MWC 내에서도 혁신 신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CES 유레카파크, IFA NEXT와 더불어 세계 3대 IT 전시회의 스타트업 전용관으로 꼽힌다. 4YFN 행사는 오는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참가기업에는 부스 임차 및 장치비와 마케팅비 등 국고 지원이 이뤄지며 EEN 오픈이노베이션 행사 참가도 지원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2월 9일까지 담당자 메일로 사업자등록증, 제품 카탈로그, 전시 계획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문의 : 한국무역협회 플랫폼마케팅실
- 전화 : 02-6000-5407
- 이메일 : mw.jeon@kita.or.kr
- 홈페이지 : www.kita.ner

●독일 쾰른 국제 치과 전시회 프리미엄 홍보관 운영

KOTRA는 국내 치과 산업 분야 기업 및 스타트업의 홍보 및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2023 독일 쾰른 국제 치과 전시회(IDS 2023)' 프리미엄 홍보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전시회는 오는 2023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독일 쾰른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프리미엄 홍보관 규모는 100개사로 예정돼 있으며 K-Dental Clinic과 프리미엄 한국 치과 제품 쇼케이스, 프리미엄 상담장을 운영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2월 9일까지 무역투자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 문의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 전화 : +49-69-242-992-56
- 이메일 : SY.HYUN@kotra.or.kr
- 홈페이지 : www.kotra.or.kr

●2023년 러시아 모스크바 건축 전시회 한국관 참가모집

KOTRA는 국내 건축 관련 기업의 해외판로개척을 위해 CIS지역 최대 건축박람회인 '2023년 러시아 모스크바 건축 전시회(2023 Mosbuild)'에 한국관으로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참가기업에는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운송비,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전시회는 내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커스 엑스포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한국관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2월 14일까지 글로벌전시플랫폼(www.gep.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를 마치고 글로벌비즈마켓(기업 141-069032-01-061) 계좌에 500만 원의 참가지원금을 납부해야 한다.

- 문의 : 글로벌비즈마켓
- 전화 : 02-6671-0746
- 이메일 : global@gbexhibition.com
- 홈페이지 : www.kotra.kr

●2022년 해외 상표조사 사업 참여기업 모집

KOTRA는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우리 기업 브랜드의 상표권 확보, 보호 및 분쟁 예방 등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해외 상표 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해외 상표조사 비용의 최대 70%까지 간접 지원하며, 건당 15만4000원 중 정부가 10만7800원을 부담한다. 기업당 최대 3건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2월 9일까지 KOTRA 무역투자 24 홈페이지 공고의 신청 양식에 따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 문의 : KOTRA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 전화 : 02-3460-3359, 3357
- 이메일 : ip-desk@kotra.or.kr
- 홈페이지 : www.kotra.or.kr

●한-UAE 비즈니스 협력포럼 참가기업 모집

한국무역협회는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관과 함께 '한-UAE 비즈니스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기업인들의 UAE를 비롯한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행사는 오는 12월 8일 코엑스 아셈볼룸 201호에서 개최되며 한국외대 모아멘 구다 교수를 모더레이터로 타리크 알 하시미 UAE 기술채택 및 발전국 실장이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하고 노지인 아부다비 투자청 본부장이 현지 투자환경과 진출 전략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백경훈 엔씽 기술총괄이사도 연단에서 K-스마트팜의 중동진출 사례를 공유한다. 포럼에 현장 참가하고 싶은 기업은 12월 7일까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 문의 : 한국무역협회 지역협력실
- 전화 : 02-6000-5856
- 홈페이지 : www.kita.net

●[강원] 2022년 3차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사업

강원도경제진흥원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사전 모색하고 대면 마케팅으로 확장하고자 동남아권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가기업 3차 모집을 시행한다. 사업에서는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소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어 발굴, 인플루언서 마케팅, 수출 선적 등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12월 30일까지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 문의 : 강원도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글로벌통상팀
- 전화 : 033-749-3314
- 이메일 : kogwex@gmail.com
- 홈페이지 : tradesupport.gwd.go.kr

●[대구] 지역주력 수출기업 Biz 플랫폼 상품콘텐츠 제작지원

대구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고,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지역주력 수출기업 Biz 플랫폼 지원사업'과 관련해 Biz 플랫폼에 활용할 수출상품 실감 콘텐츠 제작지원 과제를 수행할 공급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수혜기업)에서 공급기업으로 비용을 먼저 지출한 후 대구TP가 수혜기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과제는 ▷수출상품 2D 가상화 지원 ▷수출상품 3D 가상화 지원 ▷그래픽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 지원 ▷온라인 등록 및 동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E-카탈로그 디자인 개발 지원 ▷메타버스 플랫폼 홈페이지 연동 지원 등이다. 공급기업에 지원할 업체는 12월 9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 문의 : 대구테크노파크 ICT산업본부 메타버스센터
- 전화 : 053-602-1858
- 이메일 : wixlasha@dgtp.or.kr
- 홈페이지 : www.dgtp.or.kr

●[전북] 김제시 2022년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KOTRA전북지원단은 전라북도 김제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특송, 복합물류운송업(포워딩), 국내운송, 해외 물류 창고 비용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율 80%까지 맞춤형 실비 지원하며 EMS나 DHL 등 국제특송은 물론 포워딩, 국내운송과 해외 물류창고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김제시 홈페이지(www.gimje.go.kr) 공고문에서 신청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담당자 이메일(kh92@korea.kr)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수혜기업은 KOTRA 기업회원에 가입돼있어야 한다.

- 문의 : KOTRA전북지원단
- 전화 : 070-7931-0813
- 이메일 : ruddk0420@kotra.or.kr
- 홈페이지 : www.gimje.go.kr

●[울산] 2023년 환율 전망 및 환리스크 관리 방안 설명회

한국무역협회는 울산 소재 수출입기업 임직원 및 지역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3년 환율 전망 및 환리스크 관리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강료는 무료며 행사는 오는 12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울산경제진흥원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12월 8일까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 문의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 전화 : 052-287-3061
- 이메일 : kitaulsan@kita.net
- 홈페이지 : us.kita.net

12월 12일 국내 유일 '디지털 통상 콘퍼런스' 열린다

디지털 무역의 기회와 도전(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Digital Trade)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 · 외 유수 대학, 연구소, 법무법인, 디지털 기업의 전문가를 온 · 오프라인으로 초청해 국내 유일의 디지털 통상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2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 무역의 기회와 도전(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Digital Trade)'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콘퍼런스에는 기업인, 전문가, 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콘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국제규범의 형성'을 주제로 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 대표가 발제를 맡고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Deborah Elms 싱가포르아시아무역센터 대표, 카르스텐 스테인패트(Karsten Steinfatt) WTO 사무국 선임고문, 펑신이(Peng Shin-yi) 대만 국립칭화대 교수(화상), 이주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패널 토론을 벌인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디지털협정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스테인패트 WTO 사무국 선임고문의 발제에 이어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좌장으로 드보라 엘름스(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 대표, 재비어 로페즈 곤잘레스(Javier Lopez Gonzales)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화상),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김두식 법무법인세종 변호사가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세 번째 세션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와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는 곽주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현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이재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협력본부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종일 쿠팡 전무, 오지원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디렉터가 패널 토론을 이어간다.

김영채 기자

● 〈한국무역신문〉에서는 기관이나 단체, 지자체, 기업들의 행사, 이벤트, 모집 등의 공고를 접수합니다.
■ Tel : 02-6000-3124 Fax : 02-6000-3122
■ E-mail : wtrade07@gmail.com

한국무역신문 www.weeklytrade.co.kr
발행인·대표이사 : 김석경 편집인 : 김보근
인쇄인 : 이병동 편집디자인 : 조철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4층 427-2호)
구독 : 02-6000-3123 광고 : 02-6000-3116
대표전화 : 02-6000-3119 팩 스 : 0303-3447-3119
E메일 : wtrade07@gmail.com 정가 2,500원 정기구독료 : 1년 100,000원
등록일자 : 2007년 4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 다07698

The 59th Annual Trade Day

제59회 무역의 날

도전하라 무역강국!
도약하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TA
한국무역협회